

석사학위논문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

지도교수 안 성 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문 인 숙

2000년 8월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

지도교수 안 성 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0년 6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제출자 문 인 숙



문인숙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0년 7 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

문 인 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안 성 수

이 연구는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다양한 '고향'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일제의 강력한 식민통치와 경제적 수탈 시대에 당대 지식인인 작가들의 의식구조 속에 자리잡고 있던 고향의 의미와 가치를 구명해 보기 위해 현진건 「고향」, 이태준 「고향」, 이기영 『고향』, 박화성 「고향 없는 사람들」, 이근영 「고향 사람들」 등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텍스트로 선정한 다섯 편의 작품들이 '고향'의 의미를 어떻게 형상화하는가를 유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우선 플롯과 배경, 인물과 갈등구조, 시점과 서술, 주제 등을 분석하여 고향의 의미와 연관지어 보았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작품의 고향의 의미와 유형적 특성을 상호 텍스트성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이들은 모두 '고향'이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어 상호간의 의미 연관성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일제 식민통치 시대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창작된 작품들이기에 '고향'은 끊임없이 돌아가야 할 회귀의식과 동경의 대상으로 형상화되고 있었다. 플롯에서는 대체로 비극적인 플롯이 주류를 이루었고 주인공들의 고향인식은 비극·환멸·절망·상실감 등으로 표현되었다. 배경에서는 일제의 수탈 정책으로 극한적인 궁핍의 상황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설정하거나, 고향을 조국 전체로 확대시켜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갈등구조에서는 일제 식민통치 시대를 특수한 사회적 갈등의 한 양상으로 파악하고 농민들이 식민지 정책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었음을 고발하는 공통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주제에서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일제 식민통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현실사회를 고발하고 비판하면서 당시의 바람직한 인간관과 지식인으로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작품이 많았다.

나아가, 이 소설들은 당대 현실의 비판 및 고발자로서 일제 주도하의 파행적 자본주의와 식민지 정책이 어떻게 한국 농촌을 수탈하고 착취하여 작중인물들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증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본 논문은 2000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2
3. 연구 방법	4
II. '고향'의 형상화 기법	7
1. 플롯과 배경	7
2. 인물의 성격과 갈등구조	38
3. 시점과 서술	64
4. 주제	78
III. '고향'의 의미와 상호 텍스트성	87
1. 이야기 구조와 배경 설정 방법	89
2. 성격과 갈등 창조 방법	93
3. 시점과 서술방법	97
4. 주제의 유형과 의미	100
IV. 결론	103
참고문헌	107
Abstract	111



표 목 차

〈표1〉 : 플롯 유형분석표	90
〈표2〉 : 배경분석표	92
〈표3〉 : 주인공의 성격분석표	94
〈표4〉 : 갈등유형분석표	96
〈표5〉 : 시점과 서술방법 분석표	99
〈표6〉 : 주제 분석표	101



I. 서론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다양한 고향(故鄕)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일제의 강력한 식민통치와 경제적 수탈 시대에 당대 지식인인 작가들의 의식 구조 속에 자리잡고 있던 고향의 의미와 가치를 그들의 작품에 반영된 고향 모티브를 통해서 구명해 보려고 한다.

일제 강점기는 국권 회복의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특수 상황에 처한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개인과 민족의 현실을 깊이 자각하고 인식하는 기회로 삼았다 특히 이 시기는 우리 민족에게 고향 떠남 혹은 고향 상실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버리고 타지와 이국으로 방황해야 했던 당대인들에게 고향은 삶의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상실되거나 약화되었던 것이다.

인간은 비록 자신이 태어나고 살아왔던 고향을 떠나더라도 과거의 체험과 기억들은 항상 내면의식 속에 간직하게 된다. 따라서 고향은 실재적이거나 지리적인 공간의 의미를 초월해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문학 작품 속에서 향수니 동경이니 하는 단어가 고향의 상징어가 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그러나 고향이 과거적 의미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현재와 미래의 삶의 방식이나 태도에도 무관하지 않다. 고향에 대한 인간 의식은 과거와 현재·미래를 연결시키는 연속적인 시간과 공간 의식을 형성한다. 때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의 본질적이며 원초적인 의식세계를 구성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고향은 의식 내재적이며, 정신적인 차원의 의미를 지닌다.

일제 강점기는 우리 민족에게 정신적 측면에서는 주체성 억압과 가치관 혼란의 시기였고, 물질적 측면에서는 경제적 궁핍화에 따른 이농현상이 점차 심각한 국면으로 조성된 시기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고향 상실의 문제는 당대 작가들의 소설에 중요한

모티브로 자리잡게 되었다.

소설 속에서 고향의 의미는 특별히 조국의 의미로 확대되면서, 고향 상실 모티브는 곧 조국 상실 모티브로 나타나기도 한다.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실감이 심화되면 될수록 고향의 의미는 더욱 절실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일제 강점기에 발표된 소설 중에서 '고향'을 제목) 또는 제재로 삼은 현진건의 「고향」(《조선일보》, 1921.1.4), 이태준의 「고향」(《동아일보》, 1931.4.21~28), 이기영의 『고향』(《조선일보》, 1933.11.15~1934.9.21), 박화성의 「고향 없는 사람들」(《신동아》, 1936.1), 이근영의 「고향 사람들」(《문장23》, 1941.2)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일제강점기 '고향'을 제재로 한 소설에 대한 연구로는 이재선, 김윤식, 이정숙, 채훈, 윤귀정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의 연구는 대체로 근대문학사의 흐름 속에서 한 작가나 동시대의 작가 작품 속에 등장하는 고향 상실 혹은 뿌리 뽑힌 삶의 황폐성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 있다.

1920년대를 궁핍한 시대와 가난의 생태학으로 규정한 이재선은 일제시대의 궁핍과 파멸을 초래한 실향이 전적으로 위압적인 타의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는 삶의 기반을 상실한 식민지하의 한국인 전체의 초상이라고 언급하였다.²⁾ 1930년대에 궁핍해진 현실로 생활 기반인 농토를 잃고 살 곳을 찾아 유랑하는 가난한 농민의 생활을 논한 것 등은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김윤식은 안수길의 소설 속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하였다. 예컨대,

-
- 1)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고향'을 제목으로 삼은 소설로는 현진건의 「고향」을 비롯하여 1930년대 소설에서 이태준의 「고향」, 한인택의 「고향」, 이기영의 『고향』, 안희남의 「고향」 등 5편이 있다. 이 중에서 한인택의 「고향」과 안희남의 「고향」은 작품의 무게가 가볍고 문학사적 가치와 의미가 약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2) 이재선(1979), 『한국현대소설사』, 흥성사, pp.235~236

실제적인 고향은 일제 식민지로 빼앗긴 고향으로 훼손된 가치가 지배하는 더러운 곳으로, 그리고 거기서 탈출하여 찾아간 간도는 제2의 고향으로서 그곳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³⁾

조남현은 해방 직후 한국소설에서 빈번히 나타났던 '돌아옴'의 모티브가 1920, 30년대의 '떠남'의 모티브를 전제로 한 것임에 착안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만주 이주의 원인을 경제적 궁핍이라는 이유 외에 특히 정치적 불만 세력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이 시기 소설이 이념소설의 지평을 열어 놓았음을 중시하였다.⁴⁾

서경석은 경향소설 중 귀향을 다룬 작품을 중점 분석하여 전향(轉向)의 양상을 보이는 경향소설의 한계와 귀향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경향소설에서 '귀향 모티브'를 수용하여 쓴 작품은 많지는 않지만, 모두 해당 작가의 작품세계의 중심에 놓이는 것들로서 그 작가 뿐 아니라 경향 소설사에서도 의미 있는 것들로 평가하고 있다.⁵⁾

이정숙은 일제시대에 발표되었던 실향소설을 중심으로 그 전개 양상과 실향의 궁극적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실향의 원인은 식민지 농업 정책으로 인한 농촌의 궁핍화와 일제의 산업, 경제적 침탈로 인한 경제적 몰락 그리고 독립운동이나 정치적 불만 세력들의 의식적 떠남 등 정치적 이유를 들고 있다. 광복 때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난 실향은 현실 속에서 고향을 강제로 박탈당하는 생존의 문제로 보았다.⁶⁾

채훈은 강제 개항 이래 광복에 이르는 기간은 일제의 침탈로 인해 우리 나라 농민의 구조적 몰락이 극에 치달았다는 점에서 '고향상실-낙원상실'의 시기로 보고 있다.⁷⁾

윤귀정은 현대사를 식민지 시기, 광복 직후의 시기, 6.25 전쟁 직후의 시기, 본격적인 산업화의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나타난 고향의 의미를 고찰했다.⁸⁾ 여기서 그는 식민지 시기의 고향은 가난과 무지를 극복하기 위한 계몽의 공간 또는 일제의 탄압과 수탈로 인해 잃어버린 공간으로, 광복 직후는 회귀의 공간으로, 6·25 전쟁 직후의 시

3) 김윤식(1986), 『안수길 연구』, 정음사.

4) 조남현(1987), "1920, 30년대 소설과 만주이주 모티브", 한국문학

5) 서경석(1987), "한국경향소설과 '귀향'의 의미", 한국학보 48집, 일지사.

6) 이정숙(1989), 『실향소설연구』, 한샘.

7) 채훈(1991), "1920~1930 소설에 있어서의 낙원상실 모티브", 『문학과 비평』.

8) 윤귀정(1995),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기는 전쟁으로 인해 떠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공간으로, 산업화의 시기는 도시화로 변화되어 가는 이질적인 공간으로 그 의미를 규정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제강점기를 다룬 텍스트들을 대상으로 실향의 원인 추출과 더불어 1920, 30년대의 소설사적 의미와 특징의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이 중에서 윤귀정의 연구는 소설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를 시기별로 유형화하고 있으나 상호텍스트성의 관점에서 고향의 의미와 작가 의식을 살피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3.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발표된 5편의 장·단편 소설을 텍스트로 하여 각 작품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를 상호 텍스트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소설사적 의의를 정리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대상 작품의 형상화 기법과 과정을 소설 구성요소의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고찰하고 나서 이를 통해 드러난 고향의 의미와 유형적 특성을 상호 텍스트성의 관점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다.

우선, 대상작품의 형상화 방법과 과정을 유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플롯과 배경, 인물의 성격과 갈등양상, 시점과 서술, 주제 등을 다층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플롯은 작중인물의 성격창조와 주제의 형상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각 텍스트가 지니고 있는 플롯의 기능작용을 탐구하여 고향의 의미생성에 가담하는 플롯의 기능을 추출하여 유형화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노만 프리드만(Norman Friedman)의 분류⁹⁾에 따라 플롯의 유형을 운명의 플롯(행동, 애상적, 비극적, 징벌, 감상적, 찬탄), 성격의 플롯(성숙, 개선, 시련, 퇴보), 사고의 플롯(교육, 계시, 감정, 환멸) 등으로 구분하여 고향의 의미와 연관지으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소설의 배경은 인물과 사건에 대한 존재 근거를 제공하여 소설의 이야기에 신뢰성을

9) Norman Friedman(1977), *Form and Meaning in Fiction*, Georgia U.P
구인환(1997), 『소설론』, 삼지원, p.218에서 재인용.

부여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소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제를 암시하며, 좀더 직접적으로는 주제를 구체화시키는 역할도 수행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배경의 기능 분석을 통하여 고향의 의미와의 관련성을 찾아보고 그것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배경의 유형은 자연적 배경, 사회적 배경, 심리적 배경, 상황적 배경의 네 가지 틀로 설정하여 활용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작품의 배경은 고향의 의미형성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작중 인물은 세계에 대처하는 능력에 있어서 불완전한 존재로 등장하며 주제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주제와 고향의 의미 형성에 기여하는 인물의 성격적 특성은 지도자적 성격, 범속한 성격, 어리석은 성격¹⁰⁾등으로 분류하여 인물의 성격과 계층에 따른 고향의 인식태도를 확인해 보려고 한다.

모든 소설은 갈등이 수반되며, 그것은 작품의 의미를 드러내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물의 갈등구조를 분석해 봄으로써 고향의 형상화 과정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인물 자신의 갈등, 인물 간의 갈등, 인물과 자연과의 갈등, 인물과 사회구조와의 갈등, 인물과 운명 사이의 갈등 등을 중심으로 고향과 인물의 갈등 구조의 관계를 분석, 고찰하게 될 것이다.

소설 구성의 핵심 원리인 시점은 브룩스(Brooks)와 워렌(Warren)의 이론(1인칭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중심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각 시점이 어떻게 고향의 의미생성에 기여하게 되는지와 시점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서술방법을 찾아내어 작품의 의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주제 분석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설의 주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와 '바람직한 인생이란 어떤 모습인가?'의 범주 속에 내포되어 나타난다.¹¹⁾ 여기서 전자는 인간의 본질이나 본성을 탐구하는 데에 머물고, 후자는 주어진 역사 현장 속에서 주인공의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이나 삶의 조건 등을 고발하고 폭로하면서 낙원

10) 신동욱(1989), "이야기 문학 속의 성격에 관한 한 고찰", 『동방학지』 제63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pp.159~176.

11) 구인환(1982), 『문학개론』, 삼영사, p 174.

의식을 지향하는 이야기가 된다.

이렇듯 이 연구에서는 5편의 '고향'을 제재로 한 소설들이 고향의 의미를 어떻게 주제로 형상화시켜 나가는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드러난 각 작품의 고향의 의미를 상호텍스트성의 관점에서 대비하여 유사성과 차이성을 검토함으로써, 텍스트로 선정한 당대 작가 다섯 명의 고향의식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여전히 텍스트 선정과 연구방법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텍스트 선정에 있어서 필연성보다는 자의성이 더 크게 작용했고, 연구방법 또한 포괄적인 방법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Ⅱ. ‘고향’의 형상화 기법

1. 플롯과 배경

1) 플롯

소설은 작가의 상상적 창조물이면서도 작가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제재를 취해 재창조한 것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작가는 사상이나 생활 감정 즉 작가의식 혹은 주제 의식을 가지고 산재해 있는 소재 중에서 작품이 될 수 있는 제재를 선택하게 된다. 이 제재가 플롯, 시점, 톤, 인물, 배경 등의 요소와 결합함으로써 소설을 구성하고 그것을 문장으로 표현하여 언어 예술로서의 소설 작품이 탄생하게 된다.

플롯은 소재로서의 이야기가 소설로 상승하는 장치이며, 인식의 도구인 동시에 삶의 가치를 표현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소설의 기본적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소설에서 플롯을 문제삼는 이유는 그것이 단지 사건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으로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소설은 물리적으로 연속된 세계에서 일정한 요소를 분별하여 독자적인 분절적 세계로 재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분절의 방식에 따라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플롯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원리이면서도 작가와 독자가 소설 현상에 함께 참여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이러한 플롯의 기능을 로브그리에는 ‘독자와 작가 사이의 묵계’라는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¹²⁾ 즉 작가는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척하고 독자 역시 모두가 다 지어 낸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것이다. 허구적으로 창조해 낸 이야기가 사실성을 떨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소설의 관습과도 무관하지 않다.

노만 프리드만은 플롯의 유형을 운명의 플롯(행동의 플롯, 애상적 플롯, 비극적 플롯,

12) 이재인 편(1998), 『현대소설의 이해』, 문학사상사, p81.

징벌의 플롯, 감상적 플롯, 찬탄의 플롯), 성격의 플롯(성숙의 플롯, 개선의 플롯, 시련의 플롯, 퇴보의 플롯), 사고의 플롯(교육의 플롯, 계시의 플롯, 감정적 플롯, 환멸의 플롯)으로 분류하고 있다.¹³⁾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분류에 따라 각 텍스트의 플롯을 유형화하면서 그 유형적 의미가 고향의 의미 생성에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1) 애상적 플롯 — 현진건의 「고향」

현진건의 「고향」은 「그의 얼굴」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일보》(1921. 1. 4.)에 발표된 소설이다. 현진건은 장·단편소설 속에 당대의 현실을 형상화하여 역사의 증인이 되려 한 작가의식을 지닌 소설가이다. 그는 소설 속에서 조국이 일제로부터 침략 당한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개인과 사회와 민족의 현실을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투철한 민족주의 작가로서의 문학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¹⁴⁾

「고향」은 현진건의 단편 가운데 식민지 상황을 사실적으로 고발, 폭로하면서 지식인과 민중의 화합 가능성을 잘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17개의 의미단락으로 정리하여 요약할 수 있다.

1. 그와 나는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속에서 만난다.
2. 그는 한·중·일의 복장과 3개 언어로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한다.
3. 그는 아무에게나 따뜻한 시선을 받아보려고 눈을 맞추나 피하려고만 한다.
4. 나도 그의 꼴이 미워 시선을 피한다.
5. 나에게 말을 걸어와 내키지 않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다.
6. 그의辛酸스러운 표정에 감동되어 거부감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한다.
7. 그의 신세타령의 실마리가 풀려 나온다
8. 그의 고향은 K군 H란 외딴 동리로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평화로운 농촌이다.

13) 구인환(1997), 『소설론』, 삼지원, p.218.

14) 손진곤(1995), “현진건 소설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p.53.

9. 땅 소유권이 동양척식주식회사 들어가면서 타지로 흩어진다.
10. 17세 봄에 서간도로 이사한다.
11. 그 곳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로 남은 것은 빈주먹이고 아버지가 죽는다.
12. 사 년이 못 되어 어머니도 영양 부족과 심한 노동으로 죽다.
13. 그 후 신의주와 안동현에서 품을 팔다 일본으로 간다.
14. 항수때문에 일본에서 귀국해서 고향을 둘러보고는 벌이와 구경도 할 겸 서울로 가는 길이다.
15. 9년만에 고향에 갔으나 백 여 호가 살던 곳이 흔적도 없다.
16. 그는 고향 읍내에서 혼인 말이 있던 여자와 만났는데 그녀는 유곽에 팔려 갔다가 폐인이 되어 고향에 돌아왔지만 폐허가 된 고향에서 울고 나서 읍내를 돌아다니다 그간 배웠던 일본말 덕택에 일본 집에 머물게 된다.
17. 참혹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다.

1~2는 인물간의 우연한 만남을 공간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설정은 고향을 떠나 실항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당대 현실을 암시한다. 이상한 옷차림은 그가 평탄한 삶을 살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고 있음을 상징한다. 도입액자에 해당한다.

3~6은 상대방들이 취하는 거만하고 음흉한 태도와 대조되는 그의 주책 맞은 태도를 통해 비천함으로 집약되는 그의 존재성을 확인하는 부분이다. 그의 그러한 존재성이 동족에게조차 외면 당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그가 하는 꼴이 싫어 모른 체 하다가 서술자인 내가 그에 대한 관심이 가지게 된다. 그는 경상도 사투리로 말을 하는 사람, 서울길이 초행이어서 서울 사정이 어두운 사람, 반면에 일본의 상황은 알고 있는 사람, 막벌이꾼, 이런 것들이 관찰자인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그에 대한 신변 상황들이다. 그가 고향을 떠나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가는 막벌이꾼이지만 동시에 분명한 방향도 없이 무작정 길을 나선 유랑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서두에서 그의 외양에 대해 가졌던 '나'의 흥미로움이 경멸적 감정으로 드러났다가 다시 감동어린 연민으로 전환되면서 그의 이야기로 전이된다. (반전)'나'는 처음에는 듣

는 입장이다가 점차 등장인물로 바뀌게 된다.

7~15는 그와 나의 대화가 진전되면서 풀어놓는 첫 번째 내부 이야기에 속한다. 그의 신세타령(고향, 고향을 떠나게 된 경위, 그동안 떠돌던 곳)과 고향을 다시 찾아갔으나 황폐화되어 버린 이야기 등을 회상 형식으로 들려준다. 그가 왜 '동양 삼국의 옷을 한 몸에 감'고 주적대었는지, 왜 그토록 비천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그러한 그의 모습은 결코 한 개인의 교양적 자질의 고하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정치적 역량 부족의 문제였음을 인식하게 된다. 즉 민족의 정치적 역량의 부재가 그로 하여금 유랑의 삶을 살게 한 것임을 알게 된다.

본능적인 그리움을 안고 돌아온 고향이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짓혀 놓은 것 같'은 형상으로 그를 맞았으며, 그가 고향을 등지고 떠난 이후 구 년 동안 그의 삶이 파탄 난 만큼이나 그의 고향 역시 그 시간 동안 헐어진 채 폐허화된 모습으로 변화되었음을 들려준다. 과거의 유랑이 고향이라는 구심점을 남겨 놓고, 즉 귀환의 가능성을 남겨 놓고 떠났던 것임에 반해 현재의 유랑은 그러한 구심점조차 상실한 채, 즉 철저히 고향을 상실한 채 떠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16은 두 번째 내부이야기에 해당된다. 그 여자와의 관계, 여자의 환경, 근황까지 들은 대로 말한다. 기억 속에 남아 있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추억, 마지막 남은 꿈까지도 잃게 되었다. 옛 여인과의 만남에 대해 새로운 기대와 호기심을 가졌던 '나'는 차별적으로 반복되는 식민지 시대의 어두움만을 거듭 확인하는 결과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대조적인 탐색을 통해 식민지 시대의 비극성을 더욱 깊이 있게 인식하게 된다.

17은 자신에게 불행을 제공한 근원이 일제임을 암시하는 노래를 부른다. 그가 부른 노래에서 나타난 비참한 사회상은 일제 식민통치를 원인으로 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벗섬이나 나는 전토는 / 신작로가 되고요-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 감옥소로 가고요-
담배대나 떠는 노인은 / 공동묘지 가고요-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 유곽으로 가고요- 15)

15) 현진건(1926), 『조선의 얼굴』, 글벗집, p.514.

신작로, 감옥소, 공동묘지, 유곽과 같은 특정한 장소는 단순한 장소의 이미지가 아니라 식민정책의 지배와 통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공동묘지는 식민정책에 의한 매장제도의 강제적 시행을, 유곽은 가난이 빛은 여성의 상품화 현상의 식민지적 징후를 표징한다.¹⁶⁾ 즉 일제 강점기의 비참한 사회상을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소설의 플롯은 '기차 속에서 만남→그의 신세타령 청취→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농토를 빼앗기고 타지로 이주→서간도에서의 비극적 삶→일본 이주와 향수→귀국과 고향을 둘러봄→폐인된 옛 여인과의 만남→참혹한 삶, 노래로 고발'의 의미망을 이룬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조선의 고향을 빼앗기고 중국과 일본을 떠돌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고향에 돌아왔다가 다시 살 길을 찾아 서울로 떠나는 떠돌이의 삶을 보여주는 플롯을 보여준다

이 작품의 특징은 주인공 '그'와 관찰자 '나'의 대립과 호응에 있다. 작품에서의 플롯의 반전은 소설의 의미를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플롯의 반전은 대부분 시점의 이동을 통해 형상화된다. 곧 관찰자이자 화자인 '나'가 주인공에 대해 무관심하다가 반전으로 관계가 역전되어 '나'는 작중인물로 진입하면서 서로의 관계가 개선된다. 반전은 '나'의 의식의 눈뜸을 통해서 세계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여 주제로 형상화하게 한다.¹⁷⁾

여기에서 그의 고난은 자기 자신의 잘못보다는 사회적인 제도로 인해 초래된 것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애상적 플롯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노만 프리드만에 의하면 애상적 플롯은 자신의 잘못이 없는데 불운을 겪고 있는 공감적인 주인공이 나오는 플롯으로 주인공은 의지가 약하고 사고는 순진하거나 결함이 있는 것이다.

현진건은 이 작품을 통하여 일제의 가혹한 수탈과 농촌의 피폐화 과정, 그리고 고향을 등져야 했던 농민의 참담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으며 지주가 일본인 회사로 바뀌어서 농민의 몰락과 이농이 시작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일제에

16) 이재선(1996), 『한국문학의 원근법』, 민음사, p.450.

17) 현길언(1997), 『소설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나남출판, p.232.

의해서 자행된 농정의 실책을 암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소설은 주인공의 고향상실과 떠돌이 삶이 일제의 침략과 식민통치에서 기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에게 고향은 평화로운 삶의 공간, 돌아가고 싶은 그리움의 공간으로 형상화된다. 그리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모두 극심한 가난과 노동, 질병 등으로 참혹한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됨을 고발함으로써 고향은 평화로운 삶을 보장해주는 현실적인 생존의 공간으로 제시되고 있다.

(2) 환멸의 플롯 — 이태준의 「고향」

이태준의 「고향」은 《동아일보》(1931.4.21~28)에 발표된 소설이다. 이태준은 1930년대 문단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시대 상황과 관련하여 민족 의식을 작품 속에 꾸준히 투영시킨 개성있는 인물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한 기교적인 작가로 평가되고 있다. 자전적 요소가 강한 「고향」은 주인공인 김윤건이 동경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야 비로소 조국의 현실을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15개의 의미단락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밤에 역으로 향하는 차에서 김윤건은 지난 일을 떠올리며 고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고향을 하면서 어렵게 얻은 졸업장이 자랑스럽게 여긴다.
2. 다음 날 아침 차가 멈추었을 때 조선청년을 만난다.
3. 그날 저녁 화관역에서 조선청년을 다시 만난다.
4. 밤에 배에서 조선 형사에게서 조사를 받았으며 조선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눈다.
5. 다음날 아침에 배에서 내리니 조선 형사에게서 일본인 형사로 바뀌어 서울로 가는 차에서 취조를 받는다.
6. 낮에 노동자 일행으로 인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고적과 불안을 느낀다.
7. 밤에 경성역에 도착하여 여관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잔다.

8. 아침에 모교인 W고등보통학교에서 동창생을 만나서 동창들의 근황을 듣는다.
9. A신문사를 찾아가나 취직을 부탁하나 성과는 없었고 B신문사도 마찬가지다.
10. 다음날 아침에 신간회를 찾아갔으나 문이 잠겼고, 모모 잡지사도 성의없게 대한다.
11. W고보로 리창식의 주소를 알려고 간다.
12. 윤건은 파고다 공원에서 영양부족에 걸린 중노인들이 토정비결과 마의성서 따위를 걸쳐놓고 갑자을축을 껴고 있는 사주쟁이, 관상쟁이들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고 울분을 터뜨리다
13. 밤에 여관으로 돌아오니 방에서 내쫓긴다.
14. 다음날 사회운동 이론가인 박철을 만났으나 변절된 모습만을 확인한다.
15. 밤에 길거리에서 은행원 일행과 우연히 만나 요리집으로 동행하는데, 거기서 여러 날 참았던 흥분이 폭발하여 행패를 부리다 결국 관청의 신세가 된다.

1은 사건전개의 방향을 미리 암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고향에 대한 생각, 즉 ‘그는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장에 나가는 것이라 생각하였’을 정도로 밝지 못할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그는 고향을 벗어나 여기저기 옮겨다닌 내력이 드러나 있다. 고단한 생활 속에서 힘을 준 고향(조선)에 가기 위해 고군분투한 결과, 빛나는 대학 졸업장을 받아들이고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여전히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아서 불안해 하다가 고향의 여러 동무들이 반갑게 맞아 주리라는 희망을 가져보기도 한다.

2~13은 구면인 조선 청년을 만나 대화하면서 그의 현실적이고 안일한 삶의 태도에 분노를 터뜨린다. 재차 만나면서 감정은 더욱 격화된다. 배를 탔을 때 조선인 형사의 불심검문, 배에서 만난 조선 노동자가 가난에 찌든 고향으로부터 탈출해서 찾아간 현실조차 궁핍하고 고달픈 생활공간이었다는 이야기, 배에서 내리니 조선 형사에서 일본인 형사로 교체되어 취조 과정의 불쾌감에서 느껴지는 조선의 현실, 배에서 만난 노동자 일행이 앞으로 겪게 될 경제적 궁핍에 대한 걱정, W고등보통학교에서 교장과 만남, 동창 강군의 이야기에서의 흥분, 취직 실패, 동창생 리창식의 감옥살이, 파고다 공원에

서 영양부족에 걸린 사람들이 사주팔자 관상에 몰두하는 모습이 묘사된다. 김윤건은 나라를 잃은 조국의 현실을 절실히 느끼고 지식인들은 조선의 상황과는 달리 현실적이고 안일한 삶의 태도에 분노를 터뜨리기도 하지만, 조선민들의 모습에서 동포애를 느끼기도 한다.

14에서는 여관에서 쫓겨나 아무데서나 밤을 새우고 3차례나 찾아가 만난 박철과의 의견충돌로 결국 뺨을 때리고 나온다.

15에서는 격한 감정으로 밤거리를 돌아다니다 결국 은행원 일행을 우연히 만나 요리점에 가게 되고 거기서 그들의 작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어 행패를 부린다 6년만에 그리던 고향으로 왔건만 일제란 현실 앞에 좌절하고 패배하는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소설의 의미망은 '졸업장을 안고 희망과 긍지를 느끼며 귀국→조선 청년의 만남→귀국행 배에서 조선 노동자들과 대화 나눔→서울행 기차 속에서 일본형사에게 취조 받음→경성역 도착, 잠을 잠→취업 실패, 조선 현상 목격→지식인의 변절 확인→분노로 행패를 부리다 관청에 잡혀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소설은 주인공이 자기 이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화려하게 출발하나 일제라는 거대한 사회구조 앞에 좌절하는 환멸의 플롯으로 형상화된다. 노만 프리드만에 의하면 환멸의 플롯은 공감적 주인공이 자기 이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화려하게 출발은 하나 어떤 손실과 위협과 시련을 겪고 나서 신념을 모두 잃어버리는 플롯이다

결국, 이 소설은 유학에서 돌아온 한 지식인에게 일제에 의해 유린된 조국이 고향의 의미로 환기되는 이야기이다. 곧 주인공에게 고향은 조국 전체로 상징되며 고향으로 환기되는 조국의 현실은 일제 식민통치에 의해 주권을 상실한 채 운명에게 삶을 맡겨야 하는 비극적 공간이 된다. 이렇게 볼 때 고향으로서의 조국은 주권을 빼앗기고 상실의 공간으로 전락함으로써 취업의 희망을 안고 귀국한 주인공에게 고향(조국)은 환멸의 공간으로 형상화된다.

(3) 감상적 플롯 — 이기영의 『고향』

이기영의 『고향』은 《조선일보》(1933.11.15~1934.9.21)에 연재되었던 장편소설이다.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지식인 청년 김회준의 등장과 함께 농민들이 점차 계급적 자각과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에 눈을 뜨고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서로 단합하여 지주세력에 대응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소설 구조를 통해 이기영은 1920년대 농촌의 정황과 농민들 의식의 성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 소설은 식민지 조선의 농촌현실을 총체적인 시각에서 포착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농민소설의 새로운 수준을 보여줌과 동시에 최고의 경향소설로 평가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모두 91개의 의미단락으로 정리하여 요약할 수 있다.

1. 인순이네와 마름 집 안승학의 생활에서 상반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2. 5년 만에 김회준이 고향에 돌아온다.
4. 회준이 청년회 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한다.
5. 원철이와 박성녀는 딸 인순이가 공장으로 들어간 뒤로 딸 걱정이다.
6. 원철이는 작년과는 달리 일이 없어 살기가 힘들다.
7. 막둥이와 인둥이가 방개를 사이에 두고 갈등이 시작된다.
8. 마을 사람들이 춘궁을 맞아 재강을 사러 양조소에 몰린다.
10. 갑숙이가 고향으로 내려오고 모를 심느라 분주하다.
11. 인순이가 휴가차 집으로 오나 갑숙이와는 서먹하다.
12. 안승학의 출세담과 자식들의 생모에 대하여 밝힌다.
13. 갑숙이는 인순이와 놀면서 공장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인순은 공장에서 일하는 데에 서글픔을 느낀다.
14. S청년회원과 엠웬 청년회원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회의가 열리자 갑숙도 참석한다.
15. 야학이 다시 시작되어 회준이가 가르치고 움전이와 방개도 다닌다.

16. 농번기에 박성녀가 분주하고 마름 집 마당에서 괄참지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 한다.
17. 인동이와 방개 사이가 가까워진다.
18. 회준이가 청년회의 일로 회의를 느끼고 집에 돌아와서는 부부싸움을 한다.
19. 김선달과 조침지는 살림이 더욱 어려워지는 이유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편다.
20. 쇠득이 모친과 백룡이 모친사이에 농사일로 싸움이 일어난다.
21. 회준의 이웃에 대한 행동이 고부간의 불편을 가져오고 질투심을 유발한다.
22. 회준은 14세때 조혼을 했고 아버지가 죽고 나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23. 회준이 자신의 신념을 향해 돌진하지 못함을 자책한다.
24. 안승학, 원두막을 짓다.
25. 안갑숙, 권경호에게서 편지를 받다.
26. 권경호의 하숙집에서 경호의 출생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다.
27. 여름방학을 맞아 갑숙이의 동생과 경호가 고향으로 내려온다.
28. 안승학은 자식들, 숙자와 대화를 나누다 가치관이 달라 언쟁을 벌인다.
29. 막동이와 방개가 인동이 때문에 말다툼한다.
30. 갑숙이는 경호와 수풀 밑 강변가에서 만나 그와의 혼전관계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는다.
31. 백룡이네 원두막에서 인동이와 막동이 방개를 사이에 놓고 싸움을 한다.
32. 순경은 딸의 일 때문에 심기가 불편하여 난회를 만나 의논한다.
33. 안승학은 회준이 두레 제의로 세력이 커짐을 불안하여 학삼이를 시켜 반대하게 한다.
34. 장에 가서 음전이네 보증으로 외상으로 물건을 사오고 음전이 어머니는 회준에게 중매를 부탁한다.
35. 안승학이네 밭을 시작으로 두레가 나서고 마을사람들의 마음이 뭉친다.
36. 경호는 일심사에서 머물면서 자기의 출생에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

37. 경호와 갑숙은 일심사에서 만나 후일을 기약하기로 한다.
38. 안승학은 춘학이와 대화를 나누다 경호의 출생에 대해 알게 되자 꺾침지를 찾아가 여러 가지를 물어본다.
39. 안승학은 권상철을 찾아가 경호의 출생에 대해 말하자 권상철은 안승학에게 돈을 준다.
40. 인순이 여러 달만에 품삯을 받고 집에 와서 갑숙이와 회준이를 만난다.
41. 안승학의 꾸중에 갑숙이 서울로 올라간다.
42. 안승학은 딸의 혼처를 정했는데 경호와 관계가 있는 것을 알자 행패를 부린다.
43. 권상철이 안승학의 입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
44. 경호가 서울로 올라가니 그 동안의 일을 말하고 하숙을 옮기도록 한다.
45. 박훈의 집에서 우연히 회준과 갑숙이 만나게 되는데 회준은 갑숙의 제사공장의 취직을 부탁 받는다.
46. 갑숙은 편지만 남기고 가출하고 아버지에게는 편지로 알린다.
47. 갑숙 어머니는 자살 시도를 하고 안승학은 서울로 올라온다.
48. 두레가 성공적으로 끝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한바탕 놀고 음전의 어머니는 다시 중매를 부탁한다.
49. 인동이와 방개가 각각 결혼을 한다
50. 경호는 우연히 인동의 결혼식에 갔다가 여자들 수군거리는 소리에 예감을 느꼈고 권상철 부부가 하는 말을 듣고 친자식이 아님을 알게 된다.
51. 경호는 갑숙의 어머니 충고대로 졸업 때까지 참기로 마음을 정한다.
52. 그동안 동리 일에도 관심이 없었던 안승학이 제책을 생각한다.
53. 안승학이 위자료 5천원 청구에 권상철은 혼인을 제외하다 다룬다.
54. 권상철은 경호에게 사실 확인을 위하여 서울로 간다.
55. 권상철과 안승학은 자기에게 이로운 조건을 내세운다.
56. 원철이 부부는 부잣집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여 좋아하고 동네 사람들도 부러워한다.

57. 음전은 인동에게 야학에 다니도록 한다.
58. 원철이를 포함하는 농사꾼들은 풍년공황에 걱정이 많다.
59. 인동이 점차 의식을 갖게 된다.
60. 타작마당에서 마름은 이익만 챙길려고 하고 인동이네는 빚을 갚고 허탈해 한다.
61. 인순이는 갓 들어온 옥희와 잘 어울리고, 옥희는 제사에서 방직으로 옮긴다.
62. 옥희는 입사한 사무원이 경호임을 알아본다.
63. 인동이는 나무를 하러 가서 방개의 생각을 한다.
64. 경호는 나옥희가 갑숙임을 알고 수소문하여 만나다.
65. 인순이 집에 오니 음전이는 공장 취직을 부탁하고 돌아가다 인동이를 만난다.
66. 경호, 권상철에게 집을 떠날 의사를 밝힌다.
67. 경호의 가출에 대한 소문이 온 동리에 퍼지니 안승학은 사실 확인을 위해 경호를 만나러 간다.
68. 경호는 회준을 만나 의심나는 것을 물어보고 회준은 광침지를 만나 그간의 일을 자세히 듣는다.
69. 신문에서 권경호의 이야기가 대서특필 된다.
70. 방개는 공장에 취직이 되고 음전이는 태기가 있다.
71. 봄 가뭄으로 모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폭풍우가 내려 인동이네의 안방 뒷벽이 무너지나 두레 돈을 거절한다.
72. 소작인들은 수해로 인해 소작료 면제를 요구하기로 결정한다.
73. 학삼이를 제외한 소작인들은 안승학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으나 결과가 미약했다.
74. 김선달 외 몇 명이 지주를 만나기 위해 상경한다.
75. 인동은 공장으로 인순이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온다.
76. 공장의 운동회 날 옥희와 경호는 학교 뒤 언덕배기 수풀 속에서 만나고 경호는 다음날 옥희의 어머니에게 옥희의 편지를 전달하고 돌아온다.
77. 공장에서는 한 직공의 해고로 파업을 한다.
78. 홍수로 인해서 지붕이 무너지면서 그 충격으로 음전은 사산한다.

79. 공장 파업으로 집에 와있는 방개와 인동이 만나서 갑숙에 대해 말한다.
80. 경호는 밤 열두 시에 기숙사 방에서 옥희의 제의로 만나 그간의 오해, 궁극한 점, 답답한 심정, 장래 약속 등을 이야기하다 새벽에 헤어진다.
81. 회준에게 경호가 찾아와 관침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갑숙이가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을 전하고 간다.
82. 인동이 와서 중매결혼에 대한 원망을 한다.
83. 김회준에게 김선달이 와서 소작인들이 벼를 베자고 한다는 말을 전하자 만류해 줄 것을 부탁한다.
84. 소작인들에게 얼마간의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고두머리에게 돈을 부탁하러 갔다가 별 성과 없이 돌아온다.
85. 경호의 안내로 김회준과 안갑숙이 만났는데 갑숙이 돈을 내놓자 마을 사람들에게 분배한다.
86. 갑숙이는 회준이를 만나서는 두 번째 돈을 내놓고 계획을 제시한다.
87. 방개도 인동을 통해서 패물을 팔아서 돈을 내놓는다.
88. 회준 일행은 안승학을 찾아갔으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자 갑숙에 대한 일을 제시하니 오늘밤에 대답해 주겠다고 한다.
89. 안승학은 밤에 학삼이를 시켜 차입서를 보낸다.
90. 안갑숙의 도움으로 소작쟁의가 해결되나 갑숙의 마음이 묘하다.
91. 회준과 옥희의 사랑을 동지적 사랑으로 하자는 제의에 서로 동의하며 내려온다.

1~32는 서두의 배경 설명으로 마름과 소작인 사이의 갈등 암시와 회준이 오년만에 귀향하여 가난한 농민들과 연대하며 함께 행동하는 길을 선택하려는 결의를 굳히게 된다. 김회준의 등장은 마을 사람들의 인습과 의식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왜곡된 사회질서를 바로잡아 갱생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막동이와 방개, 인동의 삼각 관계 갈등과 안갑숙과 경호의 문제가 사건 전개의 시작을 보여준다.

33~40은 김회준이 야학에 이어 두레를 만들어 농민을 각성·규합시킨다. 농민과 노

동자가 하나가 되어 지주, 자본가들과 싸우면서 자신들의 권익을 확보해나가야 함을 상기시키면서 집단적 주체로 거듭나게 한다. 그리고 농민들은 서서히 가난한 현실의 본질을 자각해 나간다. 방학을 맞이한 권경호는 일심사에 머물며 가끔씩 갑숙과 사랑의 만남을 갖는다. 그렇지만 안갑숙의 마음은 괴로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안승학은 경호가 권상철의 자식이 아님을 약점으로 삼아 돈을 받아낸다.

41~73에서는 인동이의 방개의 갈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방개는 기철이와 인동이는 음전이와 혼인을 맺음으로써 또 하나의 갈등이 생기게 된다. 안갑숙은 아버지의 행패로 가출하여 공장에 취직한다. 안승학은 결혼을 조건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생각이나 권상철은 이와 상반된 생각으로 각자의 욕망을 드러낸다. 방개도 결혼생활에 회의를 느껴 고향에 취직할 생각을 갖는다. 소작쟁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는 발판이 된다

74~94에서는 권경호가 권상철에게 집 떠날 의사를 밝혀 가출하고 안승학은 권경호에게 사실을 확인한다. 인동이는 중매결혼에 회의를 표명하고 방개는 소원대로 취직이 된다. 여름에 수해 발생으로 집이 무너지면서 음전은 사산하게 되고 소작인에게는 소작료가 부담이 되어 결국에는 소작료 탕감을 건의하나 거절되자 소작쟁의로 발전한다

95-101은 소작료 싸움에서 얻은 승리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고 결의를 재차 다지는 장면으로 끝난다. 승리하게 된 원인은 한 개인의 윤리문제이다. 안승학이라는 마름의 집안 스캔들(갑숙과 경호의 출생 비밀)에 대한 윤리적 심판에 의해 사건이 해결된다. 지주-소작인의 문제는 경제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 한갓 윤리적인 문제나 체면과 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김희준도 인식하고 있다.

이 소설의 의미망은 '희준의 귀향→청년회 일로 고민→야학→두레 조직→홍수발생→소작료 탕감 요구→거절→소작쟁의→안갑숙의 개인적인 문제로 승리함'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비참한 식민지 농촌에서 패배주의적인 의식에 물들어 있는 농민들을 각성시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보겠다는 일념에서 출발한다. 청년회의 일로 고민

하기도 하지만 야학이나 두레를 통해서 농민들을 계몽시키고 연대적인 가치를 도모해 간다. 우여곡절 끝에 소작쟁의를 승리로 이끌어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잘되는 공감적 주인공을 느끼게 하는 감상적 플롯에 속한다. 노만 프리드만에 의하면 감상적 플롯은 불운의 위협을 이겨내고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잘되는 공감적 주인공을 느끼게 하는 플롯이다. 짧은 안목에서의 우려는 경감되고 거기 대응하는 긴 안목에서 희망은 결국 현실화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효과는 미덕이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소설에서의 고향의 의미는 일제에 의해 시행되는 근대화로 궁핍함이 날로 심각해 가고 있었지만 김희준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힘을 합해 소작쟁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희망을 심어주는 공간으로 사용되었고, 가난의 원인을 모르던 농민들에게 의식을 깨우쳐 주면서 무지에서 깨달음을 주는 인식의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4) 퇴보의 플롯 — 박화성의 「고향 없는 사람들」

박화성의 「고향 없는 사람들」은 《신동아》(1936. 1)에 발표된 소설이다.

박화성은 식민지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작가의식으로 작품활동을 하여 노동자, 농민의 삶과 지식인의 시대적 역할을 주로 그렸다.

이 작품은 일제가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강제 이주정책을 제재로 하고 있다. 홍수와 가뭄이라는 자연적인 재난이 식민지 경제정책이라는 사회적인 모순과 결합하면서 농민들을 극한적인 궁핍상태로 내몬다. 하지만 고향을 떠난 농민들이 강서 농장에 정착하는 과정에는 많은 난관이 놓여있다. 작가 자신도 “가뭄과 홍수로 농토와 집을 잃은 사람들을 탄광이나 농토를 개척한다는 미명하에 아무런 구체적인 대책도 없는 그들(일제)의 간악한 정략에 의한 것이며 이에 희생된 이민들의 절망적인 심정과 절박한 환경을 이 작품으로 담아내었다”¹⁸⁾고 고백한 바 있다.

이 작품의 의미단락은 14개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

18) 박화성, “나와 「조선문단」, 데뷔전후(完)”, 대한일보, 1969, 11, 20.

임성희(1991), “박화성 단편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8에서 재인용

1. 이민의 노래가 불려진다.
2. 이 노래가 불리워지면서 오삼룡 외 아홉 집 가족이 평남 강서 농장으로 떠나게 된다.
3. 강판옥의 집에서 송별회를 연다
4. 학다리 정거장에서 사백 명의 이민이 출발하는 가운데 삼룡이와 강판옥의 작별 인사를 나눈다.
5. 어린아이들은 기차 속이 신기롭지만 어른들은 고향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못 이룬다.
6. 여러 정거장을 걸쳐 무서운 생각에 눌려 불안에 떨다 겨우 도착한다.
7. 강판옥은 삼룡이네가 떠난 지 한 달만에 편지를 받았는데 처음 약속한 것과 많이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다.
8. 오삼룡네는 강서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향으로의 귀향을 원한다.
9. 비를 맞으면서 가뭄 속의 고향을 생각한다.
10. 고향을 잊으려고 눈은 감지만 보이는 것은 학다리별의 눈이다.
11. 강서 농장의 흉년으로 회사측에 귀향을 청원해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같이 간 사람들은 들뜬 기분으로 지낸다.
12. 떠나기 사흘 전날 오삼룡은 강판옥에게서 편지를 받는다.
13. 고향은 가뭄으로 농사를 못 지어 타판으로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강판옥도 나진에 노동자로 떠나게 됨으로 인해 고향을 포기했다고 한다.
14. 고향을 거부하고 새로운 고향을 만들자는 결심을 한다.

1은 앞으로의 사건 전개가 암시되고 있는 부분으로 사람들 사이에 이민의 노래가 유행하는 모습이 서술된다. 자생적으로 불리워진 노래의 노래말에서 민심의 주소와 향방을 알 수 있고 ‘너를 놓고는 내 못 살리라’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고향을 떠남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6에서는 오삼룡 외 아홉 가족이 평남 강서 농장으로 이주하게 되어 쌀을 모아 송별회를 연다 학다리 정거장에서 서로 이별하여 떠났는데 온갖 불안한 생각을 떨다 목적지에 도달한다.

7~11에서는 강판옥이 한 달만에 오삼룡으로부터 편지를 받아보니 처음의 약속과 달라 어려움이 많다는 내용이었다. 오삼룡 일행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보고 회사측에 귀향을 청원한 결과 결국 고향으로 가게 되어 들뜬 기분으로 지낸다.

12~13에서는 떠나기 사흘 전날 오삼룡은 강판옥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가뭄으로 인해 고향에 살 수가 없어 나진으로 떠난다는 내용이었다.

14는 고향을 거부하고 새로운 고향을 만들자는 결심을 하게 된다.

이 소설의 의미망은 '이민의 노래가 유행함→오삼룡 외 아홉 가족이 자연재해로 살기가 힘들어지자 정부의 이주 정책으로 고향을 떠나게 됨→강판옥에게 편지로 강서 농장의 고충을 보내움→오삼룡네는 귀향을 원함→귀향이 허락됨→강판옥에게서 고향을 떠난다는 소식이 옴→귀향 포기'로 요약할 수 있다.

가난에 찌든 고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찾아간 현실조차 궁핍하고 고달픈 생활공간이었다. 삶에 대한 의욕을 좌절당한 불만으로 권태가 쌓여 가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고향과 고향에의 회귀 욕망은, 실향과 떠남의 비극적 양상 속에서 죽지 못해 붙잡은 한 가닥 희망이었다 어둡긴 하지만 희망을 지닌 채 떠난 사람들에게 그 곳이 아무리 척박하고 살기 험악한 곳이라도 궁극에는 갈 곳 즉 고향이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었다.¹⁹⁾

이 소설에서 보면, 농민들이 정부의 강제 이주정책으로 고향보다 나은 공간이라는 기대 속에 이주했지만 그 곳도 고향보다 나은 것이 없는 공간임을 알게 되었다. 고향에는 자연재해까지 겹쳐 고향으로 회귀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이주한 곳에서는 생활하기도 어렵고 고향에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갈등을 보여줌으로써 퇴보의 플롯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은 일제의 식민통치로 인한 경제적 궁핍에 자연재해까지 겹쳐 고향을

19) 이정숙(1989), 『실향소설 연구』, 한샘, p.238.

떠나서 비참한 삶을 영위해 가게 된다. 그러나 고향에 대한 집념과 집착은 강서 농장의 시설 부족과 생활환경의 부적합에서 더욱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강렬한 고향에 의 회귀의지는 고향의 자연재해로 꺾이게 되면서 고향으로부터 다시 한번 버림을 받게 되면서 고향을 잃어버린 공간으로 제시되고 있다.

(5) 애상적 플롯 — 이근영의 「고향 사람들」

이근영의 「고향 사람들」은 <문장 23> (1941. 2.)에 발표되었다. 이근영은 고향에 대해 애착을 갖고 농민의 일상적 삶에 진지하게 접근한 농민소설 작가이다 서울에서 언론계에 몸담으면서 겪었던 체험으로 다수의 도시소설²⁰⁾도 발표한 바 있다. 「고향 사람들」은 식민지하에서 궁핍한 삶을 이어가며 노동자로 전락해가고 결국 생계를 위해 북해도 탄광에 가게 되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모두 17개의 의미단락으로 정리하여 요약할 수 있다.

1. 겨울 가뭄이 계속되다가 눈비가 오다.
2. 허참판네 집 머슴 사랑방에 모여든다.
3. 점쇠가 맨 나중에 온다.
4. 유생원은 목이 잠겨 책을 혼자만 속으로 읽는다.
5. 석만이가 양말을 화로에 쬐어 말리다가 말다툼하는데 평소 미운 감정이 표출된 것이다.
6. 마을에 '신작로'가 생김으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질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감정이 충돌될 때 점쇠가 증채를 들어 잘 풀려나가게 된다.

20) 도시소설은 인물 형상화에 따라 부정적 인물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양상과 사회 현실과 자신 내부의 양심과의 갈등문제, 소외된 도시인들에 대한 동정을 형상화하는 소설을 말한다

「곰송아지」, 『신가정』34/ 「말하는 병어리」, 『조선문학속간』6, 1936/ 「과자상자」, 『신가정』39/ 「탐구의 일일」, 《동아일보》(1940 4 9 ~ 5 7)/ 「제3노예」, 《동아일보》(1938 2 15 ~ 6 26)

- 7 술을 기다리면서 잡다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도 흥년이 닥칠까 두려워한다.
- 8 점쇠가 일본에 퀘짜에 숨어들어 갔다가 들켜 돌아오게 된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데 후회와 안타까움이 더한다
9. 이튿날 점쇠는 김주사와 만나 북해도(北海島) 석탄광 인부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 10 과거에 김주사가 일본에 갔을 때 화선이를 만났으나 점쇠의 실망이 클 것 같아 입을 다물어버린다.
11. 점쇠는 봉갑이를 찾아가서 일본으로 가자고 권유한다.
12. 점쇠는 공사장에서 희망자 4명을 모집한다.
- 13 밤에 봉갑을 만나서 일본에 가기로 결정했다고 대답을 듣는다.
14. 점쇠는 화선의 사진을 잃어버려서 찾는 꿈을 꾸다.
- 15 석만이가 인력거를 공의에게 돌려주고 점쇠의 일행과 함께 돈을 벌러 일본을 가게 되어 관계가 호전된다
- 16 출발하기 전날 밤 면사무소 발기로 송별연을 열고 석만이와 그동안의 섭섭함을 푼다.
- 17 농악을 치기 시작하여 성황당까지 가서 소원을 빈다.

1은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사건 전개에 따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비로 전부 한 자리에 모이게 된다.

2~8에서는 석만이가 머슴 사랑방에서 달가워하지 않는 처지임을 알 수 있는데 그가 인력거를 끌게 되면서 출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연재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수확이 줄면서 오는 생활의 어려움도 따르지만 결국에는 고향이탈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점쇠가 일본으로 간 화선을 못 잊어 퀘짜에 숨어 들어갔다가 들켜 돌아온 이야기는 아직도 화선이에게 향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9~15에서는 점쇠는 김주사가 북해도 탄광인부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자 친구인 봉

갑에게 함께 가자고 말한다. 봉갑이는 결혼한 지 얼마 안되었지만 돈을 벌 욕심에 같이 가게 된다. 이 중에 인력거를 끌던 석만이까지 동참하게 된다. 점쇠는 꿈에 사진을 잃어버리는 꿈을 꾸면서 화선과의 만날 가능성이 희박함을 보여주고 있다

16-17은 송별회에서 진수가 답사하는 내용으로 봐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석만이와의 갈등이 해소된다. 성황당으로 물려가서 제각기 자기 소원을 빌어보나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 소설의 의미망은 '겨울비로 머슴 사랑방에 모두 모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눔→ 북해도 탄광 노동자 모집→점쇠는 봉갑이, 석만이와 함께 노동자로 가게 됨→송별회에서 석만이와의 섭섭한 마음을 해소함→성황당에 가서 소원을 빔'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인물들은 현실 인식부족과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일제의 모집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그들의 품성이 정직하고 소박하며 때로는 융통성이 없을 정도로 고집스럽지만 어떤 상황하에도 지조를 지키고자 하는 끈기와 건강성을 지녔다. 그러나 개인의 일상에까지 침투해 오는 현실의 위협에 변화의 출구를 찾아보려 하지만 현실의 무게에 압도되어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애상적 플롯의 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은 주인공들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제의 식민통치와 무관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궁핍으로 가족과 헤어지면서 일본에 가기로 결심했지만 고향은 따뜻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2) 배경

일반적으로 소설의 배경은 행위가 일어나는 시·공간 및 역사적 시대와 사회 환경을 의미하며, 주로 묘사된 배경을 말한다²¹⁾ 배경은 사건과 행동에 개연성과 필연성을 제공하며, 이야기를 유기적인 의미구조로 형상화하도록 돕는다. 작품의 존재를 극명하게 밝혀주며 인물과 사건이 살아서 움직이는 곳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인물의 심리와

21) 구인환(1996), 『소설론』, 삼지원, p 149

사건의 발전에 사실성을 부여하는 요인이 됨은 물론, 주제를 부각시키고 분위기를 조성하며, 배경 자체가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기까지 한다.

이렇게 볼 때 작품의 배경은 사회적 상황이나 시대 환경을 반영하는 상동구조로서의 의미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배경은 소설의 물리적 시,공간과 정신적 의미공간을 제공한다. 전에서, 그리고 '고향'의 의미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배경은 자연적 배경, 사회적 배경, 심리적 배경, 상황적 배경 네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²²⁾.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배경의 물리적 시간성과 공간성 및 정신적 상황과 의미를 추적하여 고향의 의미 구축에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물리적 배경으로서의 시간은 소설 속에 반영되어 있는 사건이 놓이는 시간을 가리키고, 물리적 배경으로서의 공간은 사건과 행동이 발생하고 전개되는 접점을 뜻한다. 그리고 정신적 배경으로서의 상황이란 소설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특수한 정치체제나 이데올로기의 상황을 지시한다

(1) 빈궁과 수탈의 시공간 — 현진건의 「고향」

현진건의 「고향」에서 물리적 시공간은 1920년대 우리의 삶의 터전이던 농촌이며 정신적 배경으로서의 상황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의해 수탈과 억압이 자행되는 상황이다. 이 소설은 유랑하는 실향민의 비참한 삶의 역정을 통해 우리 민족이 처해 있던 황폐한 농촌의 모습과 궁핍한 실상을 액자 소설의 구성 형식을 통해 고발하는 작품이다. 객관적 현실성이 두드러진 그의 작품들 가운데 당대의 일반 민중, 특히 하층민의 빈궁한 참상을 폭로하고 있는 대표적 작품이다²³⁾

두루마기 격으로 기모노를 들렀고, 그 안에서 옥양목 저고리가 내어 보이며 아랫도리엔 중국식 바지를 입었다 그것은 그네들이 흔히 입은 유지 모양으로 번질

22) 이재인 편(1998), 『현대소설의 이해』, 문학사상사, p.158.
23) 한상무, “현진건의 「고향」”, 이재선 편(1981), 『한국현대소설작품론』, 문장, p.107.

변질한 암갈색 피륙으로 지은 것이다 그리고 발은 감발을 하였는데 쥘신을 신었고, 고무가리로 짚은 머리엔 모자도 쓰지 않았다 우연히 이따금 기묘한 모임을 꾸민 것이다 우리가 자리를 잡은 찻간에는 공교롭게 세 나라 사람이 다 모였으니, 내 옆에는 중국 사람이 기대었다 그의 옆에는 일본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동양 삼국 옷을 한 몸에 감은 보람이 있어 일본말도 곧잘 칠칠대이거니와 중국말에도 그리 서툴지 않은 모양이었다 24)

그가 일본과 중국을 떠돌다 온 우리의 이농민임이 옷을 통해 나타난다. 그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회적 상황 때문이다. 일제의 수탈로 인해 농촌의 궁핍화는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었다 당시 우리 민족은 대부분 농민이었기에 농촌의 궁핍화는 곧 우리 민족 전체의 궁핍화였다. 농민들은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산계획 및 수리조합제도의 강행 과정에서 몰락하게 되었다. 농민의 몰락의 과정은 자작농, 자소작농, 소작농, 화전민, 유이민, 결인화로 이어졌다

농민의 몰락이 식민지의 제도 모순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음 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조선에 대한 일본 식민지 농업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조선 농촌을 일본의 항구적인 식량공급기지로 만드는데 있었지만, 한편으로 일본의 식민지 통치정책은 조선에서의 중소지주, 자작농, 자소작농 등 농촌 중간층의 성장을 억제하고 농촌사회를 일본인 및 조선인 대지주와 그 소작인으로 양분하여 농촌에서의 민족 부르조아적 계층의 성장을 저지함으로써 그 식민지 농업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은 농촌중간층을 몰락시켜 소작농으로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25)

소작인들은 각종 세금으로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박탈당할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은 일제에 아부하는 상부층과 가난에 짓눌리는 하층민으로 양분되는 사회적 상황을 낳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24) 현진건(1926), 『조선의 얼굴』, p.508.

25) 강만길(1987), 『일제시대 빈민생활사 연구』, 창작사, p.23.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따른 동리였다. 한 백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싯집 땅을 부치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가 동양척식 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직접으로 회사에 소작료를 바치게 되었으면 그래도 나오려면 소위 중간 소작인이란 것이 생겨나서 저는 손에 흙 한 번 만져 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지주 행세를 하게 되었다 동척에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료인에게 굶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이 3할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종이 염불하듯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남부여대하고 타처로 유리하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진해 갔다.²⁶⁾

평화롭게 농촌에서 살다가 동양척식주식회사 즉 일제가 들어오면서 신분이 자작농에서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급기야 소작자리마저 놓쳐 고향에 더 이상 살기 어려워 떠날 수밖에 없었다 조상 대대로 살다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다 극달한 일제의 식민통치하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는 것은 당대인들에게는 최대의 삶의 목표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배경에서 인간답게 사는 일은 불가능하며 더구나 하층민의 삶은 절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향을 버리고 유랑할 수밖에 없고, 고향은 참혹한 수탈의 장으로 변모한다.

일제의 식민지 수탈정책으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층은 역시 농민층이다. 농민들에게 삶의 터전의 상실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고향을 떠나게 된다 고향을 떠나 찾아 간 타향에서도 험벗긴 마찬가지였다. 그곳에서 부모의 죽음을 당한 뒤 외로움과 고향의 그리움을 참다못해 다시 귀향을 하게 되나 찾아간 고향은 폐허가 되어 있었다. 그들에게 고향을 빼앗기고 부모까지 잃어야 하였던 정황은 바로 현실적인 고향과 원초적인 모태의 고향까지 상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소설의 배경은 사회적 배경으로 일제 식민지정책으로 농토의 상실, 고향

26) 현진건, 전계서, p.511

의 상실, 조국의 상실로 이어져 유랑민으로 전락하여 비참한 삶을 영위해나가게 되는 것이므로 '사회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배경이란 통시적인 시대성이라든지 공시적인 사회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설정된 배경이다.

(2) 이상 상실의 관념 공간 —이태준의 「고향」

이태준의 「고향」의 물리적 시공간은 1930년대 조선이다. 정신적 배경으로서의 상황은 일제의 차별정책으로 인해 취업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자 식민지적 요소와 친일적으로 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현실에 절망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이 소설의 물리적 공간 배경은 조선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가 나가는 강원도 철원이었으나 개화당의 한 사람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밤을 타서 집에 들어와 처자를 이끌고 망명의 길을 떠나던 때는 윤건이 겨우 네 살 되던 이른 봄이었다.

그 후 윤건은 아라사 땅인 '해수해'에 가서 이 년 동안 그곳에서 아버지를 잃고 다시 홀어머니를 따라 조선땅인 함경북도 '배기미(梨津)'라는 곳에 와서 사 년 동안 어머니를 마저 잃고 혈혈단신으로 원산을 나와서 삼 년 동안, 평양으로 가서 일 년 동안, 서울서 오 년 동안, 동경서 육 년 동안, 이것이 김윤건이가 오늘까지 한 때씩 정들이고 살아온 인연 있는 고장들이었었다. 그리고 보니 윤건에게는 일정하게 그리운 고향이랄 것이 없었다 (중략)

그러나 그는 이 말 끝에 연달아 「조선땅이 아니다」라는 말은 해 본 적이 없었다²⁷⁾

김윤건은 어릴 때부터 여러 곳을 떠돌아 그리운 고향을 달리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항상 마음 속에 용기를 내면서 살아갈 힘이 되어준 곳은 조선이었다. 이곳은 꿈과 동경의 대상이며 동시에 구체적 현실이 아닌 기억 속에 새겨진 관념적 공간이다. 따라서 그가 조선에 돌아온 후 참담한 현실에 분노하고 흥분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

27) 이태준(1988), 『이태준 전집 3-중단편』, 깊은샘, p9

서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지식인으로 성장한 그에게 조선이라는 곳은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이미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형식의 교묘한 진행에 의해 지식인의 실업홍수라는 상황이 나타났다. 작품에서는, “식민지 시대라는 조국 상실 상황하에서도 민족적인 모순이 특수하게 심한 때였다”라고 하여 1930년대의 모순적 사회상황을 진단했다. 일제가 우리 민족을 회유할 목적으로 문화정책을 표방하게 되면서, 우리 민족은 일제의 정책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김운건은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타협하여 살아가는 식민지 지식인에 대해 절망하고 있다. 고향이라고 돌아온 조선이 따뜻한 인정이 나 희망이라곤 찾아보지 못하고 민중들은 헐벗고 지식인들은 자기의 출세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삭막한 곳으로 형상화했다.

(3) 꿈의 실현 공간 —이기영의 『고향』

이기영의 『고향』의 물리적 공간은 천안으로 개화와 암흑의 이중성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식민지 자본주의화 과정의 한 전형적인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소설의 물리적 시간 배경은 1920년대²⁸⁾로 설정되어 있다. 읍내의 번창과 인근 농촌지역의 궁핍화, 이러한 변화를 야기한 것은 철도의 부설과 제사공장 신축 등으로 대표되는 근대적 문물제도의 도입이었다.

오 년 동안에 고향은 놀랄 만큼 변화였다 정거장 뒤로는 읍내로 연하여서 큰 시가를 이루었다 전등, 전화가 가설되었다

C사철(私鐵)은 윈터 앞들을 가로 뚫고 나갔다. 전선이 거미줄처럼 서로 얽히고 그 좌우로는 기와집이 즐비하게 늘어섰다

읍내 앞 큰내에는 굉장하게 제방을 쌓았다. 상리(L.甲) 안골에서 내리지르는 물과 봉화재 끝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정거장을 휘돌아서 윈터 앞들을 뚫고 흐르다

28) 김홍식(1991), “이기영소설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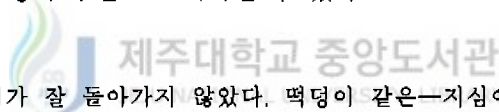
논자에 따라서는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1930년대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김홍식의 실증적 자료에 의한 비교분석이 옳다고 보아 1920년대 후반(1925~26)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본다

가 읍내 앞 -정남쪽으로 와서는 한데 합쳐서 큰내를 이루었다. 세갈래가 진 물목은 웅덩이처럼 넓게 패었다.

이 물목은 강물의 어귀와 같이 여울이 졌다. 그래서 홍수가 질 때에는 물목이 벽차서 부근의 전답은 물론이요, 읍내 앞 장거리까지 침수가 되었다. 그런데 거기를 굉장하게 방축을 쌓아 올리고 양쪽으로는 신작로의 가로수와 같이 '사구라'와 버드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정자를 새로 지었다. 그러나 변한 것은 그뿐만 아니었다. 상리로 올라가는 넓은 뽕나무 밭-개울 옆으로는 난데없는 제사공장이 높은 담을 두르고 굉장히 선 것이었다. 양회 굴뚝에서는 검은 연기가 밤낮으로 쏟아져 나왔다.²⁹⁾

시대의 흐름으로 소작인들의 생활과 의식이 달라지고 특히 철도의 개통과 제사공장의 신축은 사건과 갈등을 구성하는 축으로 작용한다.³⁰⁾ 읍내는 '신개지'로서 날로 발전하였고 동척 농장까지 있어 인근 농촌의 몰락은 더 가속화되었다.

이 소설의 물리적 공간은 천안의 원터 마을로 식민지 자본주의의 본질과 그 구체상을 함께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처음에는 호미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떡덩이 같은—지심이 잔뜩 낀 흙덩이를 잡아 파내서 옆지으며 벼포기 사이로 기어 나가기란 여간 힘이 들지 않는다. 장일은 좌우로 얼굴을 스쳐서 까딱하면 눈을 찌르기 쉬운데 등어리에서는 불별이 내리쬐인다. 밭 밑에는 뜨거운 물이 부글부글 끓는다.

그러는 대로 숨이 콕콕 막히며 얼굴에서는 땀방울이 철철 흐른다. 내 살을 꼬집어서 남의 아픈 사정을 알겠다고 자기가 직접으로 육체적 노동의 고동을 당하고 보니 그전에 놀고 먹던 허물이 뉘우쳐진다.³¹⁾

이 작품에 재현된 공간적 배경인 농촌은 전원적인 목가풍의 농촌이 아니며, 또한 극도의 궁핍 속에서 헤어날 길 없는 절망적인 농촌도 아니다. 자본주의화가 진행되면서 궁핍이 가속화되는 한편, 그 현실의 모순을 타개하고자 하는 새로운 힘이 그 속에서

29) 이기영(1995), 『고향』, 문학사상사, p.45

30) 천안에는 1900년대에 경부철도가 개통되었고 제사공장 신축은 1910년대 이루어짐. 이상경(1994), 『시대와 문학』, 풀빛, p.67.

31) 이기영, 전거서, p.265

성장하고 있는 역동적인 공간이다 이 공간은 도시와 농촌과의 관계, 그리고 식민지 자본주의하의 농촌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지리적 특성까지도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그는 지금도 울화가 치받쳤다. 모는 다 심었지만 밀보리도 베야 하고 지심할 일, 방아찹을 일, 빨래할 일, 이일 저일 한꺼번에 덩쳐 누르는데 영감과 인동이는 날마다 품앗이를 다니고 품팔이 다니기에 골몰하였다. 누구 하나 거둬 주는 사람이 없고 그렇다고 한 몸에 두 지계를 질 수도 없건마는 어린아이는 새끼에 맨 들 멩이처럼 매달린다. 이런 때에 인순이나 집에 있었으면 작히나 신역이 편할 것이냐?고 32)

「고향」에서의 배경 설정은 단순한 자연 환경으로서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어두운 현실과 관련된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도 파악해야 한다. 거기에는 작가가 의도한 상징 세계만이 아니라 농촌에서 성장한 작가의 잠재의식에서 표현된 농촌의 정경이 실감나게 드러난다. 그 농촌은 싱그러운 흙 냄새를 풍기나 그곳은 고난의 현실이다. 그러나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농민들이 살아온 우리의 농촌은 특정 시대와 관계없이 극복하여야 할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공간이다. 이 농촌 환경은 생존의 문제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난의 현장이다.

이기영은 극복의 대상으로 농촌의 문제, 즉 식민지 자본주의가 팽배하던 일제 강점기의 우리 농촌을 설정하였다. 특히 지주와 마름으로부터 수탈 당하던 농민들의 빈곤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그러나 작가가 의도적으로 제시한 문제보다는 무의식적으로 표출된 농민의 삶의 현상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것이 독자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고향의 참모습이다. 이 작품은 이념 투쟁보다는 고향 사람들의 땀과 흙 냄새에 대한 정서적 향수를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하늘은 한빛으로 검은데 서쪽 만리재 고개에 걸쳐 있는 조각달은 구름이 가렸는지 보이지 않고 웅장한 봉화재 연봉의 산날맹이가 어둠 가운데 의미하게 윤곽

32) 상계서, p.144

이 나타나면서 동쪽 하늘빛이 희끄무레하게 걸히기 시작한다

검은 장막이 한꺼풀 벗기어지고 희미한 회색 구름이 하늘 한구석에서 점점 커지면서 장차 오는 광명을 예고(豫告)하는 것 같다.³³⁾

이것은 자연적 배경으로 미래의 밝은 전망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고향이 단지 일제의 식민 정책으로 어둠만 깔린 곳이 아닌, 노력 여하에 따라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곳임을 보여주고 있다. 김회준이 중심부가 되어 동분서주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으며 지지해주는 농민들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민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주의를 내세울 때 실망도 많이 했지만 승리로 이끈 소작쟁의는 용기와 힘이 되는 큰 계기가 된다

고향은 이향(離鄉)의 서글픔, 자살, 일본으로 노동을 하러 간 사람 등 많은 아픔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두레를 통해서 마음을 하나로 합치고 김회준을 도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서로를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여유는 아직 남아있다. 농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일에는 과감하게 힘을 합쳐 추진하여 나갈 수 있는 희망을 가져 볼 만한 공간으로 인식된다.



(4) 빼앗긴 삶의 공간 —박화성의 「고향 없는 사람들」

박화성의 「고향 없는 사람들」의 물리적 시공간은 1930년대의 농촌이며 정신적 배경으로서의 상황은 자연재해로 농토와 집을 잃은 사람들을 탄광이나 농토를 개척한다는 미명하에 먼 타향에 강제로 이주시키는 간악한 정략이 자행되는 때로 고향 이탈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희생된 이민들의 절박한 심정과 절박한 환경을 고발하고 있다. 이 소설의 물리적 공간 배경은 농촌으로 설정되어 있다.

작년 흉수 때문에 농사라고는 쌀알 몇 입밖에 건져 보지 못한 각 면 각 농리 일백 호의 가족이 독차(전용 기차)를 타고 일제히 강서로 떠난다는 삼월 이십이일

33) 상계서, pp 588~589

이 가깝게 닥쳐올수록 이 노래는 동네 사람들의 입에서 더 자주, 그리고 더 익숙하게 불려졌다

저번 편지에도 여기 소식을 말했거니와 그 후로 오늘까지 비 한번 아니와서 모판은 말러지고 겨우 이종했던 나락(벼)들도 다 죽고 말았다네 우리 고향의 보배인 학다리 그 큰 들은 이종도 못해보고 벌건채로 그대로 자빠져 있네.

(중략)

작년 흉수 때보다 몇백 곱이나 인심이 흉흉하고 온갖 병이 다 돌아다니네 그래서 고향을 내버리고 타관으로 떠나가려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 간다네 34)

식민지 정책에 자연재해까지 겹쳐 고향은 그야말로 폐허 상태다. 고향을 떠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진건의 「고향」과 비슷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시대에 빈번했던 실항의 가장 큰 피해자는 농민이었다. 토지조사에서 경작권을 박탈당한 다수의 농민들은 궁핍에 몰렸다. 또한 미곡 증산으로 쌀 수탈이 강화되어 이종으로 곤경에 처하여 결국 고향을 벗어나게 된다 더욱이 이 작품에서는 일제의 수탈 정책에다 자연재해까지 겹쳐 이주정책에 맞불려 떠나게 되었다.

이 소설의 물리적 시간 배경은 1930년대로 설정되어 있다. 자연재해로 인해 집과 농토를 잃은 사람들을 농토를 개척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이주정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주해 간 그 곳도 살기 힘들어 떠난 고향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바다를 막고 원을 쳐서 눈을 이룬 이 농장은 불품이야 학다리만큼 넓고 크지마는 해기(海氣)나고 간수가 피어서 파종을 두 번이야 했건만 반의 반도 못 건졌고 이종도 몇 번씩 했건만 뿌리째 간물에 녹아져 버렸다 35)

농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으려고 해봐도 척박한 간척지에는 어쩔 도리가 없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주시켜 인간 이하의 삶을 살도록 강요하는 일제의 간악한

34) 박화성(1977), 『휴화산』, 창작과비평사, p.486.

35) 상계서, p.484.

정책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이주민들의 간절한 애원으로 귀향 허가가 나왔으나 고향의 자연재해로 그곳에 그냥 주저앉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고향에서의 생활이 힘들고 절망스러워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이라면 그래도 다행이겠지만 여기에서의 고향은 자연재해로 인해 다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이 소설의 배경은 자연적, 사회적 배경으로 자연재해와 이주정책으로 고향은 빼앗긴 삶의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5) 인정이 남아있는 공간 —이근영의 「고향」

이근영의 「고향 사람들」의 물리적 시공간은 1940년대의 농촌으로 식민지하에서 궁핍한 삶을 이어가며 노동자로 전락해가고 결국에는 생계를 위해 북해도 탄광에 가게 되는 것이다. 극도로 어려워진 사회현실이 농민들의 삶을 파편화시키고 결국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마을의 여러 인물의 일상적 생활상과 분해되어 가는 농촌의 모습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여기서 뼈빠지게 일하구, 하루 잘 벌어야 일 원 이십 전이 아난가 거기 가면 못 벌어도 이 원 이상은 벌 수 있고, 또 남서부터 백 리 밖을 못 가본 우리가 공짜로 내지 구경할 수 있고, 또 그뿐인가. 이 년만 지나면 돌아오는 길에, 대판이나 동경에서 슬쩍 내리면 누가 아나? 뒤흔어져 가지고 일터만 잘 잡으면 하루 오 원도 벌구 십 원도 벌구 이 말은 아무보구두 하지 말게. 이렇게라도 허야 우리도 한 세상 불똥말똥 허잖겠는가 그러고 말여, 봉갑이도 간다구 히엌으님께 자네 들만 가면 북해도 가서도 풍장을 치구 심심할 것 없이 지낼 수 있단 말일세. 폐일언 허구 꼭 가세, 김주사 어른이 우릴 생각허구 권한는 게지 괜시리 가라겠는가, 이 사람들아”³⁶⁾

조선에서 일해 봐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만큼 어렵지만 일본에 가면 벌이가 좋다는 소문이 나 은근히 일본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였다. 이런 분위기가

36) 이근영(1943), 『고향 사람들』, 명창서관, p 131

탄광노동자 모집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생원의 여덟 마지기 소작논이 작년에 말짱하게 타죽은 것을 모두 아는지
라 그의 이런 말소리가 이상히도 여러 사람의 뱃속을 울리었다

“그저 올에는 꼭 풍년이 들어야지 젠-장”

봉갑의 이 말소리가 그대로 가라앉는 것같이 방 속은 갑자기 침통해졌다. 그
들은 작년 흉년에 놀란 가슴이 아직도 안정되지 않았다. 누가 연사(衍事) 이야기
만 내면 죽은 자식 말을 내는 것 같아서 콧등과 가슴이 찌르르 울리었다. 다시 흉
년을 만날까 보아 전율을 느끼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³⁷⁾

공간적 배경이 농촌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자연재해(흉년)가 식민지 통치 정책과 더
불어 생활의 궁핍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요인이 일본으
로 탄광노동자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동차 길이 난대여 그대 우리집 주인 아들은 곰개다가 땅을 산다구 오를 갔지.”

점수가 큰 것이나 알아 가지고 온 것처럼 목을 가다듬은 다음 있게 말을 하였다

“아 그리어? 그것 참 미상을 편리하게 되었네그려”

석만이가 누운 채로 반갑게 응수를 한다

“뭣이 어찌구 어찌어? 너는 행길 나면 인력거품을 팔아서 네조하겠지 만(중단
말)우린 큰 일이다 큰일이여 인제 화물 자동차가 부리나케 들락거려 일년 두구
우리 등으로 져냈던 솟짐을 몇 차로 족쳐 널테니 등짐 품팔이로 못 히어 먹게
됐어”

좌중에서 나이 많기로 유생원 다음가는 홍생원이 빨끈해 가지고 석만의 말을
놀려 버린다

“홍, 자네 신작로 나면 자네 인력거가 뽐낼 줄 아는가 지랄두 틀렸어. 누가 자
동차 타고 댕기지 다 찌그러진 자네 인력거를 탈 성부른가.”

갑봉이가 또 깃달고 나서 석만이를 편잔 준다³⁸⁾

사회적 배경이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들은 근대제도(신작로)의 도입

37) 상계서, p121

38) 상계서, p119

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며, 결국 일본으로 가게 된다. 이것이 이들이 가족과의 이별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겨울 내내 눈 한 잎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고, 강추위만 계속하다가, 며칠 전 눈이 한 자 가량이나 쌓이게 되고 바로 비가 이틀 동안이나 주룩주룩 퍼부었다. 그러잖아도 병자년 흉년보다 더 지독한 해를 겪은 그들은, 눈만 뜨면 하늘을 바라보고 마음 졸이는 것이 그날 그날의 일처럼 되었다. 이렇게 초조한 그들이 눈과 비를 흠뻑 받았으니 집마다 경사나 치른 듯이 웃음결이 떠올랐다. 눈 쌓인 위에 비가 와서 길이란 길은 발목까지 푹푹 빠지건만 사람들은 밖에 나오는 것이 하늘에 대한 인사나 되듯이 푹푹마다 사람으로 봄비였다.³⁹⁾

계절적 배경은 겨울인데 이는 겨울의 상징인 조락, 퇴락, 이별, 좌절, 도주, 잠, 죽음, 등과 관련지을 때 일제 식민치하의 암울했던 시대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⁴⁰⁾ 겨울이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여건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때 이 소설에서의 겨울은 살얼음판 같던 당시의 시대상황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일제하의 암울했던 시대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려 한 작가의식 때문이라 하겠다.

북해도 탄광의 노동자로 떠날 수밖에 없는 암울했던 시기였지만 고향은 인심과 순박함이 있는 곳이다. 자연적 배경은 객관적 현실을 나타내어 비록 어둡지만 마을 사람들의 여러 소박한 삶의 모습들이 따뜻한 인심이 다가오게 된다. 생활이 어렵기는 누구나 마찬가지였지만 접수는 생활의 어려움보다는 사랑을 찾아 떠난다. 석만이는 지금 당장 보다는 앞날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고향을 떠나는 것으로 보아 이제까지 서술했던 고향 이탈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강요된 절박함 속에서도 아직 희망과 인정이 있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다.

39) 상계서, p116

40) 이재선(1990), 『우리 문학은 어디서 왔는가』, 소설문학사, p215

2. 인물의 성격과 갈등구조

1) 인물의 성격과 인간상

인물은 이야기의 내용과 주제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보네트(Arnold Bonett)는 "훌륭한 소설의 근본은 성격을 창조하는 일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기술한 바 있다. 잘 짜여진 소설에서 사건이란 인물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들이 논리적으로 전개된 결과에 불과하다.

이 연구에서 인물의 성격을 중요시하는 것은 고향상실, 고향의 황폐화, 이향 등으로 이어지는 당대 현실에 대한 작중인물들의 인식과 행동양식에 주목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설 속의 각각의 인물들은 당대의 현실인식과 삶의 욕망을 표상하고 암시하는 존재들이라는 점에서 고향의식을 보여주는 대변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물은 그 소설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성격을 가지고 나타난다. 성격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특질을 말한다. 여기서 특질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특질, 심리적 특질, 행동과 태도에서 보이는 특질을 말하며, 이러한 특질은 개인의 통일된 특징으로서 어느 정도의 지속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을 구성하는 제요소들은 타고난 기질과 살고있는 문화적 환경과도 깊은 연관을 지닌다.⁴¹⁾

위의 견해에 의하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질적인 성격을 가지며 이 성격은 타고난 기질과 문화적 환경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인물의 유형을 구분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분류해야 한다.

프라이는 그의 논문에서 작품 속의 인물을 주인공의 행동 능력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견해⁴²⁾를 밝힌 바 있으며, 신동욱은 이에 근거해서 역사적 단계에서 보이는

41) 신동욱(1984), "인물의 유형", 『최신 문학개설』, 정음출판사, p.82.

42) Northrop Frye(1982), 『비평의 해부』, 임철규 역, 한길사, 1982, pp 49~53

성격의 의미를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⁴³⁾ 여기에서는 이 유형 분류를 수용하여 '지도자적 성격, 범속한 성격, 어리석은 성격' 등으로 해당하는 작품을 분석하기로 한다. 지도자적 성격은 다수를 이끌어나가며 개인적인 욕심을 희생하는 특성을 갖춘 인물이다. 범속한 성격은 평범한 사람의 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인정이 많으며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어리석은 성격은 악랄하고 탐욕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주변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성격 유형에 따라 고향에 대한 인식과 행동 양식이 결정된다 그러면 각 작품의 주요인물들이 갖는 성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범속한 성격의 인간상 —현진건의 「고향」

이 소설에는 '나'와 '그'가 작중인물로 등장한다. 나는 우연히 기차 속에서 만난 그의 말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된다.

① 〈그〉

그는 활달한 성격을 지녔으나 얼굴에는 고생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얼굴은 그의 개인적인 얼굴이 아니라 당시의 '조선의 얼굴'이었다 그는 고향에서 살기가 어려워 간도 및 일본으로 유랑한다. 힘들게 살아오면서도 고향을 잊을 수 없어 찾아오나 폐허가 된 것을 본다. 더욱 허탈한 심정이 된 것은 아내가 될 뻔한 여자와의 상봉이었다 그녀도 또한 일제에 의해 폐인이 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그는 당시 우리 농민의 전형적인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 이는 일제에 의해 삶의 터전이 철저히 파괴되어 농민들은 유랑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그가 부르는 민요를 통하여 식민지 당국을 비판하는 데 이는 작가 의식의 한 반영으로 볼 수 있다. 바른 소리하는 사람은 감옥소로 가고, 얼굴 예쁜 여자는 유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식민지 상황이지만 끈질기게 견뎌나가는 농민의 모습을 보여준다.

43) 신봉옥, "이야기 문학 속의 성격에 관한 한 고찰"; 안상문, 「고향」과 「두만강」에 관한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p 32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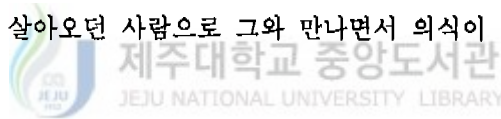
① 신화적 성격, ② 영웅적 성격, ③ 지도자적 성격, ④ 보통 사람의 욕망과 범속한 성격, ⑤ 어긋남의 인식과 어리석은 성격.

② <나>

나는 지식인으로 세상 물정을 모르고 지내다가 그를 만나면서 의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 '그'와 '나'는 우리로 바뀌어진다. 음산하고 비참한 그의 과거는 그 개인만의 과거가 아니라 '조선의 얼굴'로 인식하게 되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상황론에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던 나를 성찰하게 된다. 즉 '그'를 통해 조국의 현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소설은 범속한 성격의 인간상을 통해 고향의 의미를 보여준다. 그는 농민으로서 범속한 성격의 소유자로 남처럼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어 떠났다. 이곳 저곳을 떠돌다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으로 고향을 다시 찾았으나 고향이 폐허로 가슴에 비통한 심정을 안고 이항하는 설움을 겪게 된다.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만한 능력이 없어 고향을 두 번이나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로,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면서 살길을 찾아 떠나는 것뿐이었다.

'나'라는 지식인도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조국현실에 둔감한 채 사회개혁의지보다는 안일하게 세상을 살아오던 사람으로 그와 만나면서 의식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 다혈질적인 지도자적 인간상 —이태준의 「고향」

이 소설에서는 스파이질 하던 동료인 영어교사, 사회운동 이론가, 은행원의 행적들을 대비시켜 김윤건의 생각과 행동을 돋보이게 하는 역설적인 인물창조방법을 쓰고 있다. 주동 인물로는 김윤건이며 반동 인물로는 동료, 사회운동 이론가, 은행원 등이다.

① <김윤건>

마음의 고향없어도 자신의 삶을 잘 가꾼 의지의 지식인이다. 자긍심과 자존심도 강한 편으로 귀향 도중 만난 일본 유학생에게서 왜곡된 민족주의의 논리를 들으며 개인의 안위와 사고방식에 울분을 터뜨린다. 거기다가 수시로 불심 검문하는 형사들을 보며 분노한다. 이로 미루어 현실 비판의식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⁴⁴⁾

배 안에서 만난 노동자의 비참한 모습에서 현실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조선의 실정에는 그리 밝은 편은 아니었다. 조선으로 돌아온 후 시대적 아픔을 뒤로하고 속물화되어 가는 지식인들의 병폐를 보고 울분을 터뜨리다 '관청'신세를 지게 된다 즉 김윤건은 소박한 의미의 지사적 열정을 가진 인텔리로 형상화된다. 그러나 그는 사리를 따져 행동하는 지식인이라기보다는 민족의식이나 정의감에 '불끈하는 정열'을 가진 인물이다 지식인으로서 당당히 지도자로 역할을 할 처지이나 자신의 이상이나 현실의 괴리 앞에서 쉽게 갈등하거나 좌절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이 인물은 다혈질적인 지도자적 인간상을 통해서 당대 지식인의 조국 (고향) 상실의 현실 인식 문제와 지식인으로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3) 다양한 인간군상들 — 이기영의 『고향』

이 소설에서 김희준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안송학, 안갑숙, 원철이, 박성녀, 인동이, 인순이, 방개, 조침지, 김선달 등의 개성적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들의 소설 내 비중은 김희준 못지 않다 이 소설을 두고 '파노라마식' 구성이라 하는 것도 이런 주인공급 인물들이 다수 등장하고 그들과 관련된 삽화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⁴⁵⁾

주변 인물을 잘 묘사해 낸 점에서 이 작품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김희준, 안송학, 안갑숙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김희준과 안갑숙은 주동인물로, 안송학은 반동인물로 설정하여 당시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나타내었다.

① 지도자 성격의 인간상 - 김희준

김희준은 몰락한 중간층(신분적으로는 중인, 경제적으로는 중농이며 재주 경영)의 자식으로 이제는 소작농으로 떨어진, 동경 유학생 출신의 지식인이다.

희준이는 이런 것에는 도모지 상관도 없는 사람처럼 유쾌한 기분으로 마을에 들어왔다. 모친과 동리 사람은 그의 이런 기분을 이상히 여겼다 혹시 그는 일부

44) 장영우, "이태준론", 홍기삼·김시태 편(1991), 『해금문학론』, 미리내, p234

45) 이주형(1995), 『한국근대소설연구』, 창작과 비평사, p. 120.

러 어리손을 치느라고 이런 기분을 강박함이나 아닐까? 그들은 회준의 심정을 참으로 알 수 없었다. 사실 그때 회준이는 진심으로 유쾌하였다. 그것은 오래간만에 고향에 돌아오는 기쁨보다도 그동안의 변천은 어떤지 형용하지 못할 그런 쾌감을 자아냈다 46)

김회준이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는 모습이다. 남들은 좋은 직업을 얻거나 군수나 판사를 할 수 있으리라 여겼지만, 그저 유쾌한 기분만 가지고 돌아오는 모습이다 세계에 뒤떨어진 조선 농촌의 현실을 하루라도 빨리 바꾸기를 바라는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진 그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욕망이 무엇인가는 쉽게 알 수 있다 그의 욕망은 고향에서 이상과 희망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작년에 지금 떠난 저 차를 타고 왔을 때 유쾌한 기분과 팔딱이던 기상은 지금도 기억에 떠오른다 그런데 그것은 불과 사흘이 못 가서 없어지지 않았던가

그는 그때 동경을 떠나 올 때 차안에서부터 여러 가지 생각에 얽혀있었다. 그는 실로 고향에 돌아와서 할 일을 궁리해 보았던 것이다. 그의 이런 포부는 현해탄을 건너서 부산을 접어들면서부터 더 크게 하였다.47)

그러나 이런 미래를 향한 정열적 태도와 기쁨은 당대 현실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의해 몹시 회의감을 가지는 형태로 변한다. 일년 동안이나 소시민적 인생관으로 살아온 청년회에 비판을 행하며 고치려 노력했으나 별 실효성이 없었다. 지향적 욕구와 현실적 기반의 모순으로 갈등하는 인물이다. 중간층 출신의 지식인이지만 소작농으로 몰락했고, 또 그 생활을 일단 수용하는 편이다. 소시민적인 나약함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자기 반성적 성격을 지닌 의지적, 육체적 열정을 지닌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내면적 적극성을 지닌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다면적 성격은 객관적 현실의 총체적 형상화를 지향하는 장편 소설에 알맞는 인물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이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의 하

46) 이기영, 전계서, p 48

47) 상계서, p 57

나도 바로 김희준을 창조할 수 있었던 데 있다.⁴⁸⁾ 그는 고향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농민의식의 성장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어려서 조혼해서 이향(離鄉)함으로 인해 고향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고향 농민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의 인간적이면서도 욕구 지향적인 태도는 안갑숙이라는 인물에게 영향을 주며 잠재적 역량을 지닌 인동이나 인순이를 개변시키는 의미성을 갖는다. 그의 이와 같은 행동의 기반적 모태가 되는 것은 박훈이라고 할 수 있다. 박훈은 구질서 의식을 타파하고 미래를 향한 의지를 강렬하게 보이는 인물 안갑숙과 김희준의 중개자 역할을 담당한다.

자신의 모습에 대해 불만의식을 느끼면서도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을 추구하려는 그는 두레를 조직하여 농민들을 하나로 묶고 소작료 탕감을 위해 투쟁한다. 소작료 탕감이라는 투쟁의 의미는 마름과의 종속관계 즉 수직관계를 파괴하려는 것이다. 이는 계급적 의식없이 행동하던 소작농들을 각성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그들과의 수평적 동맹의 관계에서 얻어진 결과이다.

그는 이처럼 마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집안 내부에서는 문제가 많은 인물이다.

남편은 여전히 집안 일에는 등한한 것 같았다. 인제는 자식도 커가고 하니 살림이나 약빠르게 해서 부모처자를 잘 건사해야 할 것이 아닌가? 남들은 지약하게 벌어도 못살겠다는 이세상에서 그는 무슨 일인지 월급자리로 취직을 하래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벌어 먹을 놈의 청년회인지 무엇인지 읍내 건달패에게 밤낮 미쳐 다니는 것이 알미웠다.⁴⁹⁾

자신의 불행한 조혼으로 아내에게는 관심이 없고 집안에 경제적 도움도 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그녀의 무지와 반동에 오히려 구타를 자행하며 거

48) 장성수, "이기영의 소설과 농촌 현실의 발견", 서종태 외(1990), 『한국현대소설연구』, 새문사, p.375

49) 이기영, 전거서, p.164.

기다 음전이와 갑숙이에게 잠재된 사랑 욕구로 발현된다. 이 감추어진 욕망은 지식인이 견지해야 할 정당한 윤리관념에 의해 한계를 느끼며 갑숙과는 정신적 사랑으로 발전한다

이상과 같이 자신 속에 은밀히 도사린 인텔리 근성과 소시민적 의식을 극복하고자 끊임없는 자기 비판으로 고뇌하면서 발전하는 입체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사실성을 확보할 수가 있었다. 무지한 농민들의 이기주의 특성을 비판하고 단결을 촉구하며 지배 계급에 대항하도록 그들을 계몽시키는 매개적 역할을 한다. 인순이, 인동이와 소작 농민들의 각성은 노농동맹과 소작쟁의에 이르고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는 문제적 인물이면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한다.⁵⁰⁾ 그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고향이 살아있고 5년 동안의 이향(離鄉)으로 인한 가정의 몰락과 읍내의 눈부신 변화로 인한 상대적인 빈곤감이 농민과의 거리를 좁혔으며 고향의 발전에 헌신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따라서 김희준은 지도자적 성격으로 고향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농민들을 규합하여 농촌을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갔다.

② 어리석은 성격의 인간상 — 안승학

「고향」에서 작가의 사상과 가장 대척적인 위치에 서 있으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이다. 그의 위치는 부채지주인 민판서의 토지를 관리하고 소작인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으로 소작인들을 감독하고 소출을 독려하는 지주의 하수인이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수탈자의 표본으로 계급적 갈등을 촉발하는 인물이다. 지주의 앞잡이로 소작인들의 형편과 입장을 전혀 돌보지 않고 오로지 지주의 권익만 고려의 대상에 놓으며, 마름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는다.

50) 정호웅(1983), "1920~30년대 한국 경향소설의 변모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36~37

정호웅은 경향소설에 있어서의 문제적 인물은 '지식인과 농민의 속성이 변증법적으로 종합된 유형'이라고 하면서 그 특징으로 일상인의 정상적 삶의 질서에서 벗어나 있는 예외적 인물로 남다른 생명력을 지니고 훼손된 사회에서 진정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적극적 인물이다. 그리고 농민의 매개자로 기능, 농민 계층의 집단 의식을 제고시킴으로써 당대 사회구조의 골격을 드러내고 나아가 올바르게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하는데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인물로 규정하고 있다.

짤막한 다리가 장딴지는 개구리를 잡아먹은 뱀같이 불쑥 내밀고 발목까지 거의 한 치씩 되는 털이 새까맣게 내리 덮혔다.⁵¹⁾

속물적 근성으로 소유욕과 색욕으로 일관하는 그의 이 같은 외양묘사는 악덕으로 가득찬 모습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어쨌서 그가 윈터 마을의 조각인 위에 군림하여 '신선놀음'하며, 주재소 순사가 감탄할 만큼 대단한 지위에 올랐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근본을 알 수 있는 기묘한 에피소드에서 출발하고 있다.

우편소가 새로 생긴 것을 보고 이웃 사람은 그게 무엇인지 몰라서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었다 장승같이 느러선 전보대에는 노상 잉-하는 소리가 들리었다 그것은 전신줄을 감은 사기 안에 다 귀신을 잡아넣어서 그런 소리가 무시로 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편소 안에는 무슨 이상한 기계를 해애히고 거기서는 무시로 괴상한 소리가 들리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그것도 무슨 귀신을 잡아넣어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럴 때에 안승학은 마술사처럼 이 귀신을 부리는 재주를 그들 앞에서 시험해보았다

그는 엽서 한 장을 사서 자기집 통호수와 자기이름을 쓰고 편지사연을 써서 우편통 안으로 집어 넣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장담하기를 이것이 오늘 해전에 우리 집에 들어갈 터이니 가보자는 것이었다. 과연 그날 저녁때였다 지옥사자같은 누렁웃을 입은 사람이 안승학의 집에 엽서 한 장을 던지고 갔다. 그것은 아까 넣던 엽서였다

<참 조화속이다!>

하고 그들은 일시에 소리를 질렀다⁵²⁾

경기도 죽산 호방의 아들인 그는 개화해서 새로운 세상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인물

51) 이기영, 전계서, p 36

52) 상계서, p 111.

이다 개화기에 부상했던 조선조 중인 계층 출신들의 재빠른 시대 적응력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군청 직원으로, 졸부가 되었으며 권력과 결탁해 소작 농민들을 착취하는 악랄한 마름이며 고리대금업자였다. 그는 돈에 대한 집념이 대단해서 돈만이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었다. 공부 또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함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의 이해 타산적인 세계관은 주인공 김희준과 대립하고, 소작인인 김원철 등과 갈등할 뿐만 아니라, 포목상 권상철과도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은 고립되는 원인이 된다

그는 윤리적으로 타락하였으며 황금만능주의, 이기주의와 친일적 경향을 보인다. 특히 참외를 사먹는 일과 심어 먹는 일 중 어느 것이 더 이익인가를 계산하는 장면은 그의 성격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안승학은 수관알을 올렸다 내렸다 하더니 별안간 무릎을 탁 치고 좋아한다.
 「그래도 놓는 것이 이익이야. 하하하. 하나 안 친 거 있어!」
 「안 친 게 무에야? 그렇게 다 치고서」
 「뵈고 하니 원두막을 지어 놓으면 낮으로는 피서하러 나올 텐즉! 아니 당신도 더러 나오겠지? 그러면 말야 집에 있을 적보다 옷에 땀이 안찰테니까 그 이익이 얼마나 말야. 가만있자 그놈을 얼마나 쳐야 할고?」
 숙자는 별안간 대골대골 땡굴며 뺨살을 쥐어잡고 웃는다.
 「아-아이구 배야 난 무엇이 빠졌단다구 호호호……그런 걸 칠테면 원두막으로 나올 때 땀흘리는 것도 쳐야지」
 「뭘? 그까짓 게야 바로 문 앞인데……그런 땀은 뒷간에 갈 때도 흘리지 않나」
 「뒷간에는 누가 공연히 가나! 호호호……」⁵³⁾

안승학의 탐욕적인 모습, 돈과 신분 사이에 분열된 의식을 드러내는 경호와 갑숙의 연애 이야기에 날뛰는 모습 등은 풍자 의도가 너무 앞서 그를 회화화하고, 따라서 리얼리티를 격감시키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전 작품들의 지주나 마름에 비해서는 좀더 전형적이며 살아있는 인물로 성공하고 있다.⁵⁴⁾

53) 상계서, p 211

54) 정미원(1988), “이기영 「고향」의 작중인물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6

소작인과의 이해타산적 관계를 취하는 안승학에게 수해로 인한 소작인들의 소작료 탕감 요구는 큰 반감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안승학의 권위적이고 이해타산적인 행위는 그의 딸인 갑숙이와 권경호의 불미스러운 관계 폭로와 금전적 지원으로 굴복 당하고 만다. 이와 같이 마름 안승학은 타산적이고 사리에 밝으면서 소작 농민들 위에 군림하는 인물이다. 또한 그는 봉건적 윤리의식을 강조하고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다.

③ 〈안갑숙〉 - 지도자적 성격

안갑숙은 작가의 목적의식의 실현을 위해 조작된 인물로서 생동감을 잃고 있다. 여유있는 생활 속에 성장해 온 그녀는 농민의 빈궁한 생활에 대한 실감이 없으며 그런 생활상을 보고도 별다른 자극을 받지 못한다. 서울에서 같이 하숙하던 경호와 혼전관계를 맺고 자책감으로 인해 병적으로 센티멘탈해진 여자로 사회구조에 대한 의식은 전혀 없다. 그러한 그녀가 공장직공으로 취직하여 투사로 변신하게 된다 의식화되는 과정이 설득력있게 나타나 있지 않고 돌연히 강인한 혁명투사로 둔갑시킨 것은 작가의 의도가 지나치게 드러난 경우다

작가는 갑숙의 이상주의적인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나는 너무 환상적 공상이었는지 모르나, 늘 뛰는 성급한 마음은 봉건적 질곡 밑에서 더욱 이중으로 굴욕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에게서 버림 순진고결한 이상적 성격을 발견하고 싶게 하였다. 그래서 안승학 인색한과 대조해서 여학생의 한 개의 아름다운 전형을 그리고자 한 것이었다.⁵⁵⁾

작가의 이런 의도는 그녀를 관념적이고 조작된 인물로 만들어 버렸다. 이는 고향이 획득한 사실주의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회준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강인한 혁명투사의 전형이 그녀를 통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 자아를 가진 그녀가 사회적 자아로 확대된 옥희로 변신과정에서 중개자를 제공하지 않은 점, 그리고 인간적 갈등

55) 민촌생, 『『고향』의 평판에 대하여』; 박태준 외(1988), 제3한국문학, 수문서관, p380에서 재인용

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관념적 인물로서 생동감을 잃게 한 것은 인물창조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만하다

(4) 범속한 성격과 지도자적 성격의 인간상들 — 박화성의 「고향 없는 사람들」

이 소설에서는 오삼룡과 강판옥이 주동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등장하는 인물 중 반동 인물이 없이 궁핍한 생활 속에서 서로를 감싸 마음으로 인정해주고 진정으로 서로를 걱정하는 사이이다.

① <오삼룡> - 지도자적 성격

오삼룡은 믿음직한 우리 농민의 모습이다. 확고한 신념과 뚜렷한 원리원칙을 지니고 있으면서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일에 심혈을 기울인다. 인화와 동료애를 중요시하는 경향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 남에게 강요하기보다 행동과 권유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도력이 있다.

“우리 동리에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든지 항상 대표로만 나가는 삼룡이, 어질고 착한 중권이, 재담 잘하는 옥관이, 동네 편쌈은 도맡아 놓고 대장 노릇하는 우리 관운장 상걸이”⁵⁶⁾

농민으로 지도자적인 성격을 가졌다 해도 고향을 지키기에는 사회적 지위로선 영향력과 능력이 없어 살길을 찾아 떠난다. 강서 농장으로 떠난 사람들은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인해 진정서를 총독부에 보내고 회사에 가서 날마다 조른 덕으로 귀향허가를 받아낼 정도로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성격이다.

② 강판옥 - 범속한 성격

생활은 곤궁하지만 따뜻한 인정을 베풀 줄 알고 친구를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을 지닌 농민의 모습으로 입담도 좋다. 고향을 먼저 떠난 친구를 걱정해주며 다시 만날 기대를 해보지만 결국 강판옥도 타향으로 떠나게 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만다.

56) 박화성, 전계서, p 471

“아니 왜 이러기냐? 내가 아무리 사람값에는 못 가는 버리지같이 된 인생이다
 마는 사내자식이 그래 친구를 영이별하는 자리에서 … 허 안될 말이어 허 그
 사람 참, 자 어서들 오라고 면장이 저기서 손짓하네, 얼른 받아”
 판옥이는 삼룡의 조끼 틈에 오 원 지폐를 넣었다.⁵⁷⁾

절망적인 현실을 그나마 각박하지 않게 해주는 구원의 바탕이 되어주고 있는 것은
 고향을 등지고 정처 없이 떠나는 탈향 가족들을 위해서 따듯이 석별의 정을 나누는 농
 촌 사람들의 허물없고 가식 없는 인정이라 할 수 있다.

(5) 범속한 성격의 인간군상들 —이근영의 「고향 사람들」

이 소설에서는 머슴방 풍경 묘사와 대화가 농민들의 솔직한 정서와 일제에 의해 변
 해 가는 농촌의 실상을 따듯한 분위기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어느 농촌에서나 볼 수
 있는 인심이 후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품성을 가진 점쇠, 석만, 봉갑 등이 중추적으
 로 활동하고 있다

① <점쇠> - 범속한 성격

정들었던 화선이 마저 대판 조선 술집으로 팔려가자 그녀를 만날 것이란 막연한 회
 망으로 께작 속에 숨어 밀항하다 발각되어 되돌아온다. 정직하고 소박하며 융통성이
 없을 정도로 고집스럽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지조를 지키고자 하는 끈기를 지닌 농민이
 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인물이다.

점쇠와 눈인사를 했던 사람들이 커다랗게 소리를 내서 말을 건네는 등, 점쇠가
 아니 가면 점쇠 있는 곳으로 일부러 와서 알은 체를 하는 등 제법 시끄러웠다 남
 의 머슴살이를 하는 점쇠가 뜻밖에 공사장에 나타나자, 허참판 집에서 쫓겨나와
 일자리를 보러 왔는가 하고 누구나 생각되었던 것이다.⁵⁸⁾

57) 상계서, p 476.

58) 이근영, 전계서, p.130.

남의 집 머슴살이하면서도 밝고 순박하며 인정이 많은 성격으로 사람들로 부터 신뢰를 얻어 탄광노동자를 모집할 때 점쇠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하층민으로서의 경제적인 이유와 사랑을 찾아 고향을 떠날 예정이다.

② <석만> - 범속한 성격

원래 머슴 사랑방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인력거를 끌게 된 이후로는 양반이나 된 듯이 행세하여 농민들로부터 차가운 시선을 받는 인물로 정을 무시하고 남의 입장보다는 자기의 실속만 챙기는 형이다. 탄광노동자로 같이 가게 되면서 그간의 소원함이 풀렸으나 돈벌이를 위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전갈이 기차 정거장까지 자동차가 아니 다닌다면 인력거에 목을 매고 지낼 수도 있지만, 이젠 자동차의 운전 횡수를 더 늘린다니 돈 구경은 더 어려울 것 같다. 그래 인력거를 공의에게 돌려주는 대신, 그 동안 끌어 주었다는 사례금으로 주는 이십 원을 받아서 살림을 처리하고 아내는 다섯 살 된 아들을 데리고 남의 집 식모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의 속계산으로 이 년간 모은 돈을 가지면 세 식구 목구멍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밑천을 얻을 것도 같았다 59)



이 소설에서 석만이가 반동인물로 누구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일본으로 떠나게 되자 갈등이 해소되어 예전의 관계로 회복된다. 당시에 간도나 만주로 떠난 사람들은 가족을 동반했으나 일본으로 떠난 노동자들은 가족을 남겨두고 떠났다.

③ <봉갑> - 범속한 성격

점쇠의 가장 친한 친구로 흔히 볼 수 있는 정이 많은 인물이다. 혼인한 지 일곱 달 밖에 되지 않은 처지였으나 돈 벌 욕심에 노임이 많은 곳으로 따라나서기로 한다. 일본에만 가면 보장받는 미래가 있을 줄 아는 현실 인식이 부족한 계층에 속하는 인물이다

“가만있게 집에서 아버지랑 성님이랑 상의하여 보아야겠네 될 수만 있다면야 자네허구 멀어지겠는가. 자네가 못 가든지 내가 가든지 양단간은 날 테지” 60)

59) 상계서, p134.

접시, 석판, 봉갑이를 주축으로 엮어나간 이 작품에서는 북해도 탄광에 팔려가는 절망적 현실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객관적 현실은 비록 어둡지만 마을 사람들의 소박한 삶의 모습들이 따뜻한 인심으로 다가온다. 그들에게 걱정거리인 마을에 신작로가 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 즉 일제의 식민지화로 삶의 터전이 분해되어 가는 것이다. 농촌의 분화에 농민들은 어떠한 대응도 못하고 지금 상황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일제의 노동력 동원에 몸을 내맡기게 된다. 일본으로 떠나는 날 면장이 조선사람 체면 운운하는 인사말을 하는 것은 관의 속성을 보여 준다. 이에 대해 농민들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농민들이 현실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농민들의 순진한 시각으로 악랄한 일제의 정책을 꿰뚫어 보기에는 역부족임을 보여준다.

2) 갈등구조

소설이란 불화와 갈등의 원인을 생각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사유의 길'이다. 따라서 소설은 일정한 갈등 구조를 지니며 이러한 갈등 구조가 맺혀졌다가 풀리는 과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갈래라고 할 수 있다. 작품에 나타나는 갈등 구조의 파악은 작품 해석의 한 방법으로도 필요하며 소설의 구조를 밝히고 작품의 이해를 더욱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데도 의의가 있다.

소설에서 인물들은 다양한 형태의 갈등구조 속에서 살아간다. 인물들이 행하는 행위들, 즉 사건의 구조는 언제나 그 근저에 갈등구조를 지니고 있다⁶¹⁾

조동일은 '소설은 자아와 세계의 대결' 즉 자아와 세계와의 갈등 구조라고 설명했다⁶²⁾ 그리고 제라파 역시 개인과 사회 혹은 자아와 세계 사이의 대립 양식이야말로 소설이 다루어야 할 기본 구조라고 주장한 바 있다.⁶³⁾ 소설 속의 사건은 바로 이 대립

60) 상계서, p 128.

61) 한국현대소설연구회(1994), 『현대소설론』, 평민사, p.89.

62) 조남현(1984), 『소설원론』, 고려원, p.161.

63) 상계서, p 159.

양식을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소설에서 다루는 갈등구조은 인간 내부의 갈등, 인간과 인간의 갈등(인간의 이해 관계가 상치되는 경우, 도덕적 관점이 서로 다른 경우, 신분이나 계층이 다른 개인이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경우), 인간과 자연의 갈등, 인간과 사회의 갈등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상 텍스트의 갈등구조 분석을 통하여 고향에 대한 인물들의 의식구조와 행동양상을 탐구해 보려고 한다.

(1) 인간과 사회의 대립 — 현진건의 「고향」

‘그’는 평화로운 마을에 살다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었다. 삶의 기반을 상실한 채 고향을 잃고 객지로 떠돌다 그리움으로 다시 찾은 고향은 폐허 그 자체이고, 폐허인 고향에서 만난 인연있던 여인도 그와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돌아가신 그의 부모나 그 여인에게 경제적인 궁핍은 인생의 판도를 정반대의 불행으로 인도하였다. 이 소설은 일제와의 갈등과 밥(돈)과의 갈등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① 일제와의 갈등

다음과 같은 부분은 일제와의 갈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한 백 호 남짓한 그 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驛屯土)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를 말하면 사삿집 땅을 부치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로 들어가고 말았다. 직접으로 회사에 소작료(小作料)를 바치거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마는, 소위 중간 소작인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저는 흠 한 번 만져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지주(地主) 행세를 하게 되었다. 동척에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굶히고 보니, 실작인의 소출(所出)의 삼할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후로 ‘죽겠다’ ‘못살겠다’ 하는 소리는 중이 엽불하듯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남부여대(男負女戴)하고 타처로 유리하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진해갔다⁶⁴⁾

일제는 한일합방 이전부터 농업국인 조선을 자신들의 자본 축적 기반으로 삼기 위해 토지 점유에 힘썼다. 1906년 통감부를 중심으로 군용지, 철도 용지, 국유 미간지를 탈취하였고,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로 조선 농민들의 토지를 약탈하였다. 1910년에서 시작하여 1918년에 끝난 토지조사사업은 대부분의 국토가 일제에게 넘어가는 계기가 된다

일제는 식민지 경제 체제를 확립하는 방법의 하나로 토지 조사사업을 실시했다. 조선 총독부는 1910년 9월 임시 토지조사국을 설치하고, '토지조사령'을 공포한 후 1918년까지 토지 사유 제도를 확립한다는 이유로 토지 소유권 등 조사를 실시한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토지 소유권의 조사 및 소유권 확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종래의 수조권자는 소유권을 신고하여 사유권을 인정받은 반면, 경작 농민이 가지고 있던 도조권과 경작권은 토지 소유권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또한 까다로운 신고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규정대로 신고를 하지 못한 농민의 토지는 소유권이 강제로 조선 총독부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토지 사업은 토지의 현실적 보유자이고, 경작자인 농민을 토지 사유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전통적인 토지 소유자를 그대로 소유권자로 인정함으로써 수많은 농민에게서 땅을 빼앗게 되고, 토지를 빼앗긴 이들은 단순한 소작농으로 재편성되었다. 이러한 재편성은 농민들을 토지로부터 분리시키고 영세농과 농민들을 반봉건적인 소작관계로 전락시킴으로써 지주와 소작의 생산관계가 창출되었다.

토지를 잃은 농민의 대다수는, 외국처럼 공업 노동자로 변신하지 못하고 종래의 생활 양식 아래에서 순진한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따라서 농경의 영세화와 반봉건적인 소작 관계는 오히려 확대되고, 자작농이나 자소작농의 회생으로, 대지주에게 토지 집중이 이루어지며, 반노예적 빈농층이 증가하고, 결국 지주와 소작인간의 계층적 대립은 첨예하게 된다. 농민들은 적자 운영에 허덕이면서, 그 결과 부채액은 계속 늘어만 갔는데, 농민들 특히 소작농의 경우 그 부채액이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이른바 '야반도주'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유랑민이 되거나 도시로

64) 현진건, 전계서, p511.

나가서 품팔이꾼, 심한 경우 걸인으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시기의 실향이나 이농은 '조상 전래의 최소한의 농토로부터 강제축출'을 의미했으며, 그 결과 농촌은 황폐화되고, 구체적 개인들은 이민, 가족의 이산, 유리결식을 겪게 되면서, 정신적으로는 성윤리와 전통적 가족 사회의 붕괴이라는 비극적 양상으로 치닫게 되었던 것이다.

② 돈(밥)과의 갈등

'그'는 경작할 토지를 잃자 돈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살 길을 찾아 서간도, 신의주, 안동현, 구주탄광, 오사까 철공장 등지를 돌며 농사꾼이나 품팔이, 노동자 등으로 생활한다. 그러나 고향을 떠나 타향에 가서도 가난은 전혀 벗어나지 못한다. 어찌면 고향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굶주림으로 인한 영양실조로 어머니가 죽게 되면서 자신은 고아 신세가 되어 버린다. 돈 때문에 어려서 유곽에 팔려간 그녀의 비참함, 식민지의 궁핍한 상황에서는 여성의 성마저 상품화함은 물론 가족윤리까지 파괴하고 있다. 만약 돈이 없는 궁핍한 시대가 아니었다면 영양실조로 죽어간 그의 어머니나 유곽으로 팔려가 고생한 그의 여인은 다른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 주인공인 그의 운명 또한 마찬가지다. 삶의 기반을 상실한 채 고향을 잃고 객지로 떠돌아야 하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문제삼는 데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징표는 돈이다. 돈으로 철저히 제외된 것은 식민지 통치 정책으로 인한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단지 살려고 고향을 떠나게 되어 평화로운 마을에서 폐허로 변해버린 곳이 단지 특정한 한 농촌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국토 전체이다.

이처럼, 이 소설은 일제와의 갈등, 돈(밥)과의 갈등을 주 이야기 축으로 내포함으로써 인간과 사회와의 갈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모든 갈등의 근원이 바로 일제식민통치에서 비롯되었음을 뜻한다.

(2) 인간과 사회의 대립 — 이태준의 「고향」

이 작품의 주인공 김윤건은 고생 끝에 졸업을 하게 되어 그리던 조국(고향)에 돌아오나 귀향 도중 만난 지식인이나 모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일적인 동기, 변절한 사회

운동가에 관한 일 등으로 분노하고 좌절한다. 정작 지식인인 본인은 지식인으로서의 행동은 보여주지 못한 채 흥분만 하는 모순된 삶이다.

이 소설의 갈등 양상은 일제와의 갈등, 지식인의 갈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① 개인주의적인 지식인과의 갈등

기회주의적인 지식인의 전형을 보여주면서 그의 부정성은 상대적으로 김윤건의 건강한 민족의식을 부각시킨다. 그는 왜곡된 민족의식의 논리에 매몰되어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드러낸다. '큰일을 못할 바에야 내 한 사람이 헐벗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적게 보아 조선 사람 하나가 헐벗지 않는 것'이 된다는 그의 논리는 불합리한 세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안위와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세계 개혁에 참여하지 않는 나약한 지식인의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

윤건은 될 수 있는 대로 얼른 그 XX은행 새 행원과 헤어졌다. 그리고 자기 자리로 와서 다시금 생각할수록 그자에게서 조반 얻어먹은 것이 불유쾌스러웠다. 무슨 미끼나 받아먹은 것처럼 꺼분하고 무슨 전염병자와나 식탁을 같이 하였던 것처럼 불안스러웠다⁶⁵⁾



김윤건은 조국의 가난과 궁핍의 어려운 상황을 뒷전으로 하고 개인주의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지식인의 행태를 보고 언짢음을 느낀다.

여기서 윤건과 지식인(새 은행원)의 갈등은 개인과 개인의 갈등으로 볼수 있으나, 이런 개인적 차원의 갈등 또한 일제 식민통치라는 사회적 상황에서 기인된 절대적 궁핍상과 일자리 부족 등이 문제되고 있음을 볼 때 모든 갈등의 단초는 고향 혹은 조국의 주권상실과 무관하지 않다

② 친일 지식인과의 갈등

친일 지식인과의 갈등도 이 작품의 주요한 갈등요소라 할 수 있다.

윤건은 슬취한 사람처럼 얼굴이 붉어졌다 흥분하였다 강XX군이나, 마XX나, 배XX나, 일본 동해도 선에서 만났던 XX은행원 같은 것들은 천 명 아니라 만

65) 이태준, 전계서, p 12

명 눈앞에 닥들려도 그까짓 것들은 자개돌밭을 밟고 나가듯 문질러 나가고 별시 하고 침벨으리라고 결심한 것이다 66)

스파이 노릇을 하던 친구가 어엿한 선생으로 활동하고 있고 사회를 위해 남아 있어야 할 사람은 감옥으로 간 사실에서 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 현실에 아부하는 친일적인 사람만이 사회에 발붙일 수 있다는 사실이 어두운 현실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양상 또한 거대한 일본 식민 통치사회가 소설의 기본 상황으로 전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부도덕한 사회현상 속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도태되고 사이비 배신자들이 출세하는 모순된 사회구조를 폭로, 고발하고 있다.

③ 변절한 사이비 지식인과의 갈등

사상적 동지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감옥에 가 있고, '사회운동 이론가'로 조선서는 제일 오래고 쟁쟁하다는 박철'을 찾아가 보나 변절한 모습만을 확인한다.

박철과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두 사람의 말소리는 얼마 안 가서 어세가 높아 갔다. 결국은 양편의 이론이 통일되지 않는 듯하였다. 나중엔 김윤건은 그 소당 뚜껑 같은 손으로 박철의 귀스썸을 올려 불이게까지 되었다

“이놈아, 입만 가지고 네 이놈, 네 후진들은 모조리 감옥으로 갔는데 너는 떠들기는 온통 떠드는 놈이 어케 오늘까지 남아 있니?”⁶⁷⁾

김윤건은 표리부동한 박철의 언행에 환멸을 느껴 한 대 치고 뛰쳐나오지만 사회운동 이론가의 변절과 사회적 환경에 좌절하게 된다. 조선의 현실은 이미 조선적인 가치는 없고, 오직 일본을, 일본사람으로 살아갈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보인 갈등의 양상에서 김윤건이 상대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선비정신⁶⁸⁾ 때문이다. 당시 민족주의를 표방한 작가들에게 두루 발견되던 선민의식의 또 다른 표현

66) 상계서 p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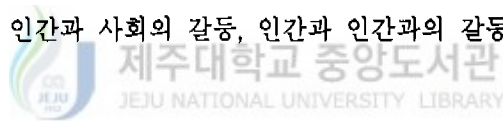
67) 상계서, p20

68) 강진호(1992), “이상과 현실의 거리”, 『문학과 논리』 제2호, 태학사, p.161.

이라고 할 수 있다. 선민의식에서 배태된 자존심은 현실에 대한 비타협성을 고수한다. 이것은 주인공 의식의 선명도를 부여하는 한편, 선과 악, 이성과 감성이 분리되는 전근대적 세계에 주인공이 안주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즉 자신은 절대 선의 완전한 존재로써, 세계의 부정성과 그 부정성에 물든 주위 인물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근대적 세계는 이미 현실에 존재하지 않고 지사적 면모가 가지는 선민의식은 자기 스스로를 그 세계에 가둬놓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그의 의식이 놓인 세계와 자신이 처한 세계는 분리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⁶⁹⁾ 김운건은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간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는 곳이었다. 즉 이 소설에서의 고향이란 공간은 개인의 이상을 이룰 수 없는 곳이므로 이 소설에서는 인간과 사회의 갈등, 인간과 인간과의 갈등을 주 양상으로 그리고 있다.

결국, 달라진 사회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철학과 신념을 잃고 부조리한 세계와 타협함으로써 변절하고 마는 사이비 지식인에 대한 고발과 비판이 또 하나의 갈등 축으로 발견된다.

따라서 이 소설은 인간과 사회의 갈등, 인간과 인간과의 갈등을 주 양상으로 그리고 있다.



(3) 인간과 사회와의 대립 — 이기영의 「고향」

식민지 조선의 농촌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면서 농민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김희준을 중심으로 이 소설의 갈등은 애정문제와 경호의 출생의 비밀, 소작쟁의를 중심으로 한 갈등이다. 이 세 가지 갈등을 통해 인물들간의 관계와 상호 작용-반작용의 관계와 거기에 매개되는 사회의 본질적 문제와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① 김희준의 개인적 애정에 대한 갈등

김희준의 갈등은 조모를 위한다고 조흔과 타의에 의해 맺어진 아내와의 불화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는 아내에 대해서 전혀 애정을 느끼지 못하며, 동경 유학을 간 것도 이

69) 상계서, p44.

혼을 대신한 구실에 불과하다. 결국 아내를 대신할 애정의 상대로서 야학에 나오는 음전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갑숙을 만나 사랑하게 된다. 희준과 갑숙이 소작쟁의라는 현실적인 당면 과제를 앞두고 외면적으로는 활동 상의 동지라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애정관계를 형성한다. 그러기에 현실적으로 맺어지기 어려운 애정에 대한 갈등은 이중성을 띠고 전개된다. 여기에 갑숙과 육체적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경호가 나타남으로써 이들의 애정 갈등은 불완전한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바, 희준과 갑숙의 애정은 그 감정이 절제되어 외면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희준과 갑숙의 애정적 대립도 내면적인 갈등관계만을 유지하고 있다. 그들의 삼각관계는 그 갈등양상이 채 진전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갑숙은 경호를 머슴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선택하기로 결심하고 그를 이념적으로 각성시켜 동지적 세력으로 포섭하는 한편, 희준은 갑숙과 그간의 모든 개인적 욕구와 애정적 갈등을 공동의 이상으로 초월할 것을 역설하여 대단원에서 극적인 화해의 장을 마련한다. 이러한 희준과 갑숙의 관계에 완전히 대응되는 것이 인동이의 방개이다. 좌우에 두 여성을 두고 인동이 혼자서 속을 끓이고 한숨을 짓지만 방개와 음전이 사이엔 별 다른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



② 경호의 출생 비밀을 중심으로 한 갈등

애정문제를 중심으로 한 갈등과 연계되어서 안승학이 소유옥과 연결되어 식민지 부르조아로서 안승학의 이중적 면모와 그의 야망을 드러낸다. 경호와 갑숙과의 애정 문제가 안승학과 결정적인 갈등관계를 이루게 되는 원인은 안승학의 성격과 관계된다. 안승학은 자식을 통한 신분상승 욕구를 갖고 있다. 그것은 '부자 양반' 혼인에 대한 안승학의 지향으로 나타난다. 경호의 출생 내력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된 갑숙의 어머니 순경은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김에 혼인을 시키고 싶어하나 남편 안승학의 성화를 걱정한다.

기위 그렇게 된 바에는 저회끼리 그대로 결혼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어쩌다가 남편의 증정을 떠블라치면 안승학은 어디까지 부자 양반 혼인을 한다고 장담을 하는 통에 두말을 붙일 수가 없었다 언제인가 한번도 남편이 혼인 걱정을 할 때

에 슬그머니 경호를 쳐들어 보았더니 그는 펄쩍 뛰며 붙이듯이
“그 까짓 장들뱅이 자식하고 누가 혼인을 한담!”
하고 부엌에 편자를 주며 몰아 쏜다 70)

그러나 이것은 경호의 집안이 못마땅해서가 아니라 경호의 아버지 권상철에게 ‘헛물
컨’ 화풀이다. 안승학은 단순히 윈터의 마름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와 재산을
모두 갖춘 유지가 되는 것이 그의 야망이다. 경호의 출생 비밀은 안승학에게 야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주었으나 딸로 인해 무산된다. 즉 경호의 출생 비밀과
갑숙과의 애정문제로 인한 갈등은 직접적으로 안승학의 소유욕과 갈등관계를 맺게 됨
으로써 식민지 자본주의화 과정 속에서 탄생한 부르조아로서의 이중적 면모를 부각시
키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의 안승학의 실패는 단순히 봉건적 측면을 지닌 이중적
의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안승학의 ‘미래 지향적 욕망’ 즉 단순한 마름이 아닌 자
본가로서 자신의 존재 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그의 욕망의 좌절을 의미한다.

③ 소작쟁의를 중심으로 한 갈등

수해가 나면서 소작료 탕감을 요구하는 소작인과 마름 사이의 갈등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소작료의 탕감을 거절당하자 벼베기를 보류했고 그에 따른 비용을 갑숙이와 방
개 등의 도움을 받게 된다. 이기심을 드러내는 농민들은 그들이 가져온 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불평불만을 토로하지만 김회준은 끝까지 합심해 줄 것을 당부한다. 끝까지
버티는 안승학에게 집안의 약점을 이용하여 승리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나, 이는 집안
의 체면에 관계되는 문제이거나 혹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일 뿐 사회경제적인 의
미는 갖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작료 탕감 투쟁에서의 승리는 분명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지주-소작인 문제는 경제적 차원이나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 윤리적인 문제나 체면과 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소작인으로의 전락과 가난의 원인을 깨쳐나가는 구체적 행동이 소작쟁의다. 소작쟁
의는 식민지 경제 정책으로 인한 결과로 농민들의 힘을 합치면 보람을 찾을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70) 이기영, 전계서, p 245

그러므로 이 소설에서 애정과 경호의 출생 비밀의 갈등은 인간과 인간에 대한 갈등이다. 그러나 소작쟁의를 중심으로 하는 갈등은 일제 식민정책에 따라 농촌의 계층 양분화 현상으로 농민을 소작인으로 전락시켰다. 소작인과 지주라는 사회제도로 인한 갈등이므로 인간과 사회와의 갈등이다. 소작쟁의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농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게 된 주요한 계기다.

(4) 인간과 사회와의 대립 —박화성의 「고향 없는 사람들」

불암리 마을에 살던 오삼룡을 비롯한 아홉 가구와 각 동리의 일백 호의 가족이 평남 강서농장으로 이주하면서 그들이 겪는 온갖 고초와 시련은 일제에 의한 무계획적인 정책에서 시작된다. 이 소설이 보여주는 갈등 양상은 농민과 사회의 갈등, 농민과 자연과의 갈등 등으로 분석된다.

① 농민과 사회정책과의 갈등

자연재해로 농토와 집을 잃은 사람들을 일제는 탄광이나 농토를 개척한다는 이유로 먼 타향에 강제로 이주시킨다. 엄격한 조사 끝에 선발해서 보낸 곳이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지어 논 집에 논 스무 마지기씩 주고 소 한 마리씩 주고 원통 농사 기계 다 주고'⁷¹⁾ '아무 염려없이 잘 살 것'⁷²⁾이라 믿었다. 그러나 정작 그곳은 온갖 푸성귀까지도 다 사먹어야 하고, 나무 한 단까지도 비싸게 사야 하는 곳, 빨래를 해 널어도 짚간이 피어서 못쓸 곳, 한 마디로 '이런 흉악한 데서 어찌 살어 가는가' 하는 한탄이 절로 나오는 곳이다. 농민들의 수세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갈등의 양상이 치열하지는 못하다. 사전 준비가 전혀 안된 상황에서 이주시킨 것은 일제의 간악한 정책으로 생활의 불편을 가져오게 된다.

② 농민과 자연의 갈등

자연재해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은 급기야 타의에 의해 고향을 떠나게 만든 요인이 된다. 가뭄이나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는 생계 유지의 어려움과 고향을 떠나야 하는 엄

71) 박화성, 전계서, p.480

72) 상계서, p.480

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이주한 곳의 고르지 못한 기후 조건과 생활 시설 불충분함은 농사를 짓거나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에 많은 불편을 가져와 그리운 고향으로 회귀하려 한다. 그러나 고향의 자연재해로 인해 고향에 남아있던 사람들마저 이향(離鄉)하는 처지가 되어 버려 그들은 결국 주저앉게 된다.

자네는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 보고 죽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마는 우리는 죽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차고 무정한 고향을 박차 버리고 나오는 영웅이라고 생각하네. 우리는 고향이 없는 사람들이네 무슨 고향을 못 잊어하는 설움이 있겠는가? 어디든지 우리가 밭을 던고 살아가는 곳을 우리의 고향으로 만들세. 너무 비감하여 말게 맘을 든든히 먹고 두 팔을 단단히 갈아서 우리의 살어나갈 길을 뚫어보세. 우리는 고향이 없는 사람들이니 고향을 떠날 때 뒤도 돌아 보지 말게 73)

이와 같이 비장한 각오로 새 출발을 하려는 이들의 행동에서 다른 희망에 질기게 매달리고자 안간힘을 쓰는 처절함을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갈등으로 고향은 절망적인 곳이 된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고향을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하나 현실상 도저히 복귀할 수 없는 처지로 남아있게 한다.

따라서 이 소설은 고향이 일제 식민통치 상황에 자연재해까지 겹쳐 희생할 수 없다는 잃어버린 공간으로 형상화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인간과 자연과의 갈등, 인간과 사회와의 갈등을 주된 양상으로 그리고 있다.

(5) 인간과 사회와의 갈등 —이근영의 「고향 사람들」

이 소설은 머슴방 풍경묘사와 대화에서 농민들의 솔직한 정서가 일제에 의해 변해가는 농촌의 실상을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갈등 양상은 석만이와 주변 인물간의 갈등, 인물과 일제와의 갈등 등이다

73) 상계서, p.488

① 석만과 주변 인물간의 갈등

석만이는 머슴 사랑방에 오는 사람치곤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았다. 그는 머슴 사랑방에서 잔뼈가 굵어졌건만 공의(公醫) 덕으로 헌 인력거를 얻어 끌게 된 후부터는 양반이나 된 듯 머슴 사랑엔 일체 발을 끊었다. 그러다가 이번 비로 자기 집 천장에서 물이 새게 되서부터 다시 머슴 사랑을 찾아왔다. 그러니 여러 사람의 평시 가졌던 미움은 더한층 커지게 된 것이다.⁷⁴⁾

점쇠는 아직 봉갑이가 갈지말지 하는 판에 보기 싫은 석만이가 맨먼저 결정되었다는 것이 '이것 마수 없는 징조가 아닌가'하고 생각도 들었으나 그것은 잠깐이었다.⁷⁵⁾

석만이가 인력거를 끌기 시작하면서 전혀 머슴 사랑방에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인력거를 끌게 되면서 마치 신분 상승이나 한 것처럼 친하게 지내던 머슴들과는 소원하게 지낸다. 그러자 나머지 사람들도 그를 멀리 하다가 집에 비가 새어 한 곳에 모이게 된 것이다. 앞으로 신작로가 뚫어지면 차의 왕래가 많아질 것이므로 인력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들과 헤어지면서까지 탄광 노무자 모집에 석만이라도 신청하자 그동안 가졌던 서운한 감정을 씻고 같은 동지로 받아들인다.

② 일제와의 갈등

일본이 조선인의 희생을 대량으로 강요한 경우는 '모집' '징용' '보국대' '근로동원', '정신대' 등을 통한 노동력의 강제수탈이 대표적이었다.

그는 점쇠가 심부름 가는 줄을 알면서 이렇게 농담으로 받고 들어 웃었다
“그런데 내지 안 가고 싶은가.”

이 말 한마디가 점쇠는 머리 속에 모닥물을 일으키듯 화끈하였다

“아-니 무슨 말씀을……저 정말인가유?”

“정말이구말구 그런데 점쇠가 사고 싶어하는 대판은 아니고만 북해도란 곳이

74) 이근영, 전계서, p.118.

75) 상계서, p.129.

지. 대판도 지나구 동경도 지나서 아주 북쪽에 붙은 땅인데 거게 석탄광에서 인
부를 모집하러 왔어”

하루 품삯이 이 원부터 오 원까지고 기한은 이 년이란 것까지 자세히 말해 주
었다 76)

침략전쟁이 아직 본격화하기 전에는 농촌에서 쫓겨난 조선의 값싼 노동력을 ‘모집’이
라는 형식으로 일본의 토목 공사장이나 광산에 집단 동원했다. 그러나 중일전쟁 이후
에는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곧이어 ‘국민징용령’을 실시하여(1939) 많은 조선인을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노동력으로 강제 동원했다.

1939년부터 194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강제 동원된 노동력으로 113만 명으로 통계
된 자료가 있는가 하면 146만 명으로 통계된 자료도 있다. 100만이 훨씬 넘는 조선인
이 침략전쟁 말기에 강제 동원되었으며 이들은 탄광에 제일 많이 투입되었고 다음은
금속광산·토건공사·군수공장 등에서 혹심한 노동에 투입되었다.77)

이 작품에서는 탄광노무자를 강제적으로 구하기보다는 모집이라는 형식을 택한다.
하층민들은 현실에 대한 인식부족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돈 욕심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인물과 인물과의 갈등에서 하층민들의 순진함과 따뜻한 인정이
있어 고향에 대한 추억이 고향을 떠난 사람에게 든든한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 줄 수
가 있었다. 하지만 일제와의 갈등으로 모집이라는 형식에서 고향을 떠났지만 많은 농
민들이 계약기간 내에 돌아오지 못하고 광복이후에야 고향을 찾는 사람들도 많았다.

3. 시점과 서술

소설에서 시점과 서술의 문제는, 이야기가 독자에게 직접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전달된다는 사실에서 생겨난다.78) 소설의 전달 상황에서, 누가 <보고>

76) 상계서, p 125

77) 강만길(1993), 『한국현대사』, 창작과비평사, pp 36~37

어떻게 <서술>했느냐가 바로 시점과 서술방식의 문제이다. 시점에 의해 포착된 내용은 서술자의 개성적인 언어로 서술되며, 따라서 시점과 서술이 서로 연관된 전달방식에 관심이 모아진다. 시점은 사건을 바라보는 행위이므로 이야기 내부의 <인물>과 외부의 <화자>에 의해 가능하지만, 서술은 독자를 향한 행위이므로 이야기 외부의 <화자>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

시점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것은 대상을 보는 작가의 시선과 관점이 그 시점 행위 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브룩스와 워렌에 따르면 시점은 작가의 시각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의 넷으로 나누어진다⁷⁸⁾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인공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시점을 말한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소설에 참여하는 부수적인 인물이 주인공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기법이다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은 작가가 외부적인 관찰자의 위치에서 작품을 서술하는 방법으로서, 흔히 3인칭 시점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전지적 작가시점은 전지전능한 신의 위치에서 자유자재로 인생이나 역사적 삶을 투시하고 형상화하는 시점이다 가장 전통적인 시점으로 ‘올림푸스(olympus)적 시점’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시점 분석을 통해서 작가의 고향에 대한 관점과 시각이 보다 명료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1) 1인칭 관찰자의 시선 — 현진건의 「고향」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열차간에서 만난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나’가 독자에게 전한다. 그러다가 차츰 등장인물로 개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화자 ‘나’와 청년, 그리고 그 청년이 살아왔던 세계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면서 작품의 의미가 구체화된다 이러한 ‘나’의 변모가 이 소설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큰 몫을 한다. 즉 상황론에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살아온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에 이

78) 조정래·나병철(1991), 『소설이란 무엇인가』, 평민사, pp 146~148.

79) 구인환(1997), 『소설론』, 삼지원, p.239.

르게 된다 그렇다면 이 소설의 주인공은 그 사내가 아니라 어쩌면 '나'인지도 모른다. 서술자인 관찰자의, 서술 대상에 대한 객관성의 기초가 훨씬 견실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문체와 톤도 매우 절제된 것이어서 르포르타지 성격이 훨씬 강화되어 있다.

액자기법을 사용하여 내부 이야기 속에 액자 행동의 표현과 내부의 서술내용이 지닌 과거가 계속 교차되어 나가는 구성방법과 중단에 의한 서술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중단은 소설의 총체적 효과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 즉 고백하는 주인공의 태도와 청자에게 서술내용이 주는 영향의 묘사 또는 충격을 배려함이며 허구적 청자뿐만 아니라 실제의 독자에게도 긴장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다.

·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 한다.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탄식하였다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무원기요 고향이 통 없어졌드마.”

“그렇겠지요, 구년동안이면 펴 변했겠지요.”

“변하고 무어고 간에 아모것도 없드마.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마리도
얼씬을 얹트마”

“그러면 아주 폐동이 되었던 말씀이오?”

(중략)

“까닭이라니?”

“나와 혼인말이 있던 여자구마”

하--”

나는 놀란 듯이 벌린 입이 담쳐지지 않았다

“그 신세도 내 신세만이나 하고나”

하고 그는 또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80)

내부 이야기를 하나의 삼화적 형태로 위축시키면서 액자행동이 확장됨으로써 액자가 하나의 독립된 소설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81)

80) 현진건, 전계서, p513.

그리고 두 사람간의 상호문답으로 서술이 보행적 시간 단축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시망가면 무슨 일자리를 구하겠는지요?”라고 그는 매어달리는듯이 또 재쳤다.

“글쎄요, 무슨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는지요.”

나는 그 대답이 너무 냉랭하고 불친절한 것이 죄송스러웠다. …… 그 대신 나는 은근히 물었다

“어데서 오시는 걸입니까?”

“홍, 고향에서 오누마” 하고 그는 휘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그의 신세타령의 실마리는 풀려 나왔다 82)

주인물의 외양묘사를 직접적인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보여줌으로써 그가 살아온 인생역정과 시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두루마기 격으로 기모노를 들렀고, 그 안에서 옥양목 저고리가 내어 보이며 아랫도리엔 중국식 바지를 입었다. 그것은 그네들이 흔히 입은 유지 모양으로 번질 번질한 암갈색 피륙으로 지은 것이다. 그리고 발은 감발을 하였는데 짚신을 신었고, 고무가리로 짝은 머리엔 모자도 쓰지 않았다. 우연히 이따금 기묘한 모임을 꾸민 것이다. 83)

내부 이야기가 3인칭으로 되었다고 할지라도, “모친겨정 돌아갔구마. 돌아가실 때 흰죽 한 모금도 못 자셨구마.” 같은 주인공 자신의 생의 내력에 대한 고백이 일인칭으로 제시되는 부분이 개입됨으로써 이중의 인물시점의 서술법이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비참한 삶을 생생한 경험을 그대로 전해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액자서술을 보여줌으로써 액자부분의 화자인 “나”가 내부이야기의 주체인 “그”의 고백을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보여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시점과

81) 이재선(1982), 『한국단편소설연구』, 일조각, p.145.

82) 상계서, p.510.

83) 상계서, p.508.

서술 효과는 목격자의 증언형태를 뚫으로써 식민지 상황하의 고향의 모습과 뿌리 뽑힌 자의 비애를 폭로하고 고발하는데 적절하다.

(2) 선택적 전지자의 시선 —이태준의 「고향」

이 소설은 3인칭 선택적 전지 시점을 주시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초점의 대상이 되는 한 인물을 초점화하여 기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김윤건의 생각을 통해서 지식인의 분노와 좌절을 실감나게 전할 수가 있다. 인물시점 서술로 표현하여 단문과 장문을 조화 있게 사용하고 있다. 식민지의 참담한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면서도 간결한 문장으로 서술하고 있다. 현실의 암울한 처지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시간의 역전을 보이고 있고 발단에서의 분위기가 사건 전개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있으며 결말 처리까지도 짐작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둠도 조선인의 앞에 놓인 암담한 현실을 나타내주고 있다.

‘육 년 만이로구나……모레 아침에는 오랜간만에 조선산을 바라보겠구나……’

김윤건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몇 번이나 눈을 감았으나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선듯하는 유리창에 이마와 코끝을 대이고 바깥을 내다 보았으나 어둠에 차인 별판에는 아무것도 분별하여 보이지 않았다. 도로 자리에 바로앉아 책을 집어내었으나 그것도 몇 줄 읽지 못하고 덮어놓고 말았다.

그는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장에 나가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렇게 궁리가 많았다.⁸⁴⁾

김윤건의 성격은 생각과 대화의 행동에 의존하여 표현되고 있고 소극적이고 현실안주적 지식인의 모습도 대화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화는 간접제시의 일종으로 대화 주체의 의식과 인식논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서술방식이다. 특히 이 소설 속에서 대화방식은 당대 지식인들의 현실인식과 민족관 등을 사실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일제의 침탈로 사이비 지식인과 변절자들만 우대를 받는 모순된 고향 혹은

84) 이태준, 전계서, p.7.

조국의 현실상황을 고발하는 데 역설적 의미를 갖는다. 즉 절망적인 시대상황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하로를 갖자. 구복에만 충실한 개의 십년은 나는 싫다. 사람의 하로를 갖자’ ‘그럴 것이다 오죽한 것들이 남아 있으랴’ “오늘 저녁에 저녁을 굶는 놈이 나뿐이나? 아니다! 오늘 저녁에 한데서 밤을 샐 놈이 나뿐이나? 아니다! 이곳엔 너무나 그런 사람이 많다. 나도 이 땅에 태어났으면 이 땅 사람이 당하는 꼴세를 달게받자”

“이놈아, 입만 가지고 네 이놈, 네 후진들은 모조리 감옥으로 갔는데 너는 떠들기는 온통 떠드는 놈이 어캐 오늘까지 남아있니?”

윤건은 그 방에서도 얼른 나와버렸다. 그리고 운동장을 나와 거닐다가 그도 모교를 찾아온 동창생 한 명을 만났다.

“오래간만일세.”

“참 오래간만일세 자네도 동경 있지 않았나?”

“아냐, 중간에 병으로 일 년 놀았어…… 그래 나도 나온지 며칠 안되네, 그래 어데 정했나?”

“무얼?”

“취직 말일세.”

윤건은 속으로 ‘이건 모다 취직밖에 모르나 일본사회나 무에 다르게?’ 하였다.

“아니 자넨 정했나, 자넨 미술학교지?”

“그럼……어쩌면 평양으로 갈 듯하이 도화선생이란 보다 시간교사니까 몇 푼 되야지…… 큰일났네.”

“그게 큰일인가?”

“아 그럼, 이사람 남들은 백여 원짜리로 퍽퍽 나가 앉았는데……강군 만나봤나?”

“강군이라니……?”

“강XX군 말야. 여기 와 있네. 작년에 고사를 마치고 모교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네. 지금 시간에 들어갔나 보이. 백 이십 원씩 또박또박 받네.”⁸⁵⁾

대화 속에서 이 시대 지식인의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지식인으로서

85) 상계서, p.17.

조국의 식민지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개인적인 영달과 현실의 이익으로 돈을 더 많이 벌고자 하는 자본주의적인 생각들로 가득하다. 그리고 식민지화에 순응한 사람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3) 3인칭 전지작가의 시선 —이기영의 「고향」

이 작품의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이다. 화자시점 서술과 주석적 서술이 혼용되고 있다. 많은 인물과 에피소드를 동원하여 농민의 생활상과 사고방식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① 수십 호 되는 소작인의 집은 뉘 집이나 모두 그렇지만 인순이 집도 한낮이 되면 별을 피할 곳이 없었다. 감나무 밑에 별이 들면 부엌 그늘이 겨우 어린아이의 포대기만큼 가리는 데 동남향인 까닭에 거기도 부득부득 햇별이 꿈무늬를 더 밀었다.⁸⁶⁾

작년 가을에 새로 갈려 온 마름 안승학은 사랑마루에 동의자를 놓고 비스듬히 누워서 부채질을 슬슬 하며 매미 소리를 서늘하게 듣고 있었다.⁸⁷⁾

② 내일부터 두레를 나서게 되었는데 안승학이도 저녁을 먹고 나와서 구경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 눈부터 매달라는 부탁을 자청해서 말하였다. 그래 회준이의 발론으로 그를 '좌상'으로 치켜올리고 회준이는 '공원'이 되었다.

농악을 자진가락으로 북아치자 구경꾼들은 쇠잡이들을 몇 겹으로 둘러쌌다. 막둥이, 인동이 등 소동 축들은 바쿠잡이 놀음을 하고 뛰놀았다

덕칠이, 박 서방, 월성이, 백룡이 들은 패랭이 위로 상모를 돌리며 소고를 들고 곧댓짓을 하면서 개구리 뿔을 하며 뒷걸음질을 쳤다. 그 가운데로 쇠득이는 검은 장삼을 입고 너울거리며 춤을 추었다

「좋다! 버꾸야!……」

86) 이기영, 전계서, p.34

87) 상계서, p.35.

희준이는 잡이손 속에서 짐을 치며 돌아다녔다. 이 바람에 김 선달도 신명이 나서 '부쇠'앞 에 마주 돌아서서 발을 굴러 가며 자진가락을 넘기었다.

이튿날 아침에 집집마다 한 명씩 나선 두레꾼들은 농기를 앞세우고 안송학의 구레논부터 김을 매었다

「깡무깡깡, 깡무깡깡, 깡무깡, 깡무깡깡……」

아침해가 뿌주름히 솟을 무렵에 이슬은 함함하게 풀 끝에 맺히고 시원한 바람이 산들산들 내 건너 저편으로 불어온다 깃발이 펄펄 날린다- 장잎을 내뺏은 벼 포기 위로는 일면으로 퍼-렇게 푸른 물결이 금실거린다.

그들은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이고 꿈무니에는 일제히 호미를 찼다. 쇠코 잠방이 위에 등걸이만 걸치고 허벅다리까지 드러난 장판지가 개구리를 잡아먹은 뱀의 배처럼 불쑥 나온 다리로 이슬 엉긴 논두렁 사이를 일렬로 늘어서서 걸어간다. 그 중에는 희준이의 하얀 다리도 섞여서 따라갔다 88)

①은 별과 그들의 이항대립적 의미 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곧 소작인과 마름의 삶을 대조적으로 표현하여 곤혹스럽게 삶을 유지하는 소작인과 안락하게 삶을 살아가는 마름의 입장 대비가 선명하게 부각되는 대목이다. 이 대목은 단순한 '설명'과는 대조적인 사실적 '묘사'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②는 이 작품에서 가장 실감나게 묘사된 장면 중의 하나로 두레를 통하여 농민들은 궁핍의 가속화에서 오는 각박한 인심, 숙명론적 인생관, 이기주의, 전통적인 보수 성향 등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농민들은 그들의 본래적 속성인 소박성과 건강성을 회복하게 된다.

계급 의식에 바탕을 둔 이 소설은 자본주의 전기 농촌 환경과 그 속에 움직이는 인물들의 가는 길을 너무나 사실대로 그렸으며 더구나 그들의 언어, 그들의 생활, 그들의 기질 풍속까지를 그대로 표현하여 농민 생활을 총체적으로 잘 표현해내고 있다.

희준이가 동경에서 나오던 그날 저녁때 윈터 동리는 별안간 발각 뒤집혔었다.

88) 상계서, p 262.

동리 개는 있는 대로 다 나와 짓고 닭이 풍기고 돼지가 꿀꿀거리고 송아지가 네
굽을 놓고 뛰며 어미소를 불렀다

-(중략)-

그런데 웬일이냐? 그들은 회준의 행장이 너무나 초라한 데 그만 놀랐다. 그들
의 생각에는 그도 좋은 양복에 금테 안경을 쓰고 금시계줄을 늘이고 그리고 짐꾼
에게는 부담을 잔뜩 지워 가지고 호기 있게 들어 올 줄 알았다 그것은 그들뿐 아
니라 회준의 모친과 그의 아내까지도- 89)

이 부분은 김희준이 귀향하는 장면을 묘사한 부분이다 '직접 한정'이 아닌 '간접 제
시'의 방식으로 김희준의 귀향 장면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서술자의 직접적인 논
평을 절제하고 작중인물에 대한 굴절된 객관적 묘사를 통해 인물을 창조하고 있다. "회
준이가 동경에서 나오던 그 날 ……어미소를 불렀다."라는 서술은 서술자의 객관적인
외부 관점을 통해 회준의 귀향이 대단한 사건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데 웬
일이냐?……그의 안해까지도-"에서는 마을사람들을 시점자로 택하여 그의 귀향이 단
지 평범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려 준다. 그와 동시에 이 서술은 마을사람들이 다분
히 속물주의적 의식에 젖어 있다는 것까지도 환기시킨다. 이렇게 보면 이 대목이 시사
하는 바를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주인공 김희준 역시 이상화된 성격부여의 방식을 탈피하여 "현실의 모순을 좀
더 천착하여 형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인물로 그려졌다는 점이다.⁸⁹⁾ 앞의
인용문에서 "그런데 웬일이냐?"라는 문장이 분할하고 있는 전후 문맥의 상반된 의미
관계는 곧 모순성으로 집약된다. 그래서 김희준은 완결된 인물이 아닌 모순 그 자체의
인물이다. 이는 모순된 환경과 상호 교섭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영웅적
인물은 환경을 극복할 만한 능력이 이미 주어진 것이어서 소설적 긴장 관계를 유지하
기가 어렵지만 그의 경우는 처음부터 모순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형적 현실 상
황과 융화할 수 있는 인물이 된 것이다

89) 상계서, p 47

90) 서경석, "리얼리즘 소설의 형성", 김윤식·정호웅(1989), 『한국 리얼리즘소설연구』, 문학
과 비평사, p 181

둘째, 마을 사람들의 시각을 통해 김회준을 성격화하는 가운데 농민들의 이기적인 성격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이는 농민들을 세속인의 한 부류로 파악하는 객관적 의식의 결과이다. 프로문학 소설에서 흔히 나타나는 도식화된 경향 중의 하나는 농민을 고정된 실체, 혹은 지순한 존재로만 간주하는 단선적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은 초계급적 태도를 절충주의, 또는 개량주의로 평가 절하하고 ‘프롤레타리아의 전위의 태도’만을 강조하는 경직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⁹¹⁾

이와 같이 불안한 공기 속에서 원칠이는 가마니에 벼를 퍼붓기 시작하였다. 십여 개의 가마니들은 나도 나도 하고 차례로 입을 벌리었다.

맨 나중 섬까지 퍼담고서 가마니를 묶을 때는 마치 죽은 사람을 하관(下棺)하고 칠성판을 덮을 때처럼 애달픈 생각을 갖게 한다 과연 이 벼는 죽은 사람이 땅속으로 영구히 파묻히듯이 자기네 앞을 떠나갈 것이 아닌가?⁹²⁾

위의 인용문은 ‘풍년’의 한 대목인데 소제목이 암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그 불안하고 참담한 분위기는 교묘하게 원칠의 심리가 투영되면서 실감을 더해주고 있다. 서술자의 서술이 작중인물의 의식 경험을 다루면서 양자의 거리를 최대한으로 단축하여 인물의 경험을 증폭시켜 주는 것이다. 그 경험이란 수확의 막연한 기쁨에 앞서 소작료와 부채를 걱정해야 하는 소작인의 불안 심리를 말한다 이처럼 작가는 서술자의 시점을 농민의 의식 속에 끌어들이므로 농촌 생산구조의 모순성을 생동감있게 형상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일화, 연설, 이야기체 세 가지 서술방식을 통해 이뤄진다.

일화에 대한 부분은 작가가 특정인물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원리는 농민 모두가 중요인물로 다뤄져 그들의 일상에서 일어난 자질구레한 사건들이 소설

91) 김기진, “변증법적 사실주의-양식 문제에 대한 초고”(《동아일보》, 1929. 3. 7); 백성우 (1996), “이기영 농민소설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98에서 재인용.

김기진은 프로 작가가 취하여야 할 입각점은 초계급적 태도가 아닌 오직 프롤레타리아의 전위의 태도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프롤레타리아 전위만이 현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그 전체 중에서, 그 발전상에서, 전체와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파악하는 유일한 계급”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92) 이기영, 전계서, p 403

의 진행 순서와 상관하지 않은 채 서술되고 있다. 그리하여 농민 2세들의 건강하고 발달한 애정에 관한 사건과 명절, 싸움, 결혼식 등이 제각각 형상화되고 있다. '이리의 마음' 편에서 두 과부가 서로 할퀴고 싸우는 장면이나 인동-막동-방개의 삼각관계 그리고 인동의 결혼식, 조흔과 추석, 경호의 출생 비밀 등이 모두 삽화적 장면 처리 방법으로 설정되고 있다.

다음으로 연설 혹은 토론 방식을 특징으로 들 수 있는데, 작가는 주제의식을 드러내거나 역사지식에 대한 열거나 해설, 교훈적 논평, 봉건과 일제에 대한 비판 등을 나타내하고자 할 때 작가가 직접 참여하는 목소리를 웅변이나 연설, 토론의 방식으로 서술된다. '청년회와 두레'가 이에 해당된다. 작가가 자신들의 신념을 연설의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은 신소설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연설은 '플롯이나 성격 제시의 기능보다는 이념 제시의 면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련된 기법은 아니지만 삽화가 주는 산만함을 보완하여 작가의 명확한 주제의식과 현실인식, 역사의식을 제시하는데 유효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야기체 형식이다. 물론 모든 소설은 이야기이며, 소설은 이야기를 구성화한 것이지만 이기영의 소설 방식은 옛날 이야기를 하듯이 전개된 부분이 많다. 출세담이나 경호의 출신을 밝히는 과정에서 작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쉽게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했으며 때로는 직접 작가가 화자로 등장하고 있어 내적 형식의 파탄을 초래할 가능성이 보인다.

작가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십여 세부터 고대소설을 읽었으며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웃사람이 백지 두 권을 사놓고 '조웅전'을 베껴달라는 부탁을 받고부터 고대소설을 탐독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후에도 조모가 이야기책을 즐기기 때문에 그 앞에서 '사씨남정기'를 읽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즉 그의 문학적 수업은 고대소설의 탐닉에서 시작되었으며 등사까지 할 정도로 자세히 읽었기 때문에 그의 작품 속에는 민요, 풍속 등과 함께 이야기체 옛날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어 민중 문학적 특성으로 자리잡게 된다. 다양한 사건을 펼쳐놓고 서로 무관한 듯이 생각되던 모든 일들이 끝에 가서 소작쟁의와 공장 파업과 같은 중요한 사건으로 한꺼번에 모아지는 특

정을 보인다. 이는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사건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대의 본질적 의미를 깨닫게 만드는 구실을 한다. 즉, 식민지 농촌의 다양한 생활 현상에 대한 자연주의적 묘사 속에 식민지사회의 본질적 모순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담아낸 것이다⁹³⁾

이렇듯,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과 서술, 주석적 서술방법, 그리고 일화, 연설, 이야기체 서술방식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식민지 시대 고향의 농촌현실을 생동감있게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결국, 이 소설은 식민지 시대 고향의 당대 현실을 적나라하게 증언하고 고발하기 위한 시점과 서술을 선택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작가의 눈에 비친 고향은 무지에서 본질을 깨닫는 공간으로 보여지고 있다.

(4) 3인칭 작가 관찰자의 시선 — 박화성의 「고향 없는 사람들」

이 작품의 서술 시점은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이다. 작가 관찰자가 오감을 통해 보이는 대로 써나간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시간순서에 의해 서술되고 있으며 서두에 이민(移民)노래를 소개함으로써 앞으로의 상황과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삼통이, 인제 우리는 정말 죽어서 저승에 가서나 만나 보겠네. 자네나 내나 더욱 좋은 일만 하세 좋은 일을 하면 극락에 간다고 않는가? 둘이 다 극락에를 못 가겠거든 차라리 똑같이 지옥에나 가세. 고향에서 쫓겨나는 우리 같은 놈들에게 남은 것이 악뿐일 텐데 어찌 좋은 일을 해보겠는가? 자네나 내나 몸만 성하면 혹시 어느 하늘 밑에서 또 모이게 될지 누가 알 것인가?

할 말은 태산같이 세고 썰네마는 가슴이 답답하여 더 못 쓰겠네. 떠나기 전에 자네 답장 받아 보도록 편지나 한 장 해주게.⁹⁴⁾

자네의 만지장서를 받고 나는 그냥 회사로 쫓아가서 모레 떠나기로 한 귀향사건을 중지하고 말았네 내가 가지 않기로 하니 동무들도 다 아니 가기로 했네

자네는 고향을 떠나는 사람을 보고 죽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마는 우리는

93) 김성수, "이기영", 황폐장 외(2000), 『한국문학작가론4』, 집문당, p.161

94) 박화성(1977), 전계서, p.487.

죽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차고 부정한 고향을 박차 버리고 나오는 영웅이라고 생각하네 95)

두 사람의 주고 받는 편지의 형식을 이용하여 불암리와 강서 두 지역의 실정을 걱정하면서 가뭄과 비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해 고향상실로 이어지고 있고 이항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상대방들을 걱정해주고 있는 따뜻한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의 단축기법을 사용하여 서사를 빨리 진행시키고 있다.

다음은 떠나는 사람들의 행장을 묘사함으로써 독자에게 비참한 삶의 흔적을 생동감 있게 제시해주고 있어 가난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작고 퇴색한 검은 보에다가 터지도록 싸놓은 침구의 양 귀퉁이가 삐죽하게 나와서 남루한 물결을 보이고 있고 참기름이나 피마자기름 병인 듯한 맥주병이 가득이나 작은 보자기에 얽치없이 끼워있었다 물에 담갔다가 정하게 씻었으려면 그 보람도 없이 시커멓게 그을린 대석작(아마 그 속에는 사발, 접시, 이런 것들이 들어있겠지) 위에와 옆에는 크고 작은 바가지를 엮어서 새끼로 놓였고 거의 다 떨어진 부담 상자와 농작들도 각각 수하물 행세를 하느라고 먼 이튿날과 성명을 적은 꼬리표를 달고 있었다 96)

이러한 시점과 서술은 객관적 서술(3인칭 관찰자 서술)과 주관적 고백(편지)을 혼용하여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설득력 있게 보여 주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들에게 고향은 식민통치에 의한 극한적 빈곤 상황과 그 위에 가해진 자연재해(가뭄)에 의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들의 삶의 공간인 고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처지를 보여준다

(5) 3인칭 전지작가의 시선 —이근영의 「고향 사람들」

이 작품의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마을 사람들의 행동 하나 하나를 표

95) 상계서, p.487

96) 상계서, p.470.

현해주면서 상황에 따라 변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로 점쇠를 초점으로 하여 당시 하층민의 삶이나 소원 등을 알 수 있고 서두의 낙관적인 분위기를 화자시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겨울 내내 눈 한 잎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고, 강추위만 계속되다가, 며칠 전 눈이 한 자 가량이나 쌓이게 되고 바로 비가 이틀 동안이나 주룩주룩 퍼부었다. 그러잖아도 병자년 흉년보다 더 지독한 해를 겪는 그들은, 눈만 뜨면 하늘을 바라 보고 마음 졸이는 것이 그날 그날의 일처럼 되었다. 이렇게 초조한 그들이 눈과 비를 흠뻑 받았으니 집마다 경사나 치른 듯이 웃음결이 떠올랐다. 눈 쌓인 위에 비가 와서 길이란 길은 발목까지 푹푹 빠지건만 사람들은 밖에 나오는 것이 하늘에 대한 인사나 되는 듯이 골목마다 사람으로 붐비었다.⁹⁷⁾

서술과 대화를 통해서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요약서술로 차분히 서두르지 않고 진행해 가고 있다. 간접적 내적 독백과 심리 묘사를 보여주고 있으며 과거의 회상을 통해서 사건을 설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간접제시를 통해 작중인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점쇠는 죽자 하고 이야기들 더 계속하지 않았다. 점쇠가 퀘짜 속에 든 채 바다를 건너가려고까지 하게 된 동기는, 흥생원처럼 돈벌겠다는 욕심만은 아니었다. 남의 집 머슴살이만으로는 늙도록 가야 집 한 칸 생길 것 같지 않으니, 달리 변통하자매 조선을 뜨는 것이 술 것 같았다. 그리고 삼년 전에 그와 정이 들었던 화선이 대판 조선 술집으로 팔려 간 후부터는 항상 그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목구멍까지 치미는 것이었다.⁹⁸⁾

시간적 순서에 의한 서술을 하다가 과거 소급기법과 내면을 나타내어 주인공의 행동에 당위성과 점쇠의 희망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은 이 사람이 내지 시찰단에 끼여서 대판에 들렀을 때 화선이 있는 술집을

97) 이근영(1943), 전계서, p 116

98) 상계서, p 124

찾아갔다 색시가 열 명이나 득세기고 상술집으론 상당히 컸다. 화선이가 그를 만나자 고향 사람이라서 반가워하긴 했으나 이편에서 점쇠 이야길 내놓았어도 그리 달갑게 여기지는 않았다 99)

화자시점서술로 점쇠가 일본으로 갈려는 이유중 대부분이 화선이를 만나기 위함이나 주사가 일본에서 만나고서도 점쇠가 실망이 클 것 같아 얘기를 하지 않았다 점쇠의 희망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회박해 보인다. 전지적 시점으로 점쇠의 생각에 절대적으로 화선이가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4. 주제

소설은 작가가 소재를 통해 주제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작업이다. 소설의 주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와 ‘바람직한 인생이란 어떤 모습인가?’의 범주 속에 내포되어 나타난다 100) 여기서 전자는 인간의 본질이나 본성의 탐구에 머물고, 후자는 주어진 역사 현장 속에서 주인공의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이나 삶의 조건 등을 고발하고 폭로하면서 낙원의식을 지향하는 이야기가 된다. 김동리는 주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소설에서 말하는 주제란 테마의 역어(譯語)다. 소설가가 한편의 소설을 만들기 위하여 소재를 다루어 나가는 통일원리(統一原理)를 의미한다 더 쉽게 말하면, 작가가 어떤 소재에 대하여 느낀 ‘인생의 의미’를 구체화시킨 것이다. 101)

그러므로 어떤 소재에 대하여 작가가 어떤 해석을 내리고 있으며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곧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주제 발견 방법은 등장 인물, 갈등 상황, 배경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인물을 통한 주제 발견은 그들이 어떤 성격 유형의 인물인가, 그들의 언어, 성격, 생활상, 가치

99) 상계서, p 126

100) 구인환(1982), 전계서, p 174.

101) 김동리(1965), “주제란 무엇인가?”, 김동리 외 『소설작법』, p.23. 구인환(1997), 『소설론』, 삼지원, p 323에서 재인용

관, 욕망 구조 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갈등 상황을 통한 주제 발견은 그 소설의 갈등구조와 유형 등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다. 배경을 통한 주제 발견에서는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역사적 시대 환경을 통해서 보여 줌으로써 주제를 암시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1) 고향상실과 비극적 떠돌이의 삶 — 현진건의 「고향」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에 이농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에 씌여진 것으로 한국인의 비참한 삶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두드러진 개성이나 극적인 흥미를 자아내는 사건은 없으나, 장면의 상징적 설정, 인물의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묘사, 치밀한 구성 등이 돋보인다.

넉넉지는 못할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로 들어가고 말았다. 직접으로 회사에 소작료(小作料)를 바치거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오려만는, 소위 중간 소작인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저는 흠 한 번 만져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지주(地主) 행세를 하게 되었다. 동척에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굶히고 보니, 실작인의 소출(所出)의 삼할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후로 '죽겠다' '못살겠다' 하는 소리는 중이 염불하듯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남부여대(男負女戴)하고 타처로 유리하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진해다.¹⁰²⁾

192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식민지 경제 수탈로 농토를 상실하면서 농촌의 궁핍화는 극심해지고 있었다. 식민지 경제 수탈은 일본의 항구적인 식량 공급기지로 만들고 더 나아가 조선에서의 중소지주, 자작농, 자소작농 농촌 중간층의 성장을 억제하고 농촌사회를 일본인 및 조선인 대지주와 소작인으로 양분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농민들은 소작인으로 전락하게 되어 농촌의 궁핍화는 당시 우리 민족의 대부분이 농민이었기 때문에 곧 우리 민족 전체의 궁핍화였다. 농민이라는 신분이 식민지 경제

102) 현진건, 전계서, P 511

수탈 정책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로 간도 및 일본으로 유랑하게 된다.

남의 밀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주먹뿐이었다
이때 동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티어 갈 제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 타국의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열 아홉 살밖에 안 된 그가 홀어머니를 모
시고 악으로 악으로 모진 복수를 이어가던 중, 사년이 못되어 영양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중략)

그후 그는 부모 잃은 땅에 오래 머물기 싫었다. 신의주로, 안동현으로 몸을 팔
다가 일본으로 또 벌이를 찾아가게 되었다. 구주 탄광에 있어도 보고, 대관철공장
에도 몸을 담아보았다. 벌이는 조금 나왔으나 외롭고 젊은 몸은 자연히 방탕해졌
다 103)

힘들게 살아오면서도 고향을 잊을 수 없어 찾아갔으나 폐허가 된 고향과 더불어 가
슴을 아프게 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일제에 의해 폐인이 된 그녀와의 만남이었다 그
와 그녀의 인생 고난은 자기 자신보다는 사회적인 제도로 인해 초래된 것이 분명한 사
실이다. 그러므로 이 소설의 주제는 일제의 침략으로 인한 한국 민족의 비참한 고향상
실과 방랑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

(2) 지식인의 현실 타협과 모순된 삶 —이태준의 「고향」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의 암담한 상황 속에서 지식인들의 현실 타협과 지식인들의
모순된 삶을 고발하고 있다. 일제 식민통치제도 속에서 신음한 민중을 무시한 채 일신
상의 영달만을 위해 살아가는 부도덕한 지식인의 행태와 지식인으로서 무능력을 지적
하고 있다

윤건은 강××군을 지금 교장선생으로 있는 수학선생과 아울러 야릇한 기억에

103) 상계서, P.421.

서 찾아낼 수 있었다. 동맹휴학 때 스파이질을 하고 윤건의 주먹에 단단히 얻어걸리어 여러 반우들 앞에서 울면서 사과장을 쓰던 강××군이다.

윤건은 슬취한 사람처럼 얼굴이 붉어졌다 흥분하였다. 강××군이나, 마××나, 배××나, 일본 동해도선에서 만났던 ××은행 같은 것들은 천 명 아니라 만 명이 눈앞에 닥들려도 그까짓 것들은 자개돌밭을 밟고 나가듯 문질러 나가고 멸시하고 침뱉으리라고 결심한 것이다.¹⁰⁴⁾

김윤건은 항상 마음 속에 용기를 내면서 살아갈 힘이 되어준 곳은 조선이었다. 이곳은 꿈과 동경의 대상이며 동시에 구체적 현실이 아닌 기억 속에 새겨진 관념적 공간이었다 따라서 그가 조선에 돌아온 후 참담한 현실에 분노하고 흥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동족의 아픔을 모른 채 현실에 저항하기보다는 안이하게 현실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지식인에 절망하고 있다. 지식인으로서의 올바른 행동을 찾기보다는 흥분과 좌절로 주먹만 휘둘러 지식인과 농민과의 차이점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인간이하의 삶을 영위하면서 학구열에 정열을 바치고 귀향해서 참다운 지식인으로서의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 분투하는 지식인의 참모습, 일제의 특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지식인의 올바른 모습을 제시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소설의 주제는 일제식민통치하의 지식인의 부조리한 현실과의 타협과 모순 고발이라고 할 수 있다

(3) 농촌의 계층 분해 양상과 극단적인 궁핍 현실 — 이기영의 「고향」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의 사회구조적 모순을 장편의 형식으로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소설이다. 일제 주도하의 파행적 자본주의 사회가 야기하는 궁핍한 한국 농민의 실상을 폭로하고 소작쟁의, 공장파업, 노농동맹으로 이어지는 적극적인 현실대응 양상은 당대 사회의 문제의식을 리얼리즘 기법으로 보여주면서 독자들에게 바람직한 인간상과 역사의식의 회복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04) 이태준, 전계서, P.17.

원칙이는 십여 년 전만 해도 논섬지거나 농사를 짓고 큰 소를 먹이기까지 했는데 어느 해 흉년이 든데다가 그해 겨울에 친상을 당하게 되자 상채를 몇 십 원 지기도 했지만 그 뒤로 웬일인지 형세가 차차 즐기 시작하더니 어느 틈에 지금과 같이 가난뱅이로 떨어지고 말았다

집안이 치패해 가는 꼴을 본 인동이는 보통학교 이 학년을 중도에 퇴학하고 부친과 힘을 합하여 농사를 약발리 지었다 그래서 집안 형편은 갈수록 가난을 파고들 뿐이었다 105)

토지조사사업은 지주제를 강화하여 보호하는 대신 자작농 및 자소작농을 몰락시켜 소작인으로, 더 나아가서 이농민으로 만들었다. 자작농 및 자소작농의 몰락은 농촌인구를 지주와 소작인의 두 계층으로 고정시켜 농촌 부르조아지의 성장을 저지했다. 산미 증식계획은 조선에서의 식량 증산을 감행하여 식량의 안정된 공급을 도모하고, 토지의 개량 및 개간을 위한 계획이었다. 증가된 조선 쌀은 일본으로 반출되어 식량문제는 해결했지만, 일본쌀의 가격 하락은 조선 농민들에게도 절대적이고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그래서 농민 경제는 궁핍의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를 헐 값에 방매하고, 토지 소유를 상실한 농민은 소작농으로 전락하여 술지게미로 겨우 연명을 할 정도로 극도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래 장터 영생 양조소(永生釀造所) 문 앞 광장에는 오늘도 남녀노소의 군중이 몇 겹으로 둘러서서 목을 길게 빼두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제가 꿈 빈 그릇을 들고 있다. 누루뚱뚱한 얼굴에 초라한 의복으로 간신히 살을 가리고 있는 그들은 흉년을 만난 피난민을 방블케 한다. 사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 106)

게다가 철도, 제사공장, 우편제도 등 근대화가 추진되면서 문물의 이기로 생활의 편리는 가져오나 농민들에게는 상대적인 빈곤감만 더 느끼게 한다.

유 선달은 대서를 해서 부자가 되었다. 장거리에 있는 권상철은 포목상을 보아

105) 이기영(1994), 전계서, p.90.

106) 상계서, p.83.

서 돈을 모았다 그외에도 운송점을 하여서 치부한 사람! 음식점을 해서 치부한 사람! 황아전을 보아서 치부한 사람!……대금업을 해서 치부한 사람! 제 바닥에 살던 조선 사람도 이렇게 되었으니 약빠른 타관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은가.¹⁰⁷⁾

아전의 자식이나 친일파는 신개지의 발전에 관심을 두어 부유한 삶을 누렸지만 소작농의 생활은 근대화의 영향으로 빈곤만 가중시켜 궁핍한 살림살이는 나아질 줄을 몰랐다.

김희준은 몰락한 중간층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소작농으로 전락한 동경 유학생출신인 지식인이다. 뒤떨어진 조선 농촌의 현실을 하루라도 빨리 바꾸기를 바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그가 고향의 농민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농민들과 일체가 되어간다. 두레를 계기로 농민들이 하나로 합치게 된다. 수해가 나면서 소작료 탕감을 요구하는 소작인과 마름사이에 갈등이 생겨 소작쟁의를 벌이게 된다. 집안의 약점을 이용한 승리는 분명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소설의 주제는 식민지에서 농촌의 계층 분해 양상과 그로 인한 극도로 궁핍한 현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다.

(4) 고향상실로 인한 유이민의 비극적 삶 —박화성의 「고향 없는 사람들」

이 작품은 자연재해와 일제의 식민지정책으로 인한 농촌의 황폐화로 발생하게 되는 우리 민족의 이향 문제를 형상화한 것이다. 농민들의 재난과 탈향(脫鄕)을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조국을 잃어버린 한민족의 민족적 수난의 차원으로 확대하고, 동시에 새로운 전망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니 지금 삼룡의 눈앞에 열려 있는 강서농장의 박답이 고향의 옥토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었다. 바다를 막고 원을 쳐서 눈을 이룬 이 농장은 볼품이야 하다 릿별만큼 넓고 크지마는 해기(海氣) 나고 간수가 피어서 파종을 두 번이나 했건만 반의 반도 못 건졌고 이종도 몇 번씩 했건만 뿌리째 간물에 녹아져 버렸다.¹⁰⁸⁾

107) 상계서, p.113.

일제의 식민지 정책인 토지조사사업에서 경작권을 박탈 당한 다수의 농민들은 궁핍에 몰리고 미곡 증산으로 쌀의 수탈이 강화되어 이중으로 곤경에 처한다. 게다가 자연재해까지 겹쳐 고향은 그야말로 폐허인 상태이다. 가뭄과 홍수에서 농토와 집을 잃은 사람들을 탄광이나 농토를 개척한다는 이유로 먼 타향에 강제로 이주시켰다. 논 스무마지기와 소와 농사기계를 받기로 약속 받고 옮겨갔다. 막상 가본 그 곳은 집도 형편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농기구들과 물건값들이 농장의 뒷거래로 인해 너무 비싸 고향에서보다 더 살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논이란 것도 바다를 메워 이룬 것이기 때문에 간수가 피어서 파종을 해도 모가 자라지 못하는 최악의 곳이었다.

오삼룡을 포함한 이주민들은 전형적인 농민들로 현실이 비참하기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깊어만 간다. 그래서 그들은 강서 농장에서 살 수 없다며 고향에 반환시켜 달라는 진정서를 총독부에 보내고 회사에 날마다 조른 덕으로 귀향허가를 받아낸다.

삼룡이, 오늘도 우리 앞동네 정골에서 이십 호 일백세 사람이 함경북도 고부산(占茂山)에 있는 시멘트공장으로 떠나가는데 정말 눈에서 피가 떨어지네. 삼룡이, 나는, 이 강판옥이는 구월 초순에 함경북도 나진(羅津)이라는 땅으로 노동자 노릇을 하러 가게 됐네 우리 동네서는 옥곤이네 큰형네하고 태술이네 삼촌 영전이네, 형들이네, 그리고 강판옥이 합해서 다섯 집 스물여섯 사람이 죽어 나가기로 했네. 인제는 우리 동네에 옛날 사람은 다 없어지고 다른 동네서 살러 온 사람밖에 없겠네그러¹⁰⁹⁾

그렇지만 강판옥의 편지에는 고향의 가뭄으로 더 이상 남아있던 사람들까지 떠날려고 한다는 소식에 오삼룡은 귀향을 포기하자 일행들도 포기한다. 이 소설의 주제는 일제의 이민정책의 실상 폭로와 농촌의 현실과 유이민의 비극적 삶을 고발하고 있다.

108) 박화성(1977), 전계서, p.484.

109) 상계서, p.486.

(5) 황폐화된 식민지 농촌의 궁핍상 — 이근영의 「고향 사람들」

가난한 농민이나 노동자의 생활현장을 묘사하여 당대 사회의 현실적 조건을 더욱 구체적으로 재현하고, 한국의 전통적인 농촌사회가 붕괴되어 가는 과정을 근원적으로 파헤쳐 보여줘 당시의 역사적 실상에 비교적 진지하게 접근한 농민소설에 가까울 수 있는 작품이다.¹¹⁰⁾

침략전쟁이 아직 본격화하기 전에는 농촌에서 쫓겨난 조선의 값싼 노동력을 ‘모집’이라는 형식으로 일본의 토목공사장이나 광산에 집단 동원했다.

그는 점쇠가 심부름 가는 줄을 알면서 이렇게 농담으로 받고 들어 웃었다.

“그런데 내지 안 가고 싶은가.”

이 말 한마디가 점쇠는 머릿속에 모닥불을 일으키듯 화끈하였다.

“아-니 무슨 말씀을 ……거 정말인가유?”

“정말이구말구. 그런데 점쇠가 가고 싶어하는 대판은 아니고만 북해도란 곳이 지 대판도 지나구 동경도 지나서 아주 북쪽에 붙은 땅인데 거게 석탄광에서 인부를 모집하러 왔어.”

하루 품삯이 이 원부터 오 원까지고 기한은 이 년이란 것까지 자세히 말해주었다.¹¹¹⁾

그러나 중일전쟁 이후에는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곧이어 ‘국민징용령’을 실시하여(1939) 많은 조선인을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노동력으로 강제 동원했다. 1939년부터 194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노동력으로 강제 동원된 113만 명으로 통계된 자료가 있는가 하면 146만 명으로 통계된 자료도 있다. 100만이 훨씬 넘는 조선인이 침략전쟁 말기에 강제 동원되었으며 이들은 탄광에 제일 많이 투입되었고 다음은 금속광산·토건공사·군수공장 등에서 혹심한 노동에 투입되었다.¹¹²⁾

110) 조정래(1987), “1940년대 초기 한국 농민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연주(1994), “이근영 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7에서 재인용.

111) 이근영, 전계서, p.125

112) 강만길(1993),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pp.36~37.

일제는 계속된 식민지 경제 정책으로 농토를 강탈하여 농민을 소작인으로 전락시켜 일본의 노동자로 삼아 세월이 흐를수록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모집, 강제 동원, 징집하여 전 국토를 황폐화, 정신적인 불모지를 만들어 나간다.

점쇠와 석만, 봉갑이는 보통사람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 중 석만이는 온 가족을 여기저기 맡겨놓고, 봉갑이는 결혼한지 7개월 된 아내와 헤어져 일본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점쇠도 돈 벌 욕심은 있지만 두 사람처럼 절박한 정도는 아니다. 이 기회에 돈도 벌고 삼년 전에 떠난 화선이를 만날 마음이 더 많다. 북해도 탄광으로 노동자로 떠나는 사람들은 떠나기 전에 할 수 있을 일이라고는 성황당으로 물러가 기원하는 일뿐이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주제는 황폐화된 한국농촌의 궁핍한 하층민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다.

주제의 양상은 다섯 작품 모두 바람직한 인생이란 어떤 모습인가?의 범주 속에 내포되어 나타나고 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암시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일제 강점기라는 사회적 환경에서 우리 민족의 삶이 궁핍하고 황폐한 실상을 고발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바라는 삶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장에서는 텍스트로 선정된 다섯 편의 소설을 대상으로 플롯, 배경, 인물의 성격, 갈등구조, 시점과 서술방법, 주제 등의 형상화 방법을 살펴보았다.

현진건, 이근영은 애상적 플롯을 통해서 폐허, 인정 있는 공간으로 이태준은 환멸의 플롯을 통해서 환멸의 공간으로, 이기영은 감상적 플롯을 통해서 무지에서 깨달음을 얻는 인식의 공간, 박화성은 퇴보의 플롯을 통해서 잃어버린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일제 식민통치 정책인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산계획, 노동력 수탈 등이 자행되어 한국 농촌의 궁핍은 극에 달하였다. 이기영, 이태준의 주인공 성격은 지도자 성격, 현진건, 박화성, 이근영의 주인공들은 범속한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갈등구조는 사회적 환경인 일제와의 갈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시점과 서술방법은 관찰자 시점, 전지적 시점과 작품마다 다양한 서술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주제로는 일제시대의 식민지 통치 정책으로 인한 농촌의 황폐화와 사회구조적 모순을 고발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Ⅲ장에서는 고향의 의미를 상호텍스트성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Ⅲ. ‘고향’의 의미와 상호 텍스트성

고향은 의식 속에서 생성되는 정신적인 실체로서 보고 듣고 느낀 체험을 통해 형성된 정신적 인식이다. 소설 속에서의 고향은 외재적 체험과 그것의 수용, 또는 거기서 형성된 지적 인식,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정서화해서 감정으로 표출되는가의 문제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하이데거가 언급한 것처럼 ‘고향’이란 오직 인간만이 거주할 수 있고, 또 그가 자기의 고유한 섭리 속에 안주할 수 있는, 인간만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 그에게 고향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근원적인 본질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고향인 근원으로 회귀할 때이다. 인간에게 있어 고향 회귀의식은 하나의 본능이다.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의 고향은 그리움의 대상이자 다시 되돌아 가고픈 곳이며, 늘 살아 숨쉬는 과거로서 내면 세계에 뿌리 박고 있다. 그래서 “고향은 우리들 생명의 근원인 동시에 감성을 기르고 최초의 경험을 비장하는 세계요, 상상력과 기억의 보고인 동시에 생의 목표 설정과 가능성을 향한 외부로의 출발의 기점이요, 향수의 대상이며 귀환의 마지막 종점”¹¹³⁾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만큼 고향이란 곳은 인간이 자신의 본질에 가장 근원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로 이해된다.

특히 유년기의 고향에 대한 경험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으로써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늘 풍요롭고, 아련하고, 자유롭고, 긍정적 이미지로 환기된다. 시간적으로는 늘 되돌아가고자 하는 과거 속에서 존재하게 되며, 공간적으로는 유아적 경험과 유년의 추억이 묻어 있는 생활터전이었던 개인의 지리적 공간의 일들로 기억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고향이란 ‘어머니’ 의식으로서의 회귀의식이며, 본능적 공간이다.

그런가 하면 고향은 도피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어머니 의식이란 인간의 무의식 밑바닥에 닿으려는 본능적 공간이며, 모태의식과 결부된다. 도피의 공간으로서의 고향은

113) 이재선(1991), 『한국문학 주제론』, 서강대출판부, p.178.

추상적인 장소로서 현실과의 불일치로 인해 균열이 생길 때 발생한다. 이러한 고향과의 결별은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하나였다.

이제 일제 강점기라는 독특한 역사적 시련기를 살다간 소설가들에게 '고향'의 이미지가 어떻게 형상화되어 환기되는지 대비의 관점에서 살펴볼 차례이다. 예컨대, '고향'이라는 제재를 작품 제목으로 클로즈업시킨 현진건을 비롯한 다섯 작가들이 고향의 의미와 이미지들을 어떻게 주고 받고 있는지를 대화적 상상력 혹은 상호 텍스트성의 관점에서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일반적으로 상호 텍스트성이란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의 모든 상호관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컨대, 텍스트 사이의 인용, 표절, 복사, 모방, 혼성모방, 패러디, 의견일치, 의미중첩, 혼합적 의견강화, 목소리의 배합과 중첩 등 공시적이고 통시적인 다양한 영향과 수용관계를 비롯하여 거대한 텍스트들의 우주에서 의미론적 상관 관계를 내포한다.¹¹⁴⁾

그러므로 상호텍스트성은 하나의 담화 사이에서의 응답관계를 시작으로 한 작가의 작품들의 관계와 서로 다른 작가의 작품 사이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장르를 초월한 모든 문학작품과 타예술 텍스트와의 상호 연관관계를 함축한다. 그러므로, 모든 텍스트는 독창적으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텍스트와 후텍스트 사이에서 영향과 수용의 관계고리를 형성하면서 의미작용과 표현작용을 암암리에 주고받은 결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심층적인 소설 이해의 한 방식으로서 텍스트 상호간의 의미 연관을 살피는 일이다.¹¹⁵⁾

특히 동시대를 살다간 작가들에게 공통의 관심사 혹은 객관적 상관물로 환기되고 있는 '고향'의 의미와 이미지에 대한 탐색은 텍스트 이해의 심화적 국면과 연결시킬 수 있다. 단일 텍스트를 형식주의적으로만 파고드는 것은 자칫 텍스트에 대한 대화적 상상력과 울림을 놓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에서 상호 텍스트성은 작가의식과 사회의식, 역사의식, 그리고 심미의식 등을 폭넓게 이해하는 원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는 위 작가들에게 공통의 제재로 도입된 '고향'의 상징적 의미를 제목, 배경,

114) 츠베탕토도로프(1997), 『바흐진: 문학사회학과 대화이론』, 최현무 역, 도서출판까치, p.109, p.272.

115) 김육동(1994), 『대화적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p.139.

갈등구조, 주제의 관점 등에서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우선, 제목의 측면에서 다섯 작품 모두 '고향'이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이들 상호간의 의미 연관성을 단적으로 유추하게 한다. 이런 제목의 유사성과 동일성 등이 곧 이 연구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이들 작품의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고향은 '떠남' '쫓겨남' '떠돌이 삶' 등 일제의 식민지 정책으로부터 야기된 고향 상실 모티브는 이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다섯 작가의 작품 속에서 보편적으로 확인된다.

그 중에서도 현진건, 이태준, 이기영의 「고향」은 주인공의 공간이동과 직결되어 나타나는데 떠남에서 돌아옴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박화성의 「고향 없는 사람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귀향에의 새로운 희망에 들떠 있다가 귀향을 포기한다. 그러면서도 또 새로운 희망에 질리게 매달리는 처절함을, 이근영의 「고향 사람들」은 타향으로 떠날 조짐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작품 속에서 고향은 식민지라는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적인 회귀의식과 동경의 대상으로 환기된다.

1. 이야기 구조와 배경 설정 방법

1) 이야기 구조

현진건의 「고향」과 이근영의 「고향 사람들」의 플롯은 애상적 플롯으로 자신의 잘못이 없는데도 불운을 겪는 인물들의 이야기이다. 주인공의 신분도 농민, 하층민으로서 순박하고 느긋한 성품으로 세상의 변화에 적응도 느려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기영의 「고향」은 감상의 플롯으로 읽을 수 있다. 주인공의 삶은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주변에 있어서 용기와 보람을 느낄 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보다는 다소 희망적이며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이야기 구조를 보여준다. 이태준의 「고향」은 환멸의 플롯이다. 주인공은 활기찬 미래의 확신을 가지고 조선에서의 새 생활을 다짐해보지만, 일본에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겪는 통과 의례와 같은

시련을 당한다. 그런 와중에도 그는 패기를 잃지 않지만 조국(고향)사회에서 현실에 대한 절망과 좌절로 인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념도 점차 확신하지 못하게 된다. 박화성의 「고향 없는 사람들」은 퇴보의 플롯이다. 즉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남을 것인가를 갈등하다가 결국은 고향을 포기하고 새로운 고향으로 삼는 이야기 구조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때, 이기영, 현진건, 이태준의 소설은 이향(離鄉)에서 귀향(歸鄉)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구조를 보여준다면 박화성의 소설은 이향의 공간에서 귀향을 포기하거나 기약할 수 없는 서사구조로 형상화된다. 이에 비해 이근영의 소설에서는 귀향을 전제로 하는 이향을 암시하는 구조를 찾아낼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도표로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작품명	플롯 유형	주인물의 고향인식
현진건의 「고향」	애상적 플롯	운명적 비극의 공간
이태준의 「고향」	환멸의 플롯	환멸과 절망의 공간
이기영의 「고향」	감상적 플롯	희망적인 미래공간
박화성의 「고향 없는 사람들」	퇴보의 플롯	상실과 포기의 공간
이근영의 「고향 사람들」	애상적 플롯	운명적 비극의 공간

<표1> : 플롯 유형분석표

따라서 <표1>이 보여주는 것처럼 현진건과 이근영은 '고향'을 운명적 비극의 공간으로 인식한 반면, 이기영은 다소 희망적인 미래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태준이 환멸과 절망의 공간으로 형상화했다면 박화성은 고향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실의 공간으로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비극적인 플롯들이기에, 주인공의 고향의식 속에는 비극·환멸·절망·상실감 등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이 소설들은 대체로 고향은 언젠가 필연적으로 돌아가야 할 귀향의 공간으로 인식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비극적 전망과 상실의 공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텍스트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배경

다섯 작품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지리적 공간 배경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의해 황폐화된 한국의 국토이다. 특히 농민과 하층민들에게는 경제적이고 가정적인 고통과 고난을 상징하는 공간들로 묘사된다. 이기영의 『고향』을 제외한 배경 공간은 현실 극복이 거의 불가능한 곳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기영은 작중인물 '김희준'을 통해서 환경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했던 데 비해, 현진건과 이태준은 주인공을 통해서 환경을 비판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근영은 절망적인 환경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박화성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작가들은 고향상실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을 잃어버린 한민족의 수난의 차원으로 인식함으로써 공간 배경의 의미 속에 당대의 시대인식과 역사인식을 상징적으로 내포시켜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¹⁶⁾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각 작품이 보여주는 배경의 기능과 의미 작용, 유형 등을 정리하면 <표2>와 같다.

116) 김종욱, "리얼리즘과 한국적 운명론의 긴장 관계", 『한국소설문학대계 21』(1995), 동아출판사, p 576

작품명	시대 배경	공간 배경	공간적 고향의 의미	배경 유형
현진건의 『고향』	토지조사사업 (1920년대)	빈공과 수탈의 공간 (농촌)	수탈의 장소인 농촌	사회적 배경
이태준의 『고향』	일제의 차별정책 (1930년대)	이상 실현이 불가능한 공간 (서울)	절망감을 주는 조선	사회적 배경
이기영의 『고향』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산계획 (1920년대)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공간 (농촌)	근대화에 따라 농촌 으로 계층의 분화가 가속되는 공간	사회적, 자연적 배경
박화성의 『고향 없는 사람들』	강제 이주정책 (1930년대)	잃어버린 공간 (농촌)	자연재해의 빈발과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떠남 의 공간	자연적, 사회적 배경
이근영의 『고향 사람들』	농촌의 노동력 수탈 정책 (1940년대)	인정이 남아있는 공간 (농촌)	경제적인 이유로 떠 날 예정	사회적 배경

<표2>. 배경 분석표

위 다섯 편의 작품이 보여주고 있는 배경의 공통점은 일제 강점기의 극단적인 수탈 정책을 적나라하게 고발할 수 있는 공간 설정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토지의 상실', '고향의 상실'이 '조국의 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식민지 수탈 정책으로 인한 농토의 상실, 그리고 그로 인한 극도의 궁핍화는 현진건, 이태준, 이기영, 박화성, 이근영의 작품에서 공히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현진건의 『고향』 공간은 사회적 배경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토지 조사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수탈과 경제적 궁핍이 가속화되면서 불모지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이태준의 『고향』도 사회적 배경이 주를 이루는데, 일제의 차별정책으로 인해 지식인이 좌절하는 절망의 공간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기영의 『고향』에 나타난 배경은 토지 조사사업, 산미 증산 계획에 의한 경제적 수탈로 궁핍과 계층의 양극화의 공간이면서도 농민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희망의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사회적 배경으로서의 의미가 강조된다. 박화성의 『고향 없는 사람들』의 배경은 경제적 궁핍에 자연재해까지 겹쳐서 강제로 이주하게 되는 떠남의 공간으로서 사회적·자연적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

다. 따라서 이 작품의 배경으로서의 '고향'은 잃어버린 공간, 다시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의미화된다. 이근영의 「고향 사람들」에서는 사회적 배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바, 농촌의 노동력 착취와 경제적 수탈이 가중됨으로써 노동력 외에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농민들이 버겁게 살아가는 공간이다. 경제적인 궁핍 때문에 탄광 노무자로 떠날 예정이면서도 모두가 서로를 걱정해주는 인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묘사된다.

그러므로 위 텍스트들에 나타난 배경은 일제의 극단적인 수탈 정책으로 절대적인 궁핍의 양상을 보이는 공간들로 상호 텍스트성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2. 성격과 갈등창조 방법

1) 인물의 계층과 성격

이기영의 『고향』에 나오는 '김회준'과 이태준의 「고향」에 등장하는 '김윤건'은 현실을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다. '김회준'은 유학차 고향을 떠났다가 귀향한 후 조심스레 농민들과 접촉하면서 고향의 현실에 대해 고민도 해보고 주변인에 대한 충고도 받아들이는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한다. 고향의 발전을 위한 일들에 열심히 매달려 고향의 모든 현안의 중심부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계획하고 해결해나가는 해결사로서 활동한다. 농민들의 힘을 결집시키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주역을 귀향한 지식인인 김회준이 맡은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식과 투지와 추진력을 갖춘 인물이다.

'김윤건'은 어려서 가정의 일로 고향을 떠났다가 대학을 마치고 귀향한 지식인이다. 현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자기 의견을 내세울 장소에 가서도 시원스레 말도 못하고 울분만 터트리며, 상황에 차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자제력과 설득력이 부족한 인물이다. 자신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울분과 개인주의로 전락해버린 지식인의 갈등이 김윤건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다.

박화성의 「고향 없는 사람들」의 농민들과 이근영의 「고향 사람들」의 농민들은 넉넉

한 인심을 지닌 사람들이다. 가난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나눠 가지려는 마음을 가진 「고향 없는 사람들」의 '강판옥'이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일본진출을 결심하는 「고향 사람들」의 순박한 '점쇠' 등은 우리 농촌에서 볼 수 있는 인물이다. '강판옥'이나 '오삼룡'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서글픔이 진하게 간직한 인물들이기에, 고향의 떠남을 죽음으로 여길 만큼 고향에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점쇠'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사랑과 경제에 염두를 둔 이향(離鄉)이어서 그런지 들뜬 기분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

현진건의 「고향」의 '그'는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편이다. 농민인 '그'가 식민지 경제 수탈 정책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간직하고 있다. 그는 농토에 대해 본능에 가까운 의식을 갖고 절박한 그리움으로 귀향하지만, 결국 고향의 폐허화로 다시 떠나게 된다.

이상으로 다섯 작품의 성격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3>과 같다.

작품명	주인공의 계층	유형	주인물의 공간이동
현진건의 「고향」	농민	범속한 성격	떠남-귀향-다시 떠남
이태준의 「고향」	지식인	다혈질적인 지도자적 성격	떠남-귀향
이기영의 「고향」	지식인	김회준: 지도자 성격 안승화: 어리석은 성격 안갑숙: 지도자적 성격	떠남-귀향
박화성의 「고향 없는 사람들」	농민	오삼룡: 지도자적 성격 강판옥: 범속한 성격	떠남-타향
이근영의 「고향 사람들」	농민	점쇠: 범속한 성격 석만: 범속한 성격 봉갑: 범속한 성격	고향거주-이향 예정

<표3> 주인공들의 성격분석표

다섯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인물들의 계층은 농민과 지식인으로, 성격은 대체로 지도자적 성격과 범속한 성격으로 나눌 수 있다. 이태준과 이기영의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

의 계층은 지식인으로서 귀향의지가 강하다. 그들은 모두 고향의 발전에 관심이 많으나 성격과 현실대응 양상은 서로 다르다. 전자의 주인공들은 성격이 다혈질적이어서 일제의 어려운 상황에 차분히 대처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고향의 의미가 절망적이고 패배적인 공간으로 환기된다. 후자는 적극적인 지도자 성격으로 고향에서 중심부로 활동하면서 주변인들에게 현실의 본질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물로 창조되었다. 현진건, 박화성, 이근영의 작품 주인공들은 범속한 성격을 가진 농민들로, 일제가 덧씌운 사회적인 환경에 피해를 당하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현실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고향을 지켜 나가기보다는 고향을 떠나 객지를 떠돌거나, 고향으로의 회귀에 큰 희망을 건다. 그러나 그러한 꿈은 실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묘사되고 있다. 따라서 상호 텍스트성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의식의 밑바탕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회귀욕망이 깔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작품이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인물들을 보면, 현진건, 박화성, 이근영의 소설에서는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농부들, 이태준의 소설에서는 적합한 직업을 갖고 고향과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지식인상을, 이기영의 소설은 가정과 사회(고향)를 위해 사랑과 열정으로 활동하는 지식인상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소설들의 주인공들은 계층에 상관없이 고향을 중심으로 공간이동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대체로 범속한 농민계층의 인물들은 속수무책의 상황에 순응하여 이향(고향 떠남)의 행동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면, 지도자적 성격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은 이향의 상황에서 귀향으로 나아가는 공통점을 보인다.

2) 갈등구조

다섯 작품의 갈등구조는 기본적으로 일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극한적인 궁핍한 삶의 조건의 상황에서 벗어날 기미조차 전혀 보이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가족 해체는 물론 고향 상실까지 가져온 것은 전적으로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적 상황을 가능하게 만든 갈등의 핵은 역시 절대 빈곤이다.

이기영과 현진건의 작품의 가난 극복 방법은 다르게 나타난다. 전자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불화를 혁명적 방법에 의하여 그 극복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민족적 이기보다는 계급적이다. 반면에 후자는 가난의 문제를 자본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가진 자의 도덕성에 의지하여 반전의 미학을 통해 그 해결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¹¹⁷⁾

이제 이들 작품의 갈등구조를 도표로 보이면 <표4>와 같다.

작품명	갈등 동기	갈등 유형	갈등 결과
현진건의 「고향」	일제 식민지 정책	인물과 사회제도와의 갈등	고향을 떠남
이태준의 「고향」	일제 민족차별	인물과의 갈등, 인물 과 사회와의 갈등	분노와 좌절을 춤
이기영의 『고향』	일제 식민지 정책 조흔, 사회인습	인물과의 갈등,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	고향을 지켜 나감
박화성의 「고향 없는 사람들」	자연재해, 일제의 강제 이주 정책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 인물과 자연과의 갈등	고향을 떠남
이근영의 「고향 사람들」	일제의 식민지 경제 정책으로 인한 가난, 일제의 노동력 모집	인물과 인물과의 갈등, 인물과 사회제도와의 갈등	고향을 떠날 예정

<표4> 갈등유형분석표

이들 작품에 나타난 공통적인 갈등 동기는 일제 식민통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갈등 유형 또한 주로 사회와의 갈등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현진건의 「고향」에서 주인공은 일제의 식민정책으로 농토를 잃어 타향을 전전하다 재귀향하지만 폐허가 된 고향을 발견하고는 다시 떠나고, 이태준의 「고향」에서는 주인공이 일제의 민족 차별정책에 아부하여 변절한 지식인에 대한 분노와 좌절로 울분을 터뜨리다 관청에 간하는 신세로 갈등구조를 보여준다. 이기영의 『고향』에서는 일제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계층의 양분화와 궁핍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농민들도 김희준의 도움으로 현실문제의 본질을

117) 현길언(1997), 『소설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나남출판, p352

깨닫고 지주에 대항하여 소작쟁의로 맞서는 갈등구조를 보여주면서 고향을 굳건히 지켜 나가고자 한다. 박화성의 「고향 없는 사람들」은 자연재해와 일제의 강제 이주정책 때문에 이향을 죽음만큼이나 두려워했던 농민들이 타향으로 이주한다. 그들은 낯선 곳, 험악한 환경 속에 견디다 못해 귀향을 시도하나 자연재해로 인해 포기하게 된다. 이근영의 「고향 사람들」에서는 궁핍하게 살던 농민들이 일본에 노동자로 돈벌이를 하기 위해 가족의 품을 떠나게 될 비극적 상황과 조짐을 암시하고 있다. 농민들은 일제의 식민통치 정책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고향을 떠나 유랑민이 되는 갈등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소설들은 대체로 일제의 식민통치를 근원적인 갈등의 동기로 파악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 상황을 보편적으로 제시하면서 고향을 중심으로 한 작중인물들의 다양한 행동양식(떠남, 지킴, 분노와 좌절, 떠남 예정)을 당대의 상황 속에서 주고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시점과 서술방법



장편소설인 이근영의 『고향』은 사회주의 리얼리즘¹¹⁸⁾의 관점에서 화자시점과 인물시점을 혼용하고 있고 현진건, 이태준, 박화성, 이근영의 작품들은 비판적 리얼리즘¹¹⁹⁾의

118) 한용환(1992), 『소설학 사전』, 고려원, p.208.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단순한 현실의 재현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운동 전체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사회주의적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현실의 실천적인 반영을 그 목표로 한다.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의 토대 위에서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들을 현재 속에서 발견해 내고 이를 예술적으로 형상화시킴으로써 사회주의적 전망을 분명하게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119) 상계서, p.193.

비판적 리얼리즘은 사회주의 리얼리즘과의 관련성 속에서 흔히 논의되는데,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사회주의적인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창작원리를 규정짓는 것이라면, 비판적 리얼리즘은 통상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나아가기 이전 단계의 사실주의 창작방법을 일컫는다. '비판적 리얼리즘은 부르주아 사회의 추악하고 억압된 현실을 묘사한 작품에서 발견된다. 반면에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삶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데 만족하지 않고, 반드시 공산사회에서 필연적 미래로 향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는 G.J. 베커의 말처럼, 비판적 리얼리즘은 봉건제도와 자본주의 사회가 지녔던 부정적 측면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현진건은 인물시점으로 나머지 작가들은 화자시점으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대 사회의 문제점과 식민통치로 피폐화된 고향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증언하고 폭로하기 위한 작가의 전략적 조치로 보인다. 그리고 전지적 시점을 활용한 화자시점의 사용은 당대 상황을 전지자의 위치에서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고발하기 위한 배려가 깔려 있고, 1인칭과 3인칭 관찰자시점을 활용한 인물시점과 화자시점의 선택적 사용은 당대의 실상에 대한 객관적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기영의 『고향』에서 화자시점과 인물시점을 혼용한 것은 일제 식민통치의 역사적 시대상황을 구체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총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편소설로서의 시점 및 서술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여기서 이기영의 장편소설이 보여주는 총체성이란 당대의 시대·역사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상황을 포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총체적 노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각 작품들의 시점과 서술방법을 정리하면 <표5>와 같다



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그 생활형태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적 형상화를 보여 주는 작품들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어 왔다

작품명	시점	서술 방법	효과
현진건의 『고향』	1인칭 관찰자시점	상징법과 구체적인 외양묘사, 토문의 변화 등에 의한 점차적인 성격 노정, 대화의 사용에 의한 효과적인 사건 서술, 노래의 제시를 통한 주제의 집 약적 표현, 사실적인 언어구사, 인물 시점 서술, 액자서술 기법	식민지 정책으로 고향 향까지 빼앗긴 하층 민의 비극적인 삶 을 보여줌
이태준의 『고향』	3인칭 전지적시점	생각과 대화의 사용에 의한 사 건 서술, 시간의 역전.	민족주의자와 현실 적인 이기주의자의 대비, 암울한 분위 기를 보여줌
이기영의 『고향』	3인칭 전지적시점	연설, 토론방식, 이야기체 형식, 삽 화적 장면처리 방법, 사실묘사에 치중함. 화자시점서술, 집단적 인 물들을 주요대상으로 초점화함.	농촌의 총체적인 모습 제시
박 화 성 의 『고향 없는 사람들』	3인칭 관찰자시점	노래의 제시를 통한 주제의 집약 적 표현, 편지내용으로 인한 사건 전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분위기와 회귀불가능을 보 여줌
이근영의 『고향 사람들』	3인칭 전지적시점	일화를 통한 표현, 대화와 요약서 술, 간접적 내적 독백, 시간의 역전.	고향을 떠나는 사 람들의 소원이 불 가능을 보여줌

<표5>시점과 서술방법 분석표

이렇게 하여 식민지 정책으로 고향까지 빼앗긴 하층민의 비극적인 삶과 사회적인 분
위기,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극한적 궁핍 상황 등을 객관적이고 총체적으로 증언하
고자 노력한다.

서술방법으로는 노래의 제시나 편지로 인한 사건 전개, 일화 등으로 폭로, 고발하여
고향의 다양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진건의 소설에서는 액자 서술 기
법을 사용하여 농촌의 피폐화, 가족윤리 파괴, 성 상품화 문제를 형상화시켜 우리 민족
의 황폐화된 삶을 보여준다. 이태준의 소설에서는 생각과 대화, 시간의 역전 기법을 사
용하여 절망의 분위기를 표현해내고 있으며 이기영의 소설에서는 장면처리 기법, 일화,

이야기체, 토론 형식을 사용하여 우리 농촌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 박화성의 소설에서는 편지 형식을 이용해서 빠르게 사건을 전개해 나가면서 고향으로의 회귀 불가능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으며, 이근영의 소설에서는 일화와 내적 독백, 대화와 요약서술로 농촌의 인정 있는 삶을 보여주면서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의 소원이 불가능함을 암시하고 있다.

4. 주제의 유형과 의미

주제 면에서도 다섯 작품은 몇가지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궁핍상을 고발하고 있다는 점, 특히 하층민 계층의 생활고를 형상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 예이다. 그밖에도, 박화성의 『고향 없는 사람들』은 일제의 이주정책의 실상을 폭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현진건의 『고향』에서는 이향을 했다가 재귀향을 한 시각으로 본 고향에서 느낀 허탈감을 형상화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이기영의 『고향』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하층민들의 박탈감과 식민지 사회에서의 농촌 계층 분해 양상과 그로 인한 궁핍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 또한 당대 사회의 실상에 대한 보완적 증언이라는 점에서 상호성을 함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주제의 유형을 정리하면 <표6>과 같다.

작품명	주제	주제 유형
현진건의 「고향」	일제의 침략으로 인한 한국 민족의 고향상실과 비참한 삶을 고발	고발과 지향성에 의한 삶의 지표의 제시
이태준의 「고향」	일제 식민 통치하 지식인의 부조리한 현실과의 타협과 모순 고발	고발과 지향성에 의한 삶의 지표의 제시
이기영의 『고향』	식민지에서의 농촌 계층 분해 양상과 그로 인한 궁핍한 현실의 모습을 고발	고발과 지향성에 의한 삶의 지표의 제시
박화성의 「고향없는사람들」	일제의 이민 정책의 실상 폭로와 농촌의 현실과 유이민의 비극적 삶	고발과 지향성에 의한 삶의 지표의 제시
이근영의 「고향 사람들」	황폐화된 한국 농촌의 궁핍한 농민들의 실상을 고발.	고발과 지향성에 의한 삶의 지표의 제시

<표6> 주제 분석표

주제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양상은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고발과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향의식이다. 현진건의 「고향」은 일제의 가혹한 수탈정책에 따른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을 고발하고,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여, 자신의 농토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상적인 고향임을 보이고 있다. 이태준의 「고향」은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 지식인의 부조리한 현실과의 타협과 모순을 고발하는 가운데 이상적인 고향은 원하는 직업을 갖고 사는 사회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기영의 「고향」은 식민지 농촌의 계층 분해 양상과 그로 인한 궁핍한 현실의 모습을 고발하면서 농민들이 바람직한 농촌 건설의 주체로 당당히 서는 사회를 제시하고 있다. 박화성의 「고향 없는 사람들」은 일제의 이민 정책의 실상을 폭로하는 한편 농촌의 현실과 유이민의 비극적 삶을 고발하면서 일제의 식민통치와 자연 재해가 없는 사회 즉 고향에서 농토를 갖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이근영의 「고향 사람들」은 황폐화된 한국 농촌의 궁핍한 농민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가난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사는 고향을 이상향으로 암시하고 있다.

현진건의 '고향'은 그리움과 추억을 가진 공간이나 사랑하는 여인과 같이 '불모지'로

서 의미를 갖는다. 이태준의 '고향'은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흥분하고 좌절하는 '패배'의 공간이다. 이기영의 '고향'은 적극적으로 환경에 대항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무지에서 현실의 본질을 깨달아 가는 '인식의 공간'이다. 박화성의 '고향'은 그리움의 대상이며 회귀의지를 강하게 갖게 한 곳이었으나 자연적인 환경(가뭄) 때문에 '잃어버린 곳'이 된다. 이근영의 '고향'은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해 주는 인정의 공간이며 가족과의 이별로 그리움을 유발하는 곳이다.

이렇게 볼 때 다섯 편의 공통점은 쫓겨 가듯 떠난 고향이든, 자의로 떠난 고향이든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공간으로 그려져 있는 점이 특이하다. 다만 이기영의 『고향』에서 주인공 '김회준'은 공부를 하기 위해 고향을 떠났지만 나머지 작품에서는 살기 위해 떠난 고향이라는 점에서 상호 텍스트성이 보인다. 소설 속에서 가족과 함께 떠나지 않는 이향은 가족과 함께 타향으로 떠나는 것보다 나은 처지였으나 그 결과는 더 비참한 것으로 형상화 되는 보편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고향'을 제재로 한 이 다섯 편의 소설들은 인간의 본성탐구보다는 주어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가의 문제에 문학적 관심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식민지 사회의 모순과 실상을 폭로하고 고발하면서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향의식 등을 공통의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텍스트성의 관점에서 시대의식이나 역사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이 연구는 현진건의 「고향」, 이태준의 「고향」, 이기영의 『고향』, 박화성의 「고향 없는 사람들」, 이근영의 「고향 사람들」 등 다섯 편을 텍스트로 하여 일제 식민통치하에 작가들이 소설을 통해 형상화 해 놓은 '고향'의 의미를 상호 텍스트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연구 방법은 대상 작품을 소설의 구성요소별로 그 의미작용과 형상화 기법을 고찰한 뒤 상호 텍스트성의 관점에서 의미상의 관련성을 찾아보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상의 논의 결과를 요약 제시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 플롯 면에서 보면 현진건의 「고향」과 이근영의 「고향 사람들」의 작품은 애상적 플롯으로 자신의 잘못이 없는 데도 불운을 겪는 이야기이다. 이기영의 『고향』의 주인공은 당장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보상을 받는 감상의 플롯이다. 이태준의 「고향」은 환멸의 플롯이며, 박화성의 「고향 없는 사람들」은 퇴보의 플롯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갈등하다 결국은 고향을 포기하고 타향을 새로운 고향으로 삼으려는 다짐으로 이어지는 플롯이다.

둘째, 배경 면에서 현진건의 '고향'은 절망과 서글픔의 공간이다. 이태준의 '고향'은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기대가 어긋나는 공간이며, 이기영의 '고향'은 다른 작품에 비해서 희망이 아직 남아있고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는 공간이다. 박화성의 '고향'은 자연 재해와 일제의 강제 이주정책에 따라 먼 타향까지 가서 새로운 고향을 가꾸며 살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공간이다. 이근영의 '고향'은 빈궁하지만 인정이 남아있는 곳으로, 가족을 남겨두고도 떠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작품들의 시공간 배경은 일제시대 우리 나라의 전국토로 피폐화되었으며, 특히 농민을 비롯한 하층민들이 경제적 파탄과 가정 파탄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음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셋째, 주요인물의 성격 면에서는 이기영 『고향』의 '김희준'은 적극적으로 현실에 대처해 나가기 때문에 희망적인 전망을 주는 지도자 성격으로 설정되었다. 이태준의 「고향」의 '김운전'은 다혈질적인 지도자의 성격으로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합리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먼저 흥분하고 분노하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이 두 인물은 공통적으로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귀향의지는 강하지만 특히 후자의 경우는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박화성의 「고향 없는 사람들」과 이근영의 「고향 사람들」에 등장하는 농민들은 범속한 성격으로 현실에 순응할 수밖에 없어 고향을 떠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된다. 이태준이나 현진건의 「고향」에도 인물들이 황폐한 '고향'을 보며 느끼는 참담함은 마찬가지이나, 현진건의 「고향」 속의 '그'는 범속한 성격으로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여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비교적 강하게 드러나 있다.

넷째, 갈등구조의 면에서 이 작품들의 기본 갈등은 공히 일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현실생활의 개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가족의 해체는 물론 고향 상실까지 가져온 것은 전적으로 일제의 식민통치가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 결과 극한적인 경제적 궁핍화와 고향상실 및 조국상실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공통으로 그려내고 있다.

다섯째, 시점과 서술 면에서 보면, 현진건의 「고향」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액자, 중단에 의한 서술기법, 상징법과 구체적인 외양묘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고향을 떠나 유랑하는 떠돌이의 비극적 삶을 보여주고 있다. 이태준의 「고향」은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대화의 사용에 의한 사건 서술과 시간의 역전 기법을 사용하여 암울한 고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기영의 『고향』은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삽화적 장면처리와 사실묘사에 치중하여 농촌의 역동적이고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박화성의 「고향 없는 사람들」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며 노래의 제시를 통해 주제를 표현하고 편지 내용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시간단축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고향으로의 회귀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근영의 「고향 사람들」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이며 간접적 내적 독백과 시간의 역전 기법을 통해 고향을 떠날 사람들의 소원실현이 불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여섯째, 주제 면에서 볼 때, 대상 작품들이 모두 일제 강점기에 식민지 통치 정책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궁핍상과 황폐화를 고발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박화성의 「고향 없는 사람들」은 일제의 이주정책의 실상 폭로를 하고, 현진건의 「고향」은 이향을 했다가 재귀향하여 고향에서 느끼는 허탈감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태준의 「고향」은 지식인의 분노와 좌절을, 이기영의 『고향』은 근대 자본주의의 모순이 가져다

준 계층의 양분화와 하층민들의 박탈감을 나타내고 있고, 이근영의 「고향 사람들」은 황폐화된 한국 농촌의 궁핍한 농민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점 등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진건, 박화성, 이근영의 작품은 실향소설의 범주에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상호 텍스트성의 관점에서 위 다섯 텍스트는 '고향'을 언젠가 필연적으로 돌아가야 할 귀향의 공간으로 인식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비극적 절망과 상실의 공간으로 이해함으로써 의미상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배경 설정의 차원에서도 이들은 한결같이 '고향'을 극단적인 일제의 수탈정책으로 야기된 절대적 궁핍의 공간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텍스트성을 공유한다. 또 인물창조의 양상에 있어서도 범속한 농민계층의 인물들은 이향(離鄉)의 행동특성을 보이는 반면 지도자적 성격의 인물들은 귀향의지를 표출하는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갈등의 동기도 일제 식민통치를 근원적인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거나, 당대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고발하기 위해서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시점을 활용하고 있는 점에서도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주제면에서는 다섯 편 모두 주어진 역사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가의 문제에 일치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식민지 사회의 모순과 실상을 폭로하고 고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향의식 등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의식이나 역사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분석의 텍스트로 선정된 다섯 편의 소설들은 치욕적인 한국 근대사를 나름대로 증언하는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에는 일제에 영합한 작가들도 적지 않았고 현실을 떠나 역사적 시간 속에 깊숙이 파묻혀 현실을 방관하거나 농촌으로 돌아가 자연과 농촌 생활을 예찬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작가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향'을 다룬 작품들은 당대 현실의 조망자 내지는 비판자로서 일제 주도하의 파행적 자본주의와 식민지 통치자들이 우리 농촌을 수탈하고 착취하여 당대 한국인의 비참한 삶과 고향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던 상황을 예리하게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가들은 일제 강점기에 고향을 잃고 처절한 삶을 살아야 했던 당대의 한국인들의 소망을 고향에 대한 향수와 고향 회귀 욕망으로 반영시켰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고향'을 주제로 소설화한 작가들은 타향과 타국에서 봉육의 삶을 살아야 했던 일제시대 한국인들의 꿈과 정서를 대변해준 시대적 대변적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이런 점들은 소설사의 흐름에서 볼 때에도 광복 이후 민족국가 수립, 분단 상황의 극복 문제 등을 형상화한 일련의 작품들과 그 뿌리를 같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텍스트와 연구 방법의 제한적 선택에서 오는 한계성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소설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와 가치를 상호 텍스트성의 관점에서 정리하였다는 데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한계성은 앞으로 후속 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임을 밝혀둔다. ~

참 고 문 헌

< 자료 >

- 박화성(1977), 「휴화산」, 창작과비평사.
이근영(1943), 「고향 사람들」, 영창서관.
이기영(1994), 「고향」, 문학사상사
이태준(1988), 「이태준전집 3 중·단편」, 깊은샘.
현진건(1926), 『조선의 얼굴』, 글벗집.

< 단행본 >

- 강만길(1993), 「한국현대사」, 창작과비평사.
구인환(1982), 『문학개론』, 삼영사.
_____ (1990), 「한국현대장편소설연구」, 삼지원.
_____ (1996), 「소설론」, 삼지원.
권택영(1991), 「소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동서문학사.
김시대(1982), 「한국현대 작가·작품론」, 이우출판사.
김우중(1983), 「한국현대소설사」, 성문각.
김우중(1989),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김육동(1994), 「대화적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김윤식(1990), 「한국 현대현실주의 소설연구」, 문학과지성사
김중하(1997), 「소설의 이해」, 세종출판사.
김천혜(1995), 「소설 구조의 이론」, 문학과지성사.
나병철(1996), 「한국문학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문예출판사
민현기(1989), 「한국 근대 소설과 민족 현실」, 문학과지성사
박철석(1995), 「한국현대문학사론」, 민지사.
상허문학회(1993), 「이태준 문학연구」, 깊은샘.
서종택·정덕준(1990), 「한국현대소설연구」, 새문사.
서종택·정덕준(1990), 「한국현대소설연구」, 새문사.

- 오양호(1984), 「농민소설론」, 형설출판사.
- 우찬계(1998), 「일제강점기의 현대소설1」, 웅진출판.
- 윤병로(1996), 「한국근·현대문학사」, 명문당.
- 이대규(1998), 「문학의 해석」, 신구문화사.
- 이미림(1999), 「월북작가 소설연구」, 깊은샘.
- 이상경(1994), 「시대와 문학」, 풀빛.
- 이재선(1982), 「한국단편소설연구」, 일조각.
- 이재선(1986), 「한국현대소설사」, 흥성사
- 이재선(1996), 「한국문학의 원근법」, 민음사.
- 이재선·조동일(1986), 「한국현대소설작품론」, 문장.
- 이재인·한용환·우한용 편저(1998), 「한국소설의 이해」, 문학사상사.
- 이주형(1995), 「한국근대소설연구」, 창작과 비평사.
- 장소진(2000), 「현대소설 플롯론」, 보고서.
- 정호웅(1994), 「우리소설이 걸어온 길」, 솔.
- 조남현(1984), 「소설원론」, 고려원
- 조남현(1988), 「한국소설과 갈등」, 창작과 비평사.
- 조정래·나병철(1991), 「소설이란 무엇인가」, 평민사.
- 천이두(1996), 「한국현대소설론」, 형설출판사.
- 한명환(1997), 「한국 현대소설의 대중미학연구」, 국학자료실.
- 한용환(1992), 「소설학 사전」, 고려원.
- 현길언(1997), 「소설을 어떻게 읽을것인가」, 나남.
- 홍기삼·김시태(1991), 「해금문학론」, 미리내.
- 황패강 외(2000), 「한국문학작자론4」, 집문당.
- N.프라이, 임철규 역(1982), 「비평의 해부」, 한길사.
- 츠베탕토도로프, 최현무 역(1987), 「바흐전: 문학사회학과 대화이론」, 도서출판까치

<논문>

- 권명아(1992), 「이기영 소설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경희(1997), “이기영 『고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 김명신(1990), “이기영 소설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연숙(1994), “1920-30년대 소설에 나타난 ‘귀향’ 양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김현주(1993), “이기영의 『고향』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문수임(1996), “이근영 소설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백성우(1996), “이기영 농민소설 연구”,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서정자(1980), “박화성론”,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손진곤(1995), “현진건 소설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송미경(1994), “현진건 단편소설의 인물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송병직(1994), “이태준 농민소설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송병직(1994), “이태준의 농민소설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안상문(1990), “이기영의 『고향』과 『두만강』에 관한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안성수(1989), “한국 근대 단편소설의 플롯연구 시론”,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_____ (1997), “대화적 상상력과 화답의 구조”, 『현대소설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 _____ (1998), “상호텍스트성과 문학교육”, 『한국문학교육학』 제12호, 한국문학교육학회,
- 이선영(1992), “이기영 소설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연미(1990), “이태준 소설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이연미(1990), “이태준 소설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이연주(1994), “이근영 소설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우석(1996), “이태준 단편소설에 나타난 인물유형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이종희(1997), “농촌소설 『고향』의 담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이주화(1993), “현진건 단편소설의 갈등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임경선(1976), “1930년대 여류소설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임성희(1991), “박화성 단편소설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임정지(1994), “이근영 소설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최남희(1993), “이태준 단편소설의 분석과 해석”,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최일혁(1995), “이기영 소설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한 선(1998), “이기영의 『고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한상무(1993), “현진건 소설의 이데올로기 연구”,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 허정란(1993), “박화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홍정혜(1998), “안희남 소설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Abstract>

The Meaning of Hometown Showed in Korean Modern Novels

Moon In-Sook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Ahn Seong-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various meanings of hometown showed in Korean modern novels. I have studied five literary works ; Hyun Jin-Gun's 'Hometown', Lee Tae-Jun's 'Hometown', Lee Gi-Young's 'Hometown', Park Wha-Sung's 'People without Hometown', Lee Geun-Young's 'People in Hometown'. So as to investigate the meaning and worth of hometown the novelists, an intellectual had in mind at the age of Japanese colonial rule and economic plundering.

In order to examine how to shape the meaning of hometown in five works, I have analyzed plot, background, character, conflict structure, description and subject. On the basis of the results I have studied the meaning of hometown and its typical feature from the point of intertextuality. So I have confirmed that these five works have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title ; hometown. As these works had been published under the special historical circumstances of Japanese colonial rule, the hometown is expressed as a target of return and yearn.

In plot a tragic plot is showed in general and the main characters consider the hometown as tragedy, disillusion, despair and feeling of loss, etc. In

background a life of distress is chiefly appeared owing to the japanese plundering policy. They tend to enlarge the hometown as homeland. In conflict structure the age of japanese is considered as a feature of specific social conflict, so a lot of peasants became utmost victims. In subject owing to japanese colonial rule, the impoverished society is described and criticized. Also, desirable humanity and the way to take future course of the intellectual is presented in many works.

In addition, these works act an important role as a critic and accuser against japanese wrong colonial policy and economic plundering, and defend persons who had no choice but to leave their home at that period.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0.